

저자 신기영
국역 권오민
해제 권오민

국역 瘍醫微



9 788959 703999

ISBN 978-89-5970-399-9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양익미 서문 瘍醫微 序	1.1
《양익미》 목차 《瘍醫微》 目錄	1.2
양익미 제1권 瘍醫微 卷之一	1.3
옹저 癰疽	1.3.1
내옹 內癰	1.3.2
나력 瘰癧	1.3.3
유옹 乳癰	1.3.4
배저 背疽	1.3.5
뇌저 腦疽	1.3.6
정저 疔疽	1.3.7
양익미 제2권 瘍醫微 卷之二	1.4
인후 咽喉	1.4.1
견순 繭脣	1.4.2
안창 眼瘡	1.4.3

이풍독 耳風毒	1.4.4
비치 鼻痔	1.4.5
면종 面腫	1.4.6
두창 頭瘡	1.4.7
갑저 甲疽	1.4.8
제옹 臍癰	1.4.9
학슬풍 鶴膝風	1.4.10
겸창 謙瘡	1.4.11
변독 便毒	1.4.12
근저 跟疽	1.4.13
유단 遊丹	1.4.14
결핵 結核	1.4.15
영류 癭瘤	1.4.16
양익미 권3 瘍醫微 卷之三	1.5
치루 痔漏	1.5.1
장독 臟毒	1.5.2
현옹 懸癰	1.5.3
음낭독 陰囊毒	1.5.4
음식창 陰蝕瘡	1.5.5

습창 濕瘡	1.5.6
개창 疥瘡	1.5.7
선창 癬瘡	1.5.8
아감창 牙疳瘡	1.5.9
미창 黴瘡	1.5.10
대마풍창 大麻風窓	1.5.11
금창 金瘡	1.5.12
장창 杖瘡	1.5.13
동상 凍瘡	1.5.14
화상 火瘡	1.5.15
칠창 漆瘡	1.5.16
소아 제창 小兒諸瘡	1.5.17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향	2.3

瘍醫微序 양익미 서문

《周禮》, 瘍醫掌其祝藥劑殺之齊, 所以養萬民之疾也,¹ 則其爲職, 非卑鄙也, 審矣, 挽近世學爲醫者, 恥言疔瘍而不肯習也. 士大夫家, 亦不擇其術, 而委諸眊隸之賤, 闖茸之手, 使之治焉, 彼既不知其病之有因, 證之有變, 而妄施砭石, 輒加炮烙, 創何由得其痊, 人何由遂其生耶? 可哀也已.

《주례(周禮)》에 양의(瘍醫)는 약 바르고 종기 긁어내는 일을 관장하여 백성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니, 그 직분이 비루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요즘 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은 종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워하며 익히려 하지 않는다. 사대부 집안에서도 종기 치료술을 택하지 않고 무지렁이나 종과 같은 미천하고 자질이 없는 이들에게 맡겨 치료하게 한다. 이들은 병의 원인과 증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찔석(砭石)으로 찔고 지지기가치 한다. 종기가 생기면 무엇에 의지하여 나을 것이며, 사람들은 어디에 의지하여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애석할 따름이다.

已昔我王考奉命, 湖西廉訪民隱, 念王事之靡盬, 效鞠躬之盡瘁, 徒行炎熱, 餐宿風露. 及其歸也, 痰液稽留, 漂疽漫膏,² 久而彌篤. 諸醫危之, 遂邀連山李公宜春, 得盡其術以療之, 李公容觀魁梧, 談論雋爽, 感慨好氣義, 蓋隱於醫者也, 而世罕有知之者, 李公未嘗切脈按氣, 而一寓目輒知其病之有因, 證之有變, 如長桑君之視垣也, 遂隨創進藥, 無不奏效, 痰之稽留者和焉, 疽之漫膏者合焉, 凡諸證之危惡者, 霍然已焉.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명을 받아 호서 지방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실 때 쉬지 않고 왕명을 생각하고 힘을 다해 왕명을 실천하기 위해, 폭염 속에 걷고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숙식하셨다. 돌아오실 즈음에는 담(痰)이 맏히고 종기에 진물이 차올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위독해져 모든 의원이 위태롭게 여기었다. 마침내 연산에 사는 이의춘(李宜春)을 만나게 되었는데 의술을 다하여 치료해 주었다. 이공(李公)은 키가 크고 건장한 외모에 말이 시원스럽고 기개가 드높았다. 아마도 은거하여 의학에 전념하여 그런지 세상에 아는 이가 드물었다. 이공은 맥을 짚거나 기색을 살피지 않고도 한눈에 병의 원인과 증상의 변화를 바로 알아내었는데, 마치 장상군(長桑君)이 준 약을 먹고 담을 뱉어본 화탁과 같았다. 드디어 상처마다 약을 바르니 낫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맏힌 담이 사그라들고 고름이 흐르던 종기는 아물어, 모든 위험한 증상이 빠르게 깨끗이 나았다.

李公之名, 稍稍聞於薦紳間矣, 純廟甲戌, 李公被召赴闕, 有贊寧進豆之功, 犢蒙牽絲, 出宰魯城, 於是, 李公之名, 藉藉一世間, 而李公已老矣, 不復遊都下者, 餘十年而終焉, 世之人每想其人思其術, 以其術之不傳, 爲可恨也, 唯吾家藏棄其祕方數十條, 雖不足以盡李公之蘊, 然亦可免青囊火焚之歎, 是不可以不傳也, 余乃不揆固陋, 蒐輯舊聞, 略附新方, 裒成一書, 名之曰瘍醫微, 蓋李公方中, 攻瘍一方, 尤卓然神異, 如莫邪干將, 無物不剗, 誠周禮之遺法, 瘍醫之金丹也, 噫! 後之人欲求李公精微之術, 當以攻瘍一方, 爲赤幟也夫 .

이공의 명성이 차차 조정의 관료들 사이에서 소문나, 순조 14년(갑술, 1814)에 부름을 받고 입궐하여, 큰 공을 세워, 벼슬을 제수받고 노성 헌감으로 가게 되었다. 이쯤 이공의 명성이 온 세상에 자자해졌으나 공이 이미 노쇠하여 도성을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십여 년 뒤에 돌아가셨다. 세상 사람들이 이공과 그의 의술을 그리워하며 그의 의술이 전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오직 우리 집안만이 이공의 비방 수십 가지를 간직하고 있어, 비록 이공의 업적을 모두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에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들었던 소문을 모으고 새로운 처방을 약간 덧붙여 책 하나를 엮었으니 《양익미(瘍醫微)》라 이름하였다. 이공의 처방 가운데 공양단(攻瘍丹)이 가장 탁월하게 효과가 좋아 막야(莫耶)나 간장(干將)이 자르지 못하는 것이 없었던 것과 같으니, 진실로 《주례》로부터 내려온 방법이자 양익(瘍醫)의 영약이라 할 수 있다, 아! 후세 사람들이 비록 이공의 정밀한 의술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양단(攻瘍丹)이 이공 의술의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上之二年丙申嘉平, 申耆永書于王孫谷之謂矣齋 헌종 2년(병신, 1836) 12월
신기영이 왕손곡 위익재에서 쓰다.

1. 《周禮》, 瘍醫掌其祝藥剋殺之齊, 所以養萬民之疾也, : 《周禮》: "疾醫掌養萬民之疾病." "瘍醫掌腫瘍, 潰瘍, 金瘍, 折瘍之祝藥剋殺之齊." ←

2. 痰液稽留, 漂疽洩膏, : 《莊子》: "並潰漏發, 不擇所出, 漂疽疥癰, 內熱洩膏是也." ※《漢語大詞典》←



《瘍醫微》目錄 《양익미》목차

- 〈卷之一〉〈제1권〉

癰疽 [總論 ○消膿 ○促膿 ○自潰 ○開刀 ○挿衄 ○內托 ○排膿 ○去惡 ○洗法 ○生肌 ○

合瘡 ○蟲骨 ○雜證 ○禁忌]

內癰

瘰癧

乳癰 [妳癰 ○妳癖 ○乳巖]

背疽

腦疽

疔疽

癰疽 [총론 ○소농 ○촉농 ○자궤 ○개도 ○삽임 ○내탁 ○배농 ○거악 ○세법 ○생
기 ○합창 ○총골 ○잡증 ○금기]

내옹

나력

유옹 [내력 ○내벽 ○유암]

배저

뇌저

정저

- 〈卷之二〉〈제2권〉

咽喉 [總論 ○口內諸證 ○喉痺 ○口舌瘡]

繭脣

眼瘡

耳風毒 [耳中諸證]

鼻痔 [鼻中諸證]

面腫 [腮瘡 ○發鬢]

頭瘡

甲疽 [代指]

臍癰 [婦人臍癰]

鶴膝風

臈瘡 [婦人臈瘡 ○互看濕瘡]

便毒

跟疽 [足上諸證]

遊丹 [上下眼丹 ○內丹]

結核

癭瘤

인후 [총론 ○구내 제증 ○후비 ○구설창]

견순

안창

이풍독 [이증 제증]

비치 [비증 제증]

면종 [시창 ○발빈]

두창

갑저 [대지]

제옹 [부인 제옹]

학슬풍

검(럼)창 [부인검창 ◦ 습창과 서로 참조]

변독

근저 [족상 제증]

단 [상하안단 ◦ 내단]

결핵

영류

• 〈卷之三〉〈제3권〉

痔漏 [總論 ◦ 脫肛]

臟毒

懸癰

陰囊毒

陰蝕瘡 [婦人陰蝕諸證]

濕瘡

疥瘡

癬瘡

牙疳瘡 [互看咽喉]

黴瘡

大麻風

金瘡 [刀鎗傷]

杖瘡

凍瘡

火瘡 [灸瘡]

漆瘡

小兒諸證 [互看濕瘡 ○ 疳瘡 ○ 赤遊丹]

치루 [충론 ○ 탈항]

장독

현옹

음낭독

음식창 [부인음식 제증]

습창

개창

선창

아감창 [인후와 서로 참조]

미창

대마풍

금창 [도창상]

장창

동창

화창 [구창]

칠창

소아 제증 [습창과 서로 참조 ◦감창 ◦적유단]

† 加筆 가필

- 栗子埋置法
- 밤을 땅에 묻어 보관하는 법
 - 地坑中布稻稿, 置栗稿上, 至翌夏而不生芽
 - 땅굴 속에 짚단을 펴 놓고 그 위에 밤을 놓아두면, 이듬해 여름까지 싹이 나지 않는다.
- 辟瘟丹
- 벽온단
 - 大黃二兩, 麻黃, 天麻, 乾薑, 松蘿茶, 菉豆粉, 甘草各一兩二錢, 朱砂, 石雄各八錢, 右爲末, 蜜丸彈子大, 每丸爲二錢重, 冷水調服一丸, 病重者用二丸, 小兒用半丸, 用藥後, 切忌熱物熱湯.
 - 대황 2냥, 마황, 천마, 건강, 소나무겨우살이 차, 녹두 가루, 감초 각 1냥 2돈, 주사, 석웅 각 8돈. 가루 내어 꿀로 탄알 크기로 환을 만들되 2돈 정도 되게 한다. 한 알씩 냉수에 녹여 먹는다. 병이 중하면 두 알씩 먹고, 소아에게는 반 알을 쓴다. 약을 먹은 후에는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국은 절대 가까이하지 않는다.
- 治痢神效妙論湯

• 이질의 신비한 이론과 처방

- 川黃連, 條黃芩, 白芍藥, 山查肉各一錢五分, 枳殼炒, 唐厚朴薑汁炒, 檳榔, 青皮各八分, 當歸, 甘草, 地榆各五分, 紅花酒洗三分, 桃仁去皮尖, 唐木香各二分, 水二甫兒, 煎至一甫兒, 去渣服. 渣再煎至半甫兒, 服乃效.
- 천황연, 조황금, 백작약, 산사육 각 1돈 5푼, 지각(볶는다), 당후박(생강 물에 볶는다), 빈랑, 청피 각 8푼, 당귀, 감초, 지유 각 5푼, 홍화(술에 씻는다) 3푼, 도인(겉질과 끝부분을 제거한다), 당목향 각 2푼, 물 2보시기를 끓여 1보시기 정도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먹는다. 찌꺼기를 재차 끓여 보시기 반 잔 정도 되게 하여 먹어도 효과가 있다.
- 此方, 或紅或白, 或紅白相兼, 裏急後重, 身熱腹痛者, 俱可用.
- 이 처방은, 변의 색깔이 분홍색을 보이거나 흰색을 보이거나, 혹은 분홍색과 흰색이 섞여 보일 때, 배가 아프고 뒤가 묵직하고 급하지만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때, 몸에 열이 있고 배가 아플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單白無紅者, 去地榆, 桃仁, 加陳皮 [去白四分], 木香三分. 滯澁者加大黃酒炒三錢, 服一二劑仍除之.
- 단지 흰색만 있고 분홍색은 보이지 않을 때는 지유, 도인을 빼고, 진피 [흰부분을 제거한다. 4푼], 목향 3푼을 넣는다. 체기가 있고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 대황(술에 볶는다) 3돈을 넣는다. 1, 2제를 복용하면 낫는다.
- 此方用之于三五日神效, 用之于旬日內亦效, 唯十日半月外, 則當加減, 其法詳具于後.
- 이 처방은 3, 5일 정도 쓰면 신기한 효과가 있고, 사용한 지 10일 정도 되어야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 다만 10일이나 15일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으

면 당연히 더하거나 빼는데,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적었다.

- 川黃連, 條黃芩, 白芍藥竝酒洗炒各六分, 川黃連, 條黃芩, 白芍藥竝生用各四分, 山查肉一錢, 青皮, 陳皮, 檳榔各四分, 甘艸炙三分, 甘艸生用三分, 當歸五分, 地榆四分, 桃仁粉六分, 紅花三分, 唐木香二分, 唐厚朴四分.
- 천황연, 조황금, 백작약 [술에 씻어 같이 볶는다] 각 6푼, 천황연, 조황금, 백작약 [모두 생것으로 쓴다] 각 4푼, 산사육 1돈, 청피, 진피, 빈랑 각 4푼, 감초(굽는다) 3푼, 감초(생것) 3푼, 당귀 5푼, 지유 4푼, 도인(가루 낸다) 6푼, 홍화 3푼, 당목향 2푼, 당후박 4푼.
- 如延至月餘, 覺脾胃弱而虛滑者, 用川黃連酒炒, 條黃芩酒炒, 白芍藥各六分, 陳皮, 唐厚朴, 唐木香各三分, 地榆醋炒四分, 紅花三分, 當歸, 人蔘, 白朮, 甘艸炙各五分.
- 병이 한 달 이상 계속되어 비위가 약해져 변이 설사같이 나오면, 천황연 [술에 볶는다], 조황금 [술에 볶는다], 백작약 각 6푼, 진피, 당후박, 당목향 각 3푼, 지유 [식초에 볶는다] 4푼, 홍화 3푼, 당귀, 인삼, 백출, 감초 [굽는다] 각 5푼.
- 右三方有孕婦人服之, 去桃仁, 紅花, 檳榔.
- 위의 세 처방을 임신부가 복용할 때는 도인, 홍화, 빈랑을 뺀다.
- 治久痢方
- 오래된 이질 치료 처방
 - 當歸五錢, 陳紅薤茄去核三介. 水二甫兒煎至半, 調蜜溫服.
 - 당귀 5돈, 오래된 붉은색의 신가(薤茄) [씨를 제거한다] 3개. 물 2보시기를 다려 반이 되고 하여, 꿀을 잘 섞어 따듯하게 복용한다.

- 椒梅湯
- 초매탕
 - 治虻腹痛.
 - 회충으로 인한 복통을 치료한다.
 - 花椒去合口一錢二分, 枯白礬, 檳榔各一錢, 烏梅肉, 使君子肉各三箇, 水二甫兒, 煎至一甫兒服.
 - 화초 [입이 달힌 것은 뺀다] 1돈 2푼, 고백반, 빈랑 각 1돈, 오매육, 사군자육 각 3개, 물 2보시기를 다려 1보시기가 되면 복용한다.
- 五仙酒
- 오선주
 - 治風痰不仁.
 - 풍담으로 생긴 피부감각 이상을 치료한다.
 - 苦蓼, 五加皮各二斤, 牛膝一斤, 威靈仙, 松節各五兩. 白米一斗作飯末, 麴二刀, 及五種細剉, 混同作酒, 待熟筲清, 每日空心服一茶鍾.
 - 고삼, 오가피 각 2근, 우슬 1근, 위령선, 송절 각 5냥. 백미 1말 [밥을 지어 가루 낸다], 누룩 2되와 다섯 가지 약제를 잘게 썰어 잘 섞어 술을 빚는다. 숙성이 되면 맑은 술을 걸러 빈속에 매일 찻잔 하나 정도 복용한다.
- 猥鼠糞湯
- 가서분탕
 - 治犯房傷寒.
 - 방사를 적절히 하지 못해 걸린 상한을 치료한다.

- 猢猻糞, 豆豉, 韭白, 蔥白, 忍冬, 黃柏各一握. 水二碗煎至七合碗, 熱服取汗, 過時未汗服之必效, 一次若未汗連服, 限取汗可也.
- 솥쥐똥, 두시, 구백(부추의 흰 줄기), 총백, 인동, 황백 각 1줌. 물 2대접을 다려 작은 대접 7푼 정도 되면 따뜻하게 복용하여 땀을 낸다. 땀이 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땀이 나지 않을 때 복용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한번 복용하였는데도 땀이 나지 않으면 연이어 복용한다. 땀이 날 때까지 복용해도 된다.
- 九節艸膏
- 구절초고
 - 治經道不調.
 - 월경이 불규칙한 것을 치료한다.
 - 九節艸 [九月九日采乾] 淨洗五十級, 入釜內長流水二盆, 煎至二沙鉢, 移盛瓷缸, 每日空心, 白湯調半鍾子, 溫服神效.
 - 구절초 [9월 9일 채집하여 말린다] (깨끗이 씻는다) 50두름과 장류수 2동이를 솥에 넣고 다려 2사발이 되면 자기 항아리에 담아 두고서, 빈속일 때 끓인 물에 반 종지를 풀어 매일 따뜻하게 복용한다. 신기한 효과가 있다.
- 酒童便
- 주동변
 - 治落馬落木瘀血.
 - 말에서 떨어지거나 나무에서 떨어져 생긴 어혈을 치료한다.
 - 童便一湯器, 調藥酒一杯, 連續飲之.

- 약그릇 정도의 동변에 약주 한잔을 잘 섞어 연속해서 마신다.

- 養胃湯

- 양위탕

- 白朮炒黃二錢, 陳皮, 良薑煨, 乾薑炒各一錢半, 白茯苓, 人蔘, 香附子, 藿香各一錢, 砂仁, 唐木香, 甘艸炙各七分, 食遠服. 食滯用.
- 백출(누렇게 굽는다) 2돈, 진피, 양강(불에 묻어 익힌다), 건강(굽는다) 각 1돈 반, 백복령, 인삼, 향부자, 곽향 각 1돈, 사인, 당목향, 감초(굽는다) 각 7푼, 식사한 다음 한참 지나 복용한다. 식체에 사용한다.

- 棉子丸

- 면자환

- 烏鬚黑髮, 煖腎種子. 陽虛人, 宜服此藥.
- 수염과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신장을 따스하게 하여 자식이 생기게 한다. 양기가 허한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한다.
- 用棉花子十數觔¹, 用滾水泡過, 放蒲包內, 悶一炷香², 取出曬裂殼口, 取仁并去外皮, 用淨仁三觔壓去油, 用火酒, 三觔泡一夜, 取起, 蒸三炷香, 曬乾. 故紙 [一觔, 鹽水泡一夜, 炒乾], 杜仲 [一觔, 去外粗皮, 黃酒泡一夜曬乾, 薑汁拌炒去絲], 杞子 [一觔, 黃酒蒸曬乾], 兔絲子 [酒煮, 吐絲爲度], 共爲細末, 蜜丸桐子大, 每服二三錢.
- 면화의 씨앗 10여 근, 흐르는 물의 거품에 담갔다가 창포 위에 놓고 싹 다 음 향이 하나 타는 시간 정도 둔다. 꺼내 햇볕에 말려 껍질의 입구가 갈라지게 한다. 속의 인을 취하고 외피는 버린다. 깨끗한 인 3근을 압착하여 기

름을 제거한다. 인 3근을 독주에 담가 하룻밤이 지나면 꺼내 향 3개가 탈 시간 정도 찢 다음 말린다. 오랜 종이 [1장을 하룻밤 소금물에 담갔다가 볶아 말린다], 두충 [1근, 바깥의 거친 껍질을 제거하여, 황주에 찢 다음 햇볕에 말린다], 토사자 [술에 삶되 가는 실이 나오면 멈춘다], 이 모두를 함께 가루 내어 오동나무 씨앗만 하게 환을 지어 매번 2, 3돈씩 복용한다.

• 治三日大瘡神方

• 3일째 학질 증상이 심할 때 쓰는 신비한 처방

- 用活大烏龜一個, 連殼左右肩上各攢一孔, 近尾處亦攢一孔, 以明雄黃九錢研細, 每孔摻入三錢, 外以磁黃泥包固, 勿令泄氣, 炭火上煨存性, 研細, 每服難一錢, 空心陳酒送下, 二三服即止.
- 살아있는 큰 검은 거북 1마리, 등판을 그대로 둔 채로 어깨 좌우에 구멍을 하나씩 뚫는다. 꼬리 근처에도 구멍을 하나 뚫는다. 명옹황 9돈을 곱게 갈아 구멍마다 3돈씩 넣는다. 자황석 반죽으로 밖에서 단단히 막아 기운이 세지 않게 한 다음 숯불 위에 올려 성질이 보존되게 굽는다. 곱게 갈아 한 돈씩 빈속에 오래된 술로 넘긴다. 2, 3회 복용하면 바로 그친다.
- 又用陳黃圓一個, 去頂皮, 大者每隻加透明雄黃三錢, 中者二錢, 小者一錢, 雄黃須研細, 摻入香圓內, 炭火中煨存性, 再研極細, 每用七分, 用軟腐皮, 分作六七包乾, 咽下, 此日不可吃湯水, 任其嘔去頑痰即愈. 右方出《續臨證指南》.
- 다른 처방으로, 오래된 감귤 1개에서 꼭지 부분의 껍질을 제거한다. 큰 것에는 한 마리에 투명한 옹황 3돈을 넣고, 중치에게는 2돈, 작은 것에는 1돈

을 넣는다. 옹황은 반드시 곱게 갈아서 감굴 속에 잘 발라 넣고 숯불 속에 두고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운 다음 다시 아주 곱게 간다. 매번 7푼을 쓴다. 물경 물경한 껍질을 이용하여 6, 7꾸러미로 나누어 말린 다음 삼킨다. 당일에는 국이나 물을 먹으면 안 된다. 구토를 잘 고치며 완고하던 담이 배출되면 즉시 낫는다. 이 처방은 《속임증지남(續臨證指南)》에 나온다.

- 內消癰癰痰毒方
- 나력이나 담핵의 독을 안에서 삭히는 처방
 - 未穿破者爲痰核, 已穿破者爲癰癰, 三五個連者爲痰串.
 - 아직 터지지 않았으면 담핵이고, 이미 터졌으면 나력이며, 3, 5개가 연이어 나오면 담관(痰串)이다.
 - 用羊角數對, 以威靈仙四兩, 共入瓦罐內, 加清水煮數沸, 候角軟, 取出切薄片, 用新瓦燒紅, 將角鋪上焙炒過研細, 每灰一兩, 加廣木香一錢, 白芥子三錢, 共爲末, 煉蜜爲丸, 用檳榔煎湯下, 或夏枯艸湯下亦可, 服至七日後, 大便下如黑羊尿, 小便出黑水, 自消. 婦人如爛開兩脇, 服之亦效, 忌生冷煎炒房事.
 - 영양각 뽕 몇 개를 위령선 4냥과 함께 배불뚝이 단지에 담아 맑은 물을 붓고 몇 차례 끓을 정도까지만 달인다. 붉게 달구어진 기와 위에 올려놓아 뽕이 물렁해지면 꺼내 얇은 조각으로 절단한다. 새 기와를 붉게 달구고 위에 영양각을 올려놓고 볶은 다음 고운 가구를 낸다. 가루 1냥에 광목향 1돈, 백개자 3돈을 함께 가루 내어 졸인 꿀로 환을 짓는다. 빈랑을 끓인 물에 넣는다. 또는 하고초탕(夏枯艸湯)에 넘겨도 좋다. 복용한 지 7일이 지나면 대변에 검은 양의 똥 같은 게 나오고 소변으로 검은 물이 나오면서 저절로 사

그라든다. 부인의 양 옆구리가 짓물러 속이 드러난 데 복용해도 또한 효과가 있다. 찬 것이나 생것, 끓이거나 볶은 것, 방사는 피해야 한다.

- 內消癰瘰應驗方

- 나력을 안에서 삭히는 경험방

- 土貝母, 白芷 [各五錢], 共爲末, 糖霜調, 陳酒下三錢, 重者三服愈.
- 토패모, 백지 [각 5돈], 함께 가루 내어 설탕과 잘 섞어 오래된 술로 3돈 삼킨다. 중한 사람도 3번 복용하면 낫는다.

- 治痰核方

- 담핵을 치료하는 처방

- 半夏末, 川貝末各一分, 用鷄蛋大頭, 穿一孔不破內膜, 入藥在殼內, 放外虛空處. 如虛人加入參末三分和入, 以紙封固, 飯鍋內蒸熟, 吃之每日一個, 久之自愈.
- 반하 가루와 천패모 가루 각 1푼. 큰 계란에 구멍을 뚫되 안쪽의 막은 찢어 지지 않게 하여 약을 껍질 안에 넣는다. 집 밖의 공터에 놓아둔다. 허약한 사람은 인삼 3푼을 잘 썬어 넣는다. 종이로 입구를 잘 막은 다음 밥솥에 수직으로 세워 쪄 익힌다. 매일 한 알씩 먹는다. 오래지 않아 저절로 낫는다.
- 又每鷄子一個, 入貝母末三匙, 照上法蒸熟, 夏枯草湯, 金銀花湯下.
- 다른 방법으로, 계란 1개에 패모 가루 3숟가락을 넣고 위의 방법대로 쪄서 익힌다. 하고초탕이나 금은화탕(金銀花湯)으로 삼킨다.

- 取癰核法, 名提癰丹

- 나력의 핵을 제거하는 법, 제력단이라 부른다.

- 水銀, 礬砂, 火硝, 明礬, 皀礬, 食鹽 [各一兩], 硃砂 [二錢], 用粗瓦盆放前藥, 上合粗碗一隻, 鹽泥封固, 炭火煉三炷香, 先文後武, 冷定取出, 昇在粗碗上藥, 白米飯搗丸, 菉豆大, 硃砂爲衣, 每用一丸, 放瘡上, 棉紙封二三層, 一日夜急揭起, 則核隨紙帶出, 丸可再用.
- 수은, 봉사, 화초, 명반, 조반, 식염 [각 1냥], 주사 [2돈]. 질그릇 동이에 이 약을 넣고 사발로 덮는다. 소금을 이겨 잘 밀봉하여 숯불 위에 향 3개가 타는 시간 정도 달군다. 처음에는 약한 불로, 나중에는 센 불로 달군 다음 식으면 꺼낸다. 사발 위에 약을 올려놓고 흰밥과 같이 으깨어 녹두 크기로 환을 짓고 주사로 옷을 입힌다. 매번 1알을 상처 위에 올려놓고 면화 종이로 두세 층 밀봉한다. 하룻밤 지나서 갑자기 쑥 들어올리면 나력의 핵이 종이와 같이 떨어진다. 환은 다시 사용해도 된다.

1. 觔 : 무게의 단위 ※역자주 ←

2. 一炷香 : 선향 하나를 피워서 꺼질 때까지의 약간 긴 시간 ←

瘍醫微 卷之一 양익미 제1권

謂矣齋 編 위익재 편



癰疽

응저

總論 총론

人以五藏六府爲根本, 五藏不和, 則九竅不通, 六府不和, 則留結爲癰, 故癰者六府不和之所生, 疽者五藏不和之所致. 六府主表, 其氣淺, 故癰皮薄而腫高, 五藏主裏, 其氣深, 故疽皮厚而腫堅, 皆由六氣七情而成也.

사람은 오장육부가 근본이다. 오장이 조화롭지 못하면 몸의 구멍이 잘 통하지 않고, 육부가 조화롭지 못하면 흐르지 않고 막혀 응(癰)이 된다. 따라서 응은 육부가 조화롭지 못해 생기고, 저(疽)는 오장이 조화롭지 못해 생긴다. 육부는 표를 주관하기에 그 기는 얇은 데에 있어 응의 껍질은 얇고 종기는 높게 솟는다. 오장은 안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기는 깊은 곳에 있어 저의 껍질은 두껍고 종기는 단단하다. 모두 육기와 칠정 때문에 생긴다.

然瘡瘍皆火之屬, 須分內外, 而治其本. 《經》曰, 膏粱之變, 足生大疔. 其源在裏, 發於裏也. 受持諸虛, 言內結而發, 諸處未到, 從何道出? 皆自從虛而出也. 如太陽經虛, 從背出, 少陽經虛, 從鬢出, 陽明經虛, 從髭出, 督脈經虛, 從腦出. 《經》曰, 地之濕氣感, 則害人皮膚筋脈, 其源在表, 盛則內行. 若脈沈實, 當先疎內, 預絕其源. 脈浮大者, 當先托其裏, 恐邪氣傷內. 又有內外之中, 邪氣至盛, 遏入經絡, 乃生癰腫. 《經》曰, 榮氣不從, 逆於肉理, 乃生癰腫.

그러므로 피부의 종기는 대개 화의 종류 중 하나이고, 안과 밖을 나누어 근본을 치료하여야 한다. 《경》에, "고량진미로 변고가 생기면 다리에 큰 부스럼이 생긴다"고 하고 하였는데, 그 근원이 깊숙한 곳에 있어 안쪽 부위에서 시작한다. "텅 비어 무엇이든 담는다"고 하였는데, 내부 깊숙한 곳에서 맺혀 시작하지만 모든 곳에 생겨나지는 않는다. 어느 곳에 나타날까? 대개 허약한 부위에 생긴다. 태양경이 허하면 등에 생겨나고, 소양경이 허하면 귀 밑에 생겨나고, 양명경이 허하면 코 밑 수염에 생겨나고, 독맥경이 허하면 머리에 생겨난다. 경에, 땅의 습기에 감촉되면 사람의 피부와 근맥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원인은 바깥 부위에 있으나 왕성해지면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만약 맥이 침하고 실하면 당연히 먼저 안을 소통시켜 미리 그 근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맥이 부하고 대하면 당연히 먼저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데, 사기가 안쪽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과 밖의 중간에 사기가 왕성한 경우에는 경락으로 들어가 막아버려 응종(癰腫)을 일으킬 수 있다. 경에, 영기가 제 길을 흐르지 못하면 근육과 피부로 거슬러 들어가 악질의 종기가 생긴다고 하였다.

治法大要, 托裏疎通榮衛三法, 托裏治其外之用, 疎通治其內之行, 榮衛治其中內之外者. 脈沈實, 發熱煩躁, 外無鬱赤, 痛深在內, 邪氣沈裏, 故先疎通藏府, 故先托裏防其內, 然內外之中者, 外無鬱惡之氣, 內亦藏府宣通, 知其在經, 當知榮衛. 周禮有腫瘍潰瘍, 今之癰疽是也. 內外俱虛, 宜大補氣血爲主, 後行五香散者, 當防虛實之失. 其瘡之發, 先發紅腫, 爲氣血鬱積, 蒸肉化爲膿, 其痛多在始作之時. 膿之後腫退肌寬, 痛硬漸減. 若發痛者虛也, 宜補之, 有穢氣觸者, 宜和解之, 風寒逼者, 宜溫散

之. 以手掩腫上, 熱則有膿, 不熱則無膿. 況癰疽有表裏虛實, 用藥有補瀉溫涼, 稟受之厚薄, 形志之若樂, 隨年歲時令而加減, 則病易療. 若內悞用寒涼之藥, 而外敷貼冷藥, 然欲望其消散, 是借寇兵也, 其害不淺.

치료의 대원칙은 탁리(托裏), 소통(疎通), 영위(榮衛), 세 가지이다. 탁리법은 바깥쪽에 위치한 종기를 치료할 때 쓰고, 소통법은 안쪽에서 생겨난 것을 치료할 때 쓰고, 영위법은 안과 밖의 중간에 있는 것을 치료할 때 쓴다. 맥이 침하고 실하고 열이 있고,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밖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곳은 없고, 통증이 깊은 안쪽에 느껴지면, 사기가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니, 먼저 장부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소통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밖으로 밀어내어 안쪽을 잘 방어해야 한다. 안과 밖의 중간에 있으면, 겉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는 기운은 보이지 않고 안으로도 아직 장부의 기운은 잘 소통된다. 사기가 어느 경락에 있는지 파악하여 영위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주례》에 종양과 궤양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오늘날의 옹저에 해당한다. 안과 밖이 모두 허하면 기혈을 크게 보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나중에 오향산(五香散)을 쓴다. 이때 당연히 허실에 대해 착오가 없어야 한다. 종기가 처음 형성되기 시작할 때는 먼저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니, 기혈이 한군데로 몰려 근육을 푹 푹 찢다가 변하여 고름이 잡힌다. 통증은 보통 처음 형성될 때 느껴지며 고름이 잡힌 다음에는 부은 부위가 가라앉고 살은 부드러워지며, 통증과 딱딱한 것도 점점 감소한다. 만약 통증이 있는데 몸이 허약한 경우면 보를 하여야 하고, 더러운 기운에 접촉한 경우는 화해를 해야 하며, 풍한에 상하였으면 따뜻한 약으로 흠뜨려야 한다. 손을 부은 곳을 덮어 열이 느껴지면 고름이 잡힌 것이고 느껴지지 않으면 고름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옹저에도 표리와 허실이 있기에

약을 씹에 보사와 온량의 조절이 없을 수 없다. 체질의 강함과 약함, 살아온 환경, 나이와 계절에 따라 가감하여야 병이 쉬이 치료된다. 만약 안으로는 차고 시원한 약 [寒涼之藥] 을 잘못 복용하고 밖으로도 시원하게 하는 약 [冷藥] 을 붙이고서 종양이 사그라들기를 바란다면, 이는 도적에게 무기와 식량을 대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해가 적지 않다.

大凡陽滯於陰，脈浮洪弦數，陰滯於陽，脈沈細弱澀。陽滯以寒治之，陰滯以熱治之。細詳其意，陽滯陰滯，作熱治寒治，求之寒熱。固可作陰陽論，於陰於陽，分明是氣血也。氣爲陽行脈外，血爲陰行脈內，相並分派，週流循環一身無停止，謂之一呼脈行三寸，一吸脈行三寸，呼吸定息，共得六寸，一身通行八十一丈。得熱則行速而太過，得寒則行遲而不及。五味之厚，七情之偏過，氣爲滯，津液稠厚，積而久也，爲飲爲痰，滲入脈內，血爲所亂，因而凝濁，運行沍澀，或爲沸騰，此陰滯於陽也，正血滯於氣也。

일반적으로 양이 음에서 막혀 지체되면 맥이 부(浮)하고 홍(洪)하며 현(弦)하고 삭(數)하게 되고, 음이 양에서 막혀 지체되면 맥이 침(沈)하고 세(細)하고 약(弱)하면 삽(澀)하게 된다. 양체(陽滯)는 찬 약으로 치료하고, 음체(陰滯)는 열한 약으로 치료한다. 음체와 한체를 자세히 고찰해 보니, 양체와 음체를 한 치와 열치의 문제로만 여기고 한열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사실 음양의 관점에서 보아도 되며, 여기서의 음과 양은 기실 기와 혈이라는 점도 명확하다. 기는 양으로 맥 밖을 흐르고, 혈은 음으로 맥 안을 흐른다. 서로 나란히 가기도 하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가기도 하면서 몸 전체를 끊임없이 유주한다. 이를 일컬어, 한번 숨을 내쉴 때 맥 안을 3촌을 흐르고 한번 들이쉴 때 3촌 흘러 한 번의 호흡에 모두 6촌을 흘러 온몸을 한번 돌 때 81장(丈)을 흐른다고

한다. 열을 얻으면 흐름이 지나치게 빨라지고, 한을 얻으면 흐름이 느려져 제 시간에 돌지 못하게 된다. 음식이 기름지거나 칠정이 편벽되어 기가 지체하면 진액이 진하고 탁하게 되어 한곳에 쌓이게 되고, 오래되면 음과 담이 되고, 경맥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 혈이 혼란을 겪게 된다. 이어 혈이 굳고 탁해지면 운행이 느리고 뻑뻑하게 되거나 혹은 갑자기 끊어 넘치게 되는데, 이는 음이 양에게 포위당한 것이다. 이게 다른 아닌 혈이 기로 인해 엉겨 붙게 된 것이다.

凡血病, 今人或藥以助邪, 病上生病, 血之病日增, 溢出脈外, 隧道溢塞, 升降有防, 運化失令, 此陽滯於陰也, 正氣滯於血也. 病有寒熱, 則稟受之素偏, 虛邪之離合, 豈可以陽爲熱, 陰爲寒乎? 浮弦洪數, 氣病之脈也, 烏可遽作熱論? 沈細弱澀, 血病之脈也, 焉可遽作寒論? 此萬病之根本, 豈止癰疽而已. 大凡腫瘍時作毒氣上攻治之, 潰瘍後當作陰虛補之. 若老年潰後發嘔不食者, 多用人參黃芪白朮膏大補取效, 佐藥隨時症加減. 劉守眞謂, 諸症瘡瘍而嘔者, 此濕氣侵於胃也, 藥中宜倍白朮. 王海藏謂, 吐者有物無聲, 乃血病也. 有食入則吐, 有食已則吐. 嘔者有物有聲, 氣血俱病也. 張仲景云, 嘔多雖有陽明証, 勿下之. 噦者無物有聲, 乃氣病也. 謂之逆者吃逆也. 火自下而上衝胃口作聲者, 病後胃虛所致陰火, 虛也, 病至此, 當作危矣. 但理無定在, 病有萬變, 爲醫須隨時取中, 見可而進. 《經》曰, 知其要者, 一言而終, 不知其要, 流散無窮. 何謂情因是也, 何謂要治法是也. 治法惟東垣丹溪能輾其要, 悉詳載于《外科新錄》, 五善七惡具焉. 蓋煩燥, 時嗽, 腹痛, 渴甚, 或泄痢無度, 或小便淋漓, 一惡也. 膿血大洩, 腫焮尤甚, 膿色敗臭, 痛不可近, 二惡也. 喘粗氣短, 恍惚嗜臥, 三惡也. 不能下食, 服藥而嘔, 食不知味, 四惡也. 目視不正, 黑睛緊小, 白睛青赤, 瞳神上視, 五惡也. 肩項不便, 四肢沈重, 六惡也. 聲嘶色脫, 脣鼻赤青, 頭目四肢浮腫, 七惡也. 動息自寧, 飲食知味, 一善也. 便利調勻, 二善也. 膿潰腫消, 色鮮不臭, 三善也. 神彩

精明, 語聲清朗, 四善也. 體氣和平, 五善也. 然有症合七惡而皮緊急如善者, 有症合五善而皮后虛如惡者, 此不可不察. 又曰, 飲食如常, 實熱而大小便秘, 內外¹相應, 肌肉好惡分明, 善也. 發渴而喘, 睛明睛角而鼻, 大小便滑, 目中不了, 黑肉而陷, 面青唇黯已潰, 肉青疼, 吐嘔逆, 惡也 [外科全書].

혈병을 치료할 때, 요즘 사람들은 간혹 약으로 사기를 도와 병에다 병을 더한다. 그러면 혈의 병이 날로 심해져 맥의 밖으로 넘쳐나고 경맥은 더욱 막히고 오르고 내기는 데 방해를 받아, 운화(運化)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 이게 양이 음에서 지체되는 것, 즉 바로 기가 혈에서 지체된 것이다. 병이 들면 한이나 열의 증상을 보이지만, 선천적인 기질의 편벽됨도 있고 허약과 사기의 문제도 증상의 발현에 관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양은 열이고 음은 한이라 할 수 없다. 부현홍삭(浮弦洪數)은 기병의 맥이긴 하나 단순히 열(熱) 때문으로 여길 수는 없다. 침세약삽(沈細弱澀)은 혈병의 맥이긴 하나 단순히 한(寒) 때문으로 여길 수는 없다. 이 원리는 만병을 설명하는 기초이며, 단지 응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종양이 막 생겨나고 있을 때는 독기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치료하고, 짓물러 터진 후에는 음허 상태로 보고 보하여야 한다. 만약 노인이 종기가 짓무른 후에 구토하면서 먹지 못하면 인삼황기백출고(人參黃芪白朮膏)를 많이 써서 강력하게 보해주어야 효과가 난다. 보조 약재를 상태를 봐서 가감한다. 유수진(劉守眞)은, 모든 종기병에 구토를 하는 것은 습기가 위장을 침습하였기 때문이니, 약재 중 백출은 2배로 써야 한다고 하였다. 왕해장(王海藏)은, 토(吐)는 음식을 토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 것으로, 혈병이다. 음식을 넘길 때 바로 토하는 경우가 있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토하는 경우가 있다. 구(嘔)는 음식이 넘어오면서 소리도 나는 것으로, 기혈에 모두 병고

생긴 것이다. 장중경(張仲景)은, 구가 심하더라도 양명증이 있으면 설사를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열(噦)은 음식은 넘어오지 않고 소리만 있는 것으로, 기병이다. 역(逆)이라 부르는 것은 열역(吃逆), 즉 딸국질을 말한다. 화가 아래에서 위어 올라와 위장의 입구를 충격하여 소리나 가는 것이다. 이는 병이 생긴 후 위장이 허약해져서 음화가 생겨난 것으로, 허의 상태이다. 병이 이 지경에 이르면 당연히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다만 이론이라는 것이 만고에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병도 변화무쌍하니, 의사라면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을 참작하여 증용의 길을 따르고 명확히 판단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경(經)에, 핵심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고, 핵심을 놓친 사람은 말만 많고 두서가 없다고 하였다. 무엇이 병의 원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무엇이 치료법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치법에 대하여는 동원(東垣)과 단계(丹溪)가 요점을 잘 정리하였다. 이 모든 것이 《外科新錄》의 오선(五善)과 칠악(七惡)에 상세히 실려 있다. 대개 번조, 때때로 나오는 기침, 복통, 심한 갈증, 설사기 그치지 않는 것,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이 1악이고, 피고름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 종기가 매우 붉게 달아오르는 것, 고름에 섞은 색이 보이고 냄새가 나는 상태, 통증이 심하여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2악이고, 숨이 매우 가쁘고 헐떡거리며, 정신이 혼란하여 눕기를 좋아하는 상태가 3악이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 토하고, 음식의 맛을 모르면 4악이고, 눈이 앞을 바로 보지 못하고, 검은 동자가 수축되어 작아지고 흰 눈동자에 푸르면서 붉은 기운이 돌며, 눈을 치켜뜨면 4악이고, 어깨와 목덜미가 불편하고 사지가 무거워 치지면 6악이고, 목소리가 쉬고 피부가 탈색되고 입술과 코가 푸르면서도 붉게 보이며 머리, 눈, 사지가 붓는 게 7악이다. 동작과 숨소리가 안정적이고 음식의

맛을 알면 1선이고, 대소변이 조화롭고 잘 나오면 2선이고, 고름이 터지고 종기가 가라앉을 때 색이 선명하고 악취가 나지 않으면 3선이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아 보이고 정신이 또렷하고 말과 목소리가 깨끗하면 4선이고, 몸의 전반적 모습이 화평하고 준수하면 5선이다. 하지만 증상은 7약을 드러내지만 피부가 탄탄하여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증상은 5선을 드러내지만 피부가 흐물흐물하여 나쁜 증상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 말하기를, 음식은 여전히 잘 먹고 실증으로 열이 나면서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내부와 외부의 병이 수미일관하게 나타나고, 근육의 경계가 분명하면 예후가 좋다. 갈증을 느끼고 숨이 차며 눈동자의 각이 코를 향하며, 대소변이 쉬이 나오고, 시선에 초점이 없고, 종기가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 살이 검게 변하면서 함몰되고, 안색이 청색을 띠고 입술이 검으면 짓무르며, 살이 청색을 띠고 우리하게 아프며, 구토와 구역이 나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외과전서] .

瘡處浮腫, 膿水靑黃而濁者 [形清而色濁], 惡肉未盡去也, 用去惡之劑. 瘡處已平, 膿水白而清者 [形濁而色清], 惡肉盡去也, 用生新之劑.

종기나 난 부위가 부어오르고 고름의 색이 청황색을 띠면서 탁하면 [형체는 청색인데 색은 탁하다] 나쁜 살이 아직 다 제거된 게 아니다. 나쁜 살을 제거하는 약을 쓴다. 종기가 난 부위가 이미 평평하게 변했고 고름이 희고 맑으면 [형체는 탁하나 색은 맑다] 나쁜 살이 모두 제거된 것이니 새살을 나게 하는 약을 쓴다.

- 柴陳飲
- 시진음
 - 柴胡五錢, 陳皮三錢, 甘艸五分, 生薑三片, 瘧疾寒少熱多, 用一貼.
 - 시호 5돈, 진피 3돈, 감초 5푼, 생강 3편, 학질에 한 증상은 적고 열 증상이 많을 때 1첩 쓴다.
- 咽喉腫痛神方
- 목구멍이 붓고 아플 때 쓰는 신묘한 처방
 - 蛤蜊殼細研枯, 白礬末各等分, 以竹管吹入神效. 蛤蜊殼覆置於廚下或宇下者良.
 - 바지락 껍질 곱게 갈아 말린 것, 백반 가루 각 반반을 대나무 관에 넣어 불어 넣어주면 신비한 효과가 있다. 바지락 껍질은 주방이나 집에 얹어두었던 것이 좋다.
- 治黃疸方
- 치황달방
 - 烹家鴨食肉, 以其烹汁沐頭洗面. 男用雌鴨. 又以小麥淘洗煮熟, 或食小麥, 或飲其湯水. 右二方最良於他方云.
 - 집오리를 삶아 고기를 먹고, 끓인 물로는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는다. 남자는 수컷을 쓴다. 또는 물에 일은 밀을 익혀 먹거나, 밀을 끓인 물을 먹는다. 이 두 처방이 다른 처방보다도 낫다고들 한다.
- 治刀斧斫傷
- 칼이나 도끼에 베여 다친 것을 치료한다

- 狗腎乾者搗付卽差, 狗腎卽其中有骨者.
- 말린 구신을 잘 찢어 바르면 낫는다. 구신이란 그 가운데 뼈가 있는 것을 말한다.

消膿 소농

凡癰疽之始, 必用消膿之劑, 使不至成膿爲可, 然服藥雖不可已, 外治亦不可闕.

대개 응저 초기에는 필히 고름을 삭히는 약을 써서 고름이 잡히지 않게 해야
좋다. 따라서 약 복용을 멈춰서는 안되고 외치도 또한 빠뜨릴 수 없다.

忍冬藤, 酒水煎服 [服忍冬酒亦可, 與此少異, 方見下] ◦服加味十奇散 [方見下]

◦服千金內消散 [方見下]

인동 덩굴을 술과 물로 끓여 복용한다 [인동주도 또한 좋지만, 이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가미십기산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천금내소산을 복용한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大黃, 南星細末各等分, 熔白糖和蜜, 入藥末, 調均作餅付之, 乾則以蜜潤之, 久則改
付新藥 [大黃, 南星中, 或單用一料] ◦商陸根爛搗, 和醋澱(침전물)付之 ◦百合根
爛搗, 和醋付之 [痰核亦用] ◦馬齒莧 [根與莖葉] 搗付 ◦瓜蔓瓢付之 ◦菖蒲根爛
搗, 入醋熬付 ◦馬藍葉搗付 [靛花亦付] ◦紅煙葉爲末, 入白糖, 作餅付之 ◦寶豆汁
塗之 ◦蕎麥, 以鹽水炊飯, 搗泥溫付, 冷則燂付 ◦醋澱塗之 ◦蛻螂推丸者, 爛搗付之
◦鶴屎, 和醋付之 ◦雞屎鹽水炒付 ◦芹叔艸 [俗名] 搗付, 而有毒傷肌, 以青布裹數
重付之 ◦蔥根並葉, 爛溫搗付 [行陽²亦用] ◦付消腫散 [方見下]

대황, 남성을 곱게 가루 내어 각각 같은 양을, 녹인 흰엿과 꿀에 넣고 잘 섞어 떡같이 만들어 붙인다. 마르면 꿀로 촉촉하게 하고, 오래되면 새 약으로 바꿔 붙인다 [대황과 남성 중 하나만 쓰기도 한다] ◦상록의 뿌리를 잘 찢어 식초의 가라앉은 앙금을 잘 섞어 붙인다 ◦백합의 뿌리를 잘 찢어 초와 섞어 붙인다 [담핵에도 사용한다] ◦마치현 [뿌리와 줄기, 잎] 을 찢어 붙인다 ◦과루(하늘타리)의 속을 붙인다 ◦창포의 뿌리를 완전히 찢어 식초를 넣고 고아 붙인다 ◦마람(馬藍)의 잎을 찢어 붙인다 [전화(靛花), 즉 청대의 꽃도 역시 붙인다] ◦붉은 연초 잎을 가루 낸 다음 흰엿을 넣고 떡을 만들어 붙인다 ◦보두즙을 바른다 ◦메밀로 소금물에 밥을 지은 다음에 찢고 으깨어 따듯할 때 붙인다. 식으면 덥혀 붙인다 ◦식초 앙금을 바른다 ◦쇠똥구리가 돌돌 만 똥을 잘게 찢어 붙인다 ◦황새의 똥을 식초와 잘 섞어 붙인다 ◦닭똥을 소금물에 볶아 붙인다 ◦근속초(芹叔艸) [속명] 를 찢어 붙인다. 다만 독이 있어 살을 상하게 하니 푸른색 삼베로 여러 겹 쌓아 붙인다 ◦파 뿌리와 잎을 잘 으깨어 따듯하게 붙인다 [행양(行陽)에도 역시 사용한다] ◦소종산을 붙인다 [처방은 아래에 있다]

◦灸法. 凡瘡瘍, 不拘何處, 其色鮮紅者爲陽, 淡紅者爲陰, 自有寒熱之分. 用手接患處, 熱如火烘者, 是頭聚. 或用濕綿紙, 貼患上, 先乾者爲頭聚, 即用筆點記, 切蒜片如錢厚, 放患處, 置艾壯於上, 以火燃之, 若蒜片枯焦再易之. 待將畢三五壯, 着貼肉上灸爲佳, 至少者以二十一壯爲期, 頭頂上五壯七壯爲期. 艾炷止³可如豆大. 但面心爲陽中之陽, 禁灸. 其陽症不可灸者何? 恐火氣內侵, 勢益昌大, 以火濟火, 故戒之. 惟陰症可灸, 鬱氣濕熱積毒, 借火以拔之, 然而⁴火濟水, 自有相生之妙. 臨灸畢, 用口吹火至滅. 火攻借氣得以入內, 其症易散. 設或灸不能即散者, 灸遲故也, 雖不能全散, 大能解毒, 易潰膿, 易斂瘡口. 惟臟毒, 坐馬癰, 以蚯蚓泥作餅, 代蒜片, 艾灸

之, 以熱爲度, 易之如前, 共十四壯爲期. 若附骨疽, 癰毒入骨髓, 擇天氣晴明和煖,⁵
 午時灸申時止. 徐問病者骨中熱否, 若果骨中熱方效. 若灸不拘壯數, 忽然爆起者,
 是病根脫矣, 卽止之. 凡灸須飲食半飽, 并飲好酒, 以通經絡, 以和氣血, 再令善笑談
 者, 以亂其痛, 亦妙方也. 體虛者禁灸 [外科全書].

구법: 대개 발생 부위에 관계없이 종기가 선홍색을 띠면 양에 속하고 연한 붉은색을 띠면 음에 속하기에 자연스레 한열의 구분을 할 수 있다. 손을 환부에 갖다 댈 때 열기가 마치 타오르는 장작불 같으면 이는 두취(頭聚), 즉 이 부위가 종기의 중심 꼭지이다. 또는 축축한 솜 종이를 환부에 붙여 가장 먼저 마르는 것이 두취(頭聚)이니 즉시 붓으로 그 위치를 표시한다. 마늘을 동전 두께 정도로 조각내어 환부에 놓고 그 위에 뜸을 올려 불을 붙인다. 마늘이 말라 타들어 가면 바꾼다. 15장을 마친 후에 살 위에 붙여 뜸을 뜨면 더욱 좋다. 매우 작은 것은 20장을 기준으로 삼고, 머리 정수리에 생긴 것은 5, 7장을 기준으로 한다. 뜸은 콩 크기 정도로 한다. 다만 얼굴의 가운데는 양 가운데에서도 가장 양이 충만한 곳이니 뜸을 뜨면 안 된다. 양증에 뜸을 뜨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기가 안으로 침범하여 그 세기가 더욱 왕성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화로 화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니 경계해야 한다. 오직 음증에 뜸을 쓸 수 있다. 울기, 습열, 응축된 독이 있으면 화의 힘을 빌려 뽑아내야 한다. 화로 수를 제어하는 것이니 오묘한 상생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뜸을 마치면 입으로 바람을 불어줘 불을 끈다. 화의 효과는 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빌려 증상이 쉬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만약 뜸을 떠도 증상이 바로 사라지지 않으면 뜸을 너무 늦게 떼서 그런 것이다. 비록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해독에 큰 효과가 있어 쉬이 고름이 잡히고 쉬이 헌 종양이 아문다. 장독(臟毒)과 자마옹(坐馬癰)의 경

우에는 지렁이를 으깨 만든 떡으로 마늘 조각을 대체하여 땀을 뜬다.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땀을 뜨고 교체 방식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하며, 모두 14장을 기준으로 삼는다. 부골저(附骨疽)에 종기의 독이 골수까지 들어갔으면, 날씨가 청명한 날을 택하여 오시(午時)에 땀을 뜨기 시작해 신시(申時)에 마친다. 중간중간 환자에게 땀속까지 열감이 느껴지는지 묻는다. 만약 땀속까지 열기가 느껴지거나, 예정된 땀을 다 뜨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확 불이 타오르면 이는 이미 병의 뿌리가 빠진 것이니 바로 땀을 중단한다. 대개 땀을 뜰 때는 음식으로 반 정도만 위를 채우고 좋은 술을 마셔 경락이 통하게 하고 기혈이 균형을 이루게 하며, 많이 웃고 담소를 나누게 하여 통증을 흘뜨리게 한다. 이 또한 오묘한 기술이다.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땀을 뜨지 않는다.

促膿 축농

服木香散 [方見下] ○南瓜瓢, 入鹽炒, 溫付 ○杏仁, 萆麻子, 入白飯中, 搗泥作餅, 溫付 ○厚酒 [酒未漉全滓] 溫付 ○牛屎 [在地受風露者], 和鹽炒溫付 ○促膿餅付之 [方見下]

목향산을 복용한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호박의 박속에 소금을 넣어 볶아 따듯할 때 붙인다 ○행인, 피마자를 흰밥 속에 넣고 잘 찢어 떡을 빻어 따듯할 때 붙인다 ○거르지 않은 술 [술의 찌꺼기를 거르지 않은 전체] 을 따듯하게 해서 붙인다 ○소동 [땅에서 바람과 이슬을 맞은 것] 을 소금과 같이 볶아 따듯할 때 붙인다 ○축농병(促膿餅)을 붙인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 加筆 가필

- 金陵煎
- 金能煎
 - 益髭髮, 變白爲黑, 益腎陰.
 - 위아래 수염을 보하여 희게 난 것을 되돌려 검게 한다. 신음을 보한다.
 - 金陵草一秤, 六月後揀青嫩者不用, 洗摘去黃葉, 爛搗, 新布絞取汁, 以紗絹濾過, 入通油器鉢盛之, 日中煎五日. 又取生薑一斤絞汁, 白蜜一斤合和, 日中煎以柳木篋攪, 勿停手, 待如稀餚藥, 乃成矣. 每日午後, 各服一匙, 以溫酒一盞化下. 如欲作丸, 日中再煎, 令可丸梧子大, 每服三十丸, 及時多合爲佳, 其效甚速.
 - 金能초 16근, 유월 이후 것 중 어린 것을 골라내어 쓰지 않는다. 잘 씻어 누른 잎은 제거하고 찢는 다음 새 보자기에 담아 쥐어짜 즙을 모은다. 즙을 비단에 담아 여과한 다음 사발에 넣고 해가 정오에 오면 다리되 5일을 그렇게 한다. 또 생강 1근을 즙을 짜 하얀 꿀 1근과 잘 섞어 해가 정오에 이르면 다린다. 버드나무 막대로 계속 저어 멈추지 않는다. 약간 묽은 엷처럼 되면 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매일 오후에 각 1숟가락을 복용한다. 따듯한 술 1잔에 풀어 넘긴다. 환으로 만들고자 하면 정오에 환이 될 만큼 다시 한번 다려 오동나무 씨 크기로 환을 빚는다. 매번 30알을 복용하고, 시간을 잘 지키면 더욱 좋고 효과도 빠르다.
 - 七月取旱蓮連根一斤, 用無灰酒洗汁, 青鹽四兩, 淹其汁三宿, 同汁入油鍋中炒存性, 研末, 日用擦牙連津嚥之.

- 칠월에 뿌리 달린 한련초 1근을 무회주(無灰酒)에 씻어 즙을 낸 다음, 청염 4냥을 그 즙 위에 덮어 3일 밤을 보낸다. 즙을 기름을 담았던 솥에 담아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볶은 다음 가루를 낸다. 매일 이것으로 이를 닦되 침이 고이면 같이 삼킨다.

- 《奉親養老書》旱蓮散

- 《봉친양노서》의 한련산

- 烏鬚固齒牙.
- 수염을 검게 하고 이를 튼튼하게 한다..
- 溫尉云, 納合相公, 用此方, 年七十, 須髮不白, 懇求始得, 後遇張經, 始傳分兩也.
- 온위(溫尉)가 말하길, 납합상공(納合相公)이 이 처방을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70이 되어도 수염이 희지 않아, 간곡히 부탁하여 그 방법을 얻었다. 나중에 우연이 장경을 만나면서 비로소 약의 분량을 전수받았다.
- 旱蓮草一兩半, 麻姑餅二兩, 升麻, 青鹽各三兩半, 訶子連核二十箇, 唐阜角三挺, 晚蠶砂二兩, 右末薄醋, 麪糊丸彈子大, 曬乾入泥瓶中, 火煨令煙出存性, 取出研末, 日用揩牙.⁶
- 한련초 1량 반, 마고병 2량, 승마, 청염 각 3량 반, 핵이 달린 가자 20개, 당조각 3정, 만잠사 2량, 이들 약재를 묶은 식초를 넣고 면포로 탄알 크기로 환을 짓는다. 뽕약벌에 말린 다음 진흙 병에 넣고 불로 굽되 연기는 나가게 하고 성질은 보존되게 한다. 꺼내어 가루로 만들어 매일 이를 닦는다.

- 女貞實方

- 여정실방

- 女貞實, 十月上巳日收, 陰乾, 以酒浸一日, 蒸透曬乾, 一斤四兩, 旱蓮草, 五月收陰乾, 十兩爲末, 桑椹子, 三月收陰乾, 十兩爲末, 右三料, 煉蜜丸梧子大, 每服七八十丸, 淡鹽湯下下. 若四月收桑椹搗汁和藥, 七月收旱蓮搗汁和藥, 卽不用蜜亦可.
- 여정실, 10월의 첫 번째 사일(巳日)에 거둔다. 술에 하루 담가둔 다음, 찌서 햇볕에 말린 것, 1근 반. 한련초, 오월에 거둬 응달에서 말린 10근을 가루 낸다. 상심자 3월에 거둬 응달에 말린 것, 10냥 가루 낸다. 이 3가지 약을 잘 고운 꿀로 오동나무 씨 크기로 환을 지어 매번 7, 80환을 담당한 소금물에 삼킨다. 또는 4월에 거둔 상심을 찢어 즙을 내어 약과 섞거나, 7월에 거둔 한련초를 찢어 약과 섞으면 꿀을 사용하지 않아도 환을 지을 수 있다.
- 右膳丁酉山所鈔
- 이것은 정유산을 오르며 쓰다.

自潰 자궤

服透膿散 [方見下] ◦棉核一枚吞之 [乳癰最良] ◦巴豆一粒, 調津搗泥, 付之 [凡自潰藥, 皆貼頭聚上] ◦醋澱塗之 ◦人尿塗之, 外貼壁鏡 ◦雄雀屎, 和醋付之 ◦
攻瘍丹 [方見下], 入狗膽, 調勻付之.

투농산을 복용한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면의 씨를 하나 삼킨다 [유옹에 가장 좋다] ◦파두 1알을 침과 섞어 잘 으깨어 붙인다 [무릇 스스로 끓아 터지게 하는 약이다. 대개 종기가 생길 때 종기의 우두머리 부분에 붙인다] ◦

식초 양금을 바른다 ○사람의 똥을 바르고, 위에 납거미를 붙인다. ○숫참새 똥을 식초와 섞어 붙인다 ○공양단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을 개의 쓸개에 넣고 잘 섞어 붙인다.

開刀 개도

古人辨膿之法, 卽腫之熱不熱, 痛不痛, 軟不軟, 而此猶糟粕也. 或有不熱不痛不軟不腫, 而只有隱牽脹滿底意 [病者雖不知有痛, 如以椎插膚], 且爲日稍久, 則深自成膿者也. 凡辨膿之法, 察其色, 聽其言, 問其症, 切其脈, 而知其膿之無疑, 然後始可開刀. ○就頭聚處, 向下破之, 作穴濶大爲妙.

옛사람이 고름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기의 발열 여부, 통증의 유무, 종기의 연약 여부인데, 다소 정밀하지 못한 듯하다. 간혹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연약하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다만 은근히 당기면서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가 [환자는 통증이 있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쇠몽치 같은 게 피부를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점차 날이 가면 깊은 곳에서 저절로 고름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 대개 고름의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은 종기의 색을 관찰하고, 목소리를 잘 들어 보고,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묻고 맥을 짚어, 고름의 형성에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절개해야 한다. ○종기의 가장 튀어나온 머리 부위에서 바로 아래로 뚫고 들어가며, 구멍이 넓게 흰히 나야 좋다.

† 加筆 가필

- 鐵筴丸 [西山方]

- 철적환 [유산방]

- 治聲音重濁.
- 음성이 무겁고 탁한 것을 치료한다.
- 熟地黃二兩, 當歸, 白茯苓各一兩, 黃柏蜜炙, 天門冬鹽水炒, 訶子肉, 阿膠珠各五錢, 人蔘, 知母各三錢, 烏梅去核十五箇, 右並細末, 人乳, 牛乳, 梨汁各一盃和勻, 蜜丸梧子大, 訶子湯吞下八十丸.
- 숙지황 2냥, 당귀, 백복령 각 1냥, 황백 꿀에 구운 것, 천문동 소금물에 볶은 것, 가자육, 아교주 각 5돈, 인삼, 지모 각 3돈, 오매 씨를 제거한 것 15개, 이 약을 곱게 가루 낸다. 사람 젖, 우유, 배즙을 각 한 주발씩과 약을 잘 섞은 다음, 꿀로 오동나무 씨 크기로 환을 짓는다. 가자탕에 80환을 삼킨다.

- 全幼丸

- 전유환

- 地栗粉, 鱉甲, 何首烏, 山藥, 芡實各三兩, 熟地黃二兩, 白朮, 白茯苓, 麥門冬, 車前子各一兩, 神麴五錢, 右細末蜜丸, 白湯下三錢, 消食化蟲, 補腎補脾.
- 올방개 가루, 별갑, 하수오, 산약, 검실 각 3냥, 숙지황 2냥, 백출, 백복령, 맥문동, 차전자 각 1냥, 신곡 5돈, 위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환을 빚어 끓인 물에 3돈씩 먹는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벌레를 없앤다. 신장과 비장을 보한다.

絛者, 俗所云心也, 破膿後不可闕之物也, 或量穴之淺深, 或使小穴寬大, 或引出膿血, 或蘸藥入深, 絛之力於是乎大矣。○塗窗紙撚絛插之。○白綿〔即蠶綿〕, 置海藻葉〔即俗所云甘藷〕中, 撚絛插之〔或以兩股絢繩用之〕。○槲榆根白皮, 撚絛插之〔或兩股絢繩〕。○乾鰓割條插之。

임(絛)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심(心)이다. 고름을 터뜨린 다음 빠뜨릴 수 없는 물건이다. 구멍의 깊이를 재거나 작은 구멍을 넓히거나, 고름 섞인 피를 빼내거나, 약을 찍어 깊이 주입하는 데 쓰인다. 임은 이런 데에 효과가 매우 좋다. ○창호지를 꼬아 심지를 만들어 삽입한다. ○흰솜을 해조의 잎〔즉 흔히 말하는 미역〕가운데 놓고 말아 심지를 만들어 삽입한다〔또는 두 가닥으로 새끼를 꼬아 사용한다〕. ○양유근백피를 꼬아 삽입한다〔또는 두 줄로 새끼를 끈다〕. ○마른 전복을 막대기 모양으로 다듬어 삽입한다.

內托 내탁

癰腫治法大要, 須明托裏疏通行榮衛三法〔詳見總論〕。○蠟礬丸。○清心丸。○護心散。○十宣散。○加味十奇散。○十六味流氣飲。○十全大補湯。○參芪內托散。○參芪歸朮膏。○內疎黃連湯〔又有一方〕。○內托復煎散。○千金托裏散。○清心內固金粉散。○神功活命湯。○神效托裏散。○牛膠飲。○當歸黃芪湯。○托裏溫中湯。○酒製大黃散。○消毒散。○托裏溫經湯。○內托榮衛湯。○消毒潰堅湯。

옹종(癰腫)의 치료원리에는 탁리(托裏), 소통(疏通), 영위(榮衛)의 운행, 세 가지가 있다〔총론에 자세히 나온다〕。○납반환。○청심환。○호심산。○십선산。○가미십기산。○십육미유기음。○십전대보탕。○삼기내탁산。○삼기귀출고。○내소환연。

탕 [다른 처방이 하나 더 있다] ◦내탁부전산 ◦천금탁리산 ◦청심내고금분산
◦신공활명탕 ◦신평탁리산 ◦우교음 ◦당귀황기탕 ◦탁리온중탕 ◦주제대황산 ◦
소독산 ◦탁리온경탕 ◦내탁영위탕 ◦소독궤견탕

排膿 배농

菖蒲餅付之 [方見下] ◦大黃爲末, 入白飯, 搗泥付之 ◦北杉 [翼柯樹] 脂, 爲末糝
之 ◦糯米, 以鹽水炆飯, 塗香油溫付 ◦粉飴 [因絕味] 割破, 塗香油付之 ◦小麥麵
[眞末], 和蜜作餅付之 [或和人乳作餅用之] ◦小麥麵, 和鹽水打糊, 塗香油付之
◦牛屎入鹽炒, 塗香油付之 [右麵糊, 牛屎二藥, 凡癰始終付之]

창포떡을 붙인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대황을 가루 내어 흰밥에 넣고 찢
어 찰흙 같이 만들어 붙인다 ◦북삼(北杉) [익가수] 의 진을 가루 내어 뿌려준
다 ◦찹쌀을 소금물로 밥을 지어 참기름을 발라 따듯할 때 붙인다 ◦분자 [인절
미] 를 잘게 나누어 참기름을 발라 붙인다 ◦밀가루 [아주 곱게 가루 낸다] 를
꿀과 섞어 떡을 만들어 붙인다 [또는 사람 젖과 섞어 떡을 만들어 쓴다] ◦밀
가루를 소금물과 함께 풀을 쑤어 참기름을 발라 붙인다 ◦소똥을 소금과 함께
볶은 다음 참기름을 발라 붙인다 [무릇 종기가 처음 생길 때부터 나을 때까지
밀가루 풀과 소똥을 쭉 붙인다] .

去惡 거악

石雄黃, 朱砂, 白礬, 石膽, 石硫黃, 赤石脂, 磁石, 礪砂, 砒礪, 石灰, 水銀, 經粉, 黃丹, 銅青, 自然銅, 雲母. 蒼耳, 百合, 貝母, 白芷, 艾葉, 大黃, 白欝, 白芨, 商陸, 天南星, 草麻子, 羊蹄根, 白頭翁, 連翹, 續隨子, 蒲公英, 山茨菰, 孩兒茶, 松脂, 槐角, 槐耳, 乳香, 沒藥, 胡桐淚, 巴豆, 皂角刺, 血竭. 蟾蜍, 蟾酥, 田螺, 蜘蛛, 蜈蚣, 穿山甲, 蜣螂, 麝香, 牛黃, 熊膽, 狗膽, 狗寶. 百草霜, 亂髮灰. 右諸藥, 或單用一料, 或兼用數種, 或爲末糝之, 或作貼之, 又或以狗膽白飯, 入藥末, 搗泥撚絛插之.

석응황, 주사, 백반, 석담, 석류황, 적석지, 자석, 망사, 비상, 석회, 수은, 경분, 황단, 동청, 자연동, 운모, 창이, 백합, 패모, 백지, 애엽, 대황, 백렴, 백급, 상륙, 천남성, 피마자, 양제근, 백두옹, 연교, 속수자, 포공영, 산자고, 해아다, 송지, 괴각, 괴이, 유향, 몰약, 호동루, 파두, 조각자, 혈갈. 제조, 섬수, 전라, 지주, 오공, 천산갑, 강랑, 사향, 우황, 웅담, 구담, 구보, 백초상, 난발회. 이들 약은,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종류를 함께 쓸 수도 있다. 또는 가루 내어 뿌릴 수도 있고 떡을 만들어 붙일 수도 있다. 구담, 즉 개의 쓸개이나 흰밥에 약을 넣고 잘 찢어 심지를 만들어 삽입할 수도 있다.

眞元丹 ○乳香散 ○田螺散 ○海浮散 ○追毒錠子 ○攻瘍丹.

진원단 ○유향산 ○전라산 ○해부산 ○추독정자 ○공양단.

薰煙, 亦可去惡. 凡薰法, 或置藥末于缸中, 以火燒藥, 以紙掩缸口, 紙上穿一孔, 接瘡處薰之. 或以藥末置火器中燒之, 以竹作小簍子, 糊紙覆火器穿穴, 薰之瘡處, 如在項背上, 則以小竹管引薰之, 或以紙撚捲, 代竹簍用之 ○山胡桃木, 燒煙薰之 ○鱖魚曬乾燒薰 ○五倍子燒薰 ○艾葉燒薰.

연기를 씌면 나쁜 것이 제거되기도 한다. 무릇 훈증법은 약 가루를 항아리에 담아 불로 때우거나, 종이로 항아리 입구를 덮고 종이에 구멍 하나를 내어 창이 생긴 부위에 연기를 쐬다. 또는 약 가루를 화로에 담고 태운다. 대나무로 막 대기를 만들어 회로에 가로질러 놓은 다음 호지(糊紙)로 화로를 덮는다. 종이에 작은 구멍을 내고 창이 생긴 부위에 연기를 쐬다. 등과 목덜미에 생겼으면 작은 대나무 대롱으로 연기를 유도하여 쐬다. 종이를 말아 관을 만들어 죽통 대신 쓸 수 있다 ○ 산호두 나무를 태워 연기를 내어 쐬다 ○ 드렁허리 [鱧魚] 를 햇볕에 말려 태워 연기를 쐬다 ○ 오배자를 태워 연기를 쐬다 ○ 쑥을 태워 연기를 쐬다.

艾灸, 亦可去惡, 以黃蠟作片 [大蒜, 商陸, 南星, 皆可作片] 如錢厚, 鑽孔, 置瘡口, 陳艾細末, 和雄黃末, 撚丸如豆大, 置蠟上灸之, 不計壯數, 以去惡爲期.

쑥뜸으로도 나쁜 것을 제거할 수 있다. 황납을 동전 두께로 조각내고 [마늘, 상륙, 남성도 모두 조각낼 수 있다] 구멍을 뚫어 종기 위에 올려놓는다. 오래 된 쑥을 곱게 가루 내어 옹황 가루와 섞은 다음 잘 비벼 콩 크기로 환을 빚는다. 황납 위에 올리고 태운다. 뜸 뜸 횟수에 얼마일 필요가 없으며 나쁜 것이 없어질 때까지 뜬다.

† 加筆 가필

- 百中丸
- 백중환
 - 草烏二兩 [童便沈一晝夜陰乾], 人蔘一兩五錢, 萆撥一兩, 藿香五錢, 白

礬, 遠志, 常輕粉各三錢, 唐麝香眞品, 牛黃各三分, 黃丹二兩 [半入藥, 半爲衣], 蕎麥末三兩, 右極細末, 煉蜜作丸菉豆大. 每服五六七八丸. 治滯症. 小兒三四丸. 忌孕婦.

- 초오 2냥 [동변에 하루 밤낮을 담갔다 응달에서 말린다], 인삼 1냥 5돈, 필발 1냥, 곽향 5돈, 백반, 원지, 상경분 각 3돈, 당사향 진품, 우황 각 3푼, 황단 2냥 [반은 약에 넣고, 반은 환을 옷 입히는 데 쓴다], 메밀 가루 3냥, 약을 아주 곱게 가루로 내어 좋은 꿀로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매번 5, 8알 정도 복용한다. 체증을 내린다. 소아는 3, 4환을 쓰고 임신부는 피한다.

- 自潰方

- 자궤방

- 東蒨壁土細末二匙, 白飯二匙, 爛搗溫付.
- 동벽토를 곱게 가루 내어 2숟가락, 흰밥 2숟가락을 잘 찼어 따듯할 때 붙인다.

- 蕎麥水銀餅

- 교맥수은병

洗法 세법

凡癰疽諸瘡, 無論始終, 頻洗爲妙 ◦ 五倍子湯 ◦ 甘艸湯 ◦ 蛇牀子湯 ◦ 艾葉湯 ◦ 鹽湯 ◦ 桑灰水 ◦ 豬蹄湯 [方見下]

무릇 응저와 모든 종기는 초기나 말기나를 논할 것 없이 자주 씻어주는 게 가장 좋다 ○오배자탕 ○감초탕 ○사상자탕 ○애엽탕 ○소금물 ○뽕나무 잣물 ○암돼지 족발 끓인 물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

生肌 생기

紅玉散糝之 ○烏梅散用之 ○石貝散用之 ○北杉脂糝之 ○白礬, 搗碎細末如塵糝之

홍옥산을 뿌린다 ○오매산을 쓴다 ○석패산을 쓴다 ○북삼나무의 진을 갈아 뿌린다 ○백자를 잘게 부순 다음 아주 곱게 갈아 뿌린다.

合瘡 합창

神異膏 [方見下] ○北杉脂 ○黑膏藥 ○白膏藥 ○五毒膏貼之.

신이고 [처방은 아래 나온다] ○북삼나무의 진 ○흑고약 ○백고약 ○오독고를 붙인다.

蟲骨 충골

凡癰疽久不愈, 則生蟲而有朽骨, 亦有非久而生蟲. 與骨者, 朽骨. 蓋瘡中惡氣凝結者也. 古人所論藥方非一, 而試之皆蔑效, 唯李魯城攻瘍丹, 百試百驗, 無蟲不死, 無骨不碎, 誠醫家之神槍利劍也.

대개 종기가 오래되어도 낫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면서 뼈가 썩는다.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벌레가 생기기도 한다. '여골'이라는 말은 뼈가 썩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종기의 나쁜 기운이 한군데로 응결되어 생긴다. 옛사람의 처방이 다양한데 시험해보니 모두 효과가 그저 그렇고 오직 이노성의 공양단만이 백발백중이었다. 제거되지 않는 벌레가 없었고 깨끗해지지 않는 뼈가 없었다. 진실로 의업을 하는 사람의 보검이다.

雜證 잡증

熱毒方盛, 或發大渴, 此乃毒氣攻心, 令舌乾煩渴, 但用補心藥, 內補即止 ○癰疽發渴, 乃氣血兩虛, 用加味八物湯 [方見下] ○竹葉黃芪湯 ○麥冬散 ○桑枝散 ○五味子湯 ○蜜花散 [諸方并見下] ○發渴惡心胸滿, 用茯苓湯 [方見下]

열독이 점점 심해져서 혹 목이 심하게 마르면, 이는 독기가 심장을 공격하여 혀가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게 된 것으로, 보심약을 써 보해주면 바로 그친다 ○ 응저에 갈증이 있으면 기와 혈 모두 허한 것이니, 가미팔물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죽엽황기탕 ○맥동산 ○상지산 ○오미자탕 ○밀화산 [이상의 처방은 모두 아래에 나온다] ○갈증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면 가슴이 가득 찬 듯하면 복령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

大發熱不已, 用梔子湯 [方見下] ○諸瘡出血過多, 而心煩不安, 不得睡臥, 此妄心也, 用六神散 [方見下] ○癰疽夜臥不睡, 用安神散 [方見下] .

고열이 나면서 그치지 않으면 치자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 모든
종기에서 출혈이 심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잠이 자지 못하면 이는 정
신이 나간 것이니, 육신산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 종기로 밤에 누어
도 잠들지 못하면 안신산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

寒覆皮毛, 鬱遏經絡, 熱伏榮中, 聚爲赤腫, 痛不可忍, 惡寒發熱, 四肢疼痛, 用托裏
溫經湯 [方見下] ○ 癰疽虛證, 寒戰, 明乳香研細半兩, 每一錢, 熱水調下. 戰發於
肝, 乳香着肝而溫之, 寒戰隨止.

추위로 두꺼운 모피를 입어 경락이 막히면, 열이 영으로 [榮中] 숨어들어 축
적되면 붉은 종기가 되어,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오한과 발열이 있으며 사
지가 쭈시고 아프게 된다. 탁리온경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 종기에
허증이 나타나서 추워 떨어, 명유향 반량을 아주 곱게 갈아, 매 1돈을 끓인 물
에 타서 먹는다. 추워 떠는 증상 [寒戰] 은 간장(肝臟)에서 시작되는데, 유향
은 간에 달라붙어 간을 따뜻하게 하기에 갑자기 추위에 떠는 증상이 멎는다.

未潰時嘔者, 當作毒氣上攻治之, 潰後當作陰虛補之, 若年老人潰後, 嘔不能食, 宜
參苓白朮膏 [方見下] 補之. 河間謂, 瘡瘍嘔者, 濕氣侵于胃也, 宜倍白朮 ○ 或用獨
參湯 ○ 惡瘡毒氣攻心則多嘔, 用內托散, 甘桔湯 [方見下] ○ 嘔吐心悶, 用加味四君
子湯 [方見下] ○ 喘嗽多痰, 用加味四七湯 [方見下] ○ 發喊 [吃逆也], 連聲不
絕, 神思疲倦, 用柿蒂湯 [方見下] .

종기가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 때때로 구역이 나오면 독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하고, 종기가 터진 후에는 당연히 음이 허한 것으로 보고
보(補)해준다. 만약 노인이 종기가 터진 후에 구토를 하며 먹지 못하면 삼령백

출고로 보한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하간(河間)이 말하기를, 종기로 인한 구토는 습기가 위를 침범한 것이니 백출을 두 배로 쓴다고 하였다 ○혹은 독삼탕을 쓴다 ○심한 종기로 독기가 심장을 공격하면 구토가 많이 생기니, 내탁산, 감길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구토로 가슴이 답답하면 가미사군자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숨이 이 차고 기침이 나오면서 가래가 많으면 가미사칠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딸국질이 끊이지 않고 생겨 정신이 없으면 시체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潰後痞滿不食, 用健脾散 [方見下] ○潰後泄瀉不止, 用加味治中湯 [方見下] ○潰後小便淋瀝不通, 用大麥門冬湯 [方見下] ○潰後虛汗, 如雨不止, 用黃芪六一湯 [方見下] ○潰後手足浮腫, 用三和湯 [方見下].

종기가 터진 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면 건비산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터진 후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가미치중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터진 후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 대맥문동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터진 후 허약하여 땀이 비 오듯이 나면서 그치지 않으면 황기육일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터진 후 수족이 부으면 삼화탕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禁畧 금기

勿驚憂, 勿嗔怒, 戒房事, 防穢氣, 勿令婦人擠腫貼藥, 勿聽俗醫搗座用藥.

놀라면 안 되고, 분노해도 안 되며, 방사를 삼가고 더러운 곳을 피한다. 여자에게 종기를 짜게 하거나 첩약을 다리게 하면 안 되고, 돌팔이 의사에게 혹하여 종기를 째거나 약을 써서는 안 된다.

1. 看 : 癰病 ※《外科精要》↩

2. 行陽 : 허벅다리의 림프샘이 부어 켕기고 아픈 병 ↩

3. 止 : 止 ※《瘡瘍經驗全書》

只 ※《瘍醫大全》↩

4. 而 : 以 ※《瘡瘍經驗全書》↩

5. : 尻神不犯吉日 ※《瘡瘍經驗全書》↩

6. : 《本草綱目》에 나온다. ※역자주 ↩

內癰

내용

忍冬, 酒水相半煎服 [無論腸癰肺癰, 始終服之] ○合歡皮半握, 水煎服 [一方用合歡皮, 白欝二味, 麝末, 每服五錢, 水煎溫服] ○巖上青白苔一握, 水煎服 ○狗膽, 以生大豆粉, 和丸服之 [無數多服, 以差爲期] ○狗肉作膏, 常服以補之 ○灸騎竹馬穴. 雲母膏 ○桔梗湯 ○款花湯 ○二白丸 [並方見下] .

인동을 물과 술 반반으로 다려 복용한다 [장옹이나 폐옹 등 가릴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용한다] ○합환피 반 줌을 물에 다려 복용한다 [어떤 처방은 합환피, 백렴 두 가지를 대충 갈아 매번 5돈을 물에 다려 따듯할 때 복용한다] ○바위에 난 청백색의 이끼 한 줌을 물에 다려 복용한다 ○개의 쓸개를 생대두 가루로 환을 빻어 복용한다 [횃수를 셀 필요 없이 날 때까지 계속 복용한다] ○개고기로 고(膏)를 만들어 평상시에 복용하여 보를 해준다 ○기죽마혈(騎竹馬穴)에 뜸을 뜬다. 운모고 ○길경탕 ○관화탕 ○이백환 [이 처방들은 아래에 나온다] .

瘰癧

나력

服蓋氣養榮湯¹○夏枯艸湯○柴胡連翹湯○消毒湯○柴胡通經湯○必效散〔並方見下〕○蛇油丸服之, 消痰核〔限數三升服之〕○蠟礬丸, 夏枯艸煎水吞下, 每服五十丸〔無論已潰未潰, 皆可服之〕○青木香根葉, 獨脚將軍艸各一斤, 用大酒十斤, 放二味在瓶內, 封固瓶口, 重湯煮, 三枝官香爲度, 埋地中三日, 出火毒, 飲之半月, 痰核自消○用石灰窖內紅土²爲末, 菜油調搽空中, 出毒出膿, 以膏貼之, 紅腫痰核立消○用噤藥〔方見下〕.

익기양영탕(益氣養榮湯) ○하고초탕 ○시호연교탕 ○소독탕 ○시호통경탕 ○필효산〔처방은 아래에 나온다〕을 복용한다 ○사유환을 복용하여 담핵을 삭힌다〔최대 3되까지 복용한다〕○납반환을 하고초 다린 물에 삼킨다. 매번 50환을 복용한다〔고름이 잡혔는지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청목향의 뿌리와 잎, 독각장군초 각 1근을 항아리에 넣고 입구를 잘 막아 증탕으로 끓인다. 향이 3개 정도 타는 시간 정도 끓인 다음 땅속에 3일 묻어 두어 화독을 뺀다. 15일 복용하면 담핵이 저절로 삭는다. ○석회요의 안쪽에 생기는 붉은 잔유물을 가루 내어 채소 기름과 잘 섞어 발라주면 독을 빼내고 고름을 빼낸다. 고약으로 만들어 붙이면 붉게 부은 담핵을 바로 삭힌다 ○입에 머금은 약〔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灸法, 痰核之始結也, 商陸作片 [如錢大], 鑽孔置母核上, 石雄黃爲末, 撒雜于艾中, 日灸五十壯, 夜則田螺燒存性細末, 香油調勻, 付核上.

뜸법: 담핵이 처음 맺힐 때 상륙을 조각내어 [동전 크기] 구멍을 뚫은 다음 가장 큰 담핵 위에 놓는다. 석웅황을 가루 내어 쑥 위에 잘 뿌려 섞어 하루에 50 장 뜸을 뜬다. 밤에는 우렁이 [田螺] 를 성질이 보존되게 태운 다음 곱게 가루 내어 참기름과 섞어 담핵 위에 붙인다.

潰後, 用得效針頭散糝之 [方見下] ◦用攻瘍丹 [小兒及虛者, 當審慎用之].

끓아 터진 후에는 득효침두산을 뿌린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공양단을 쓴다 [소아와 허약한 사람에게는 잘 살펴 조심해서 써야 한다].

生肌, 用如神散 [方見下 ◦生肌合瘡, 如治癰法].

새살이 나게 하는 데는, 여신산을 쓴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새살이 나게 하여 아물게 하려면 응(癰) 치료법을 쓴다].

1. 蓋氣養榮湯: 益氣養榮湯 ※《瘡瘍經驗全書、瘰癧》←

2. 土塹: 석회가마에 녹아 아래로 녹아 흐른 후 굳은 붉은 색의 잔유물 ※《本草綱目》, 土塹 ←

乳癰

유옹

初起時, 服鹿角散 [外付金縷散, 方見下] ○阜角散 ○復元通氣散 ○青陳湯 [方見下] ○洗法, 用牡蠣煎 [方見下] .

유옹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녹각산을 복용한다 [외부에는 금잡산을 붙인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조각산 ○복원통기산 ○청진탕 [처방은 아래 나온다]
○세법, 용모려전 [처방은 아래 나온다] .

消膿, 水芹爛搗付之 ○鵲卵塗之 ○蟹胥 [게젓] 殼內脂塗之 ○蒲公英爛搗炒付 ○胡
艸 [俗名五浪介草, 用根莖葉] 爛搗炒付 ○柚子割付 ○石榴皮唾津付之.

고름을 삭히는 데는 미나리를 잘 으깨어 붙인다 ○집비둘기를 알을 바른다 ○젓
갈 담은 게 [게젓] 의 껍질 안에 있는 기름을 바른다 ○포공영을 으깨어 볶아
붙인다 ○호초 [속명은 오랑캐 풀이며, 뿌리, 줄기, 잎을 쓴다] 을 잘 으깨어
볶아 붙인다 ○유자나무 열매를 갈아붙인다 ○석류 껍질에 침을 잘 발라 붙인
다.

潰後, 用眞元丹 ○乳香散 ○人參末糝之 ○牛屎入鹽炒付 ○小麥麵, 和鹽水打糊, 塗香
油付之 ○牛肉割片付之 ○葶麻子, 大黃末, 入白飯中, 搗泥作餅付之 ○南瓜瓢, 入鹽
微炒溫付, 非但去惡, 止痛如神.

유옹이 터진 후에는 진원단을 쓴다 ○유향산 ○인삼 가루를 뿌린다 ○소똥을 소금에 볶아 붙인다 ○밀가루를 소금물로 풀을 만들어 향유를 바르고 붙인다 ○소고기를 편을 내어 붙인다 ○피마자, 대황 가루에 흰밥을 넣어 찜어 떡을 만들어 붙인다 ○남과의 속에 소금을 넣고 약간 볶아 따듯할 때 붙인다. 나쁜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통증을 멎게 하는 데도 신기한 효과가 있다.

生肌, 石貝散用之 [若快去惡, 則不用狗膽, 只以白飯熬紕].

새살이 돋게 하는 데는 석패산을 쓴다 [만약 신속히 나쁜 것을 제거하고자 하면 개의 쓸개를 쓰지 말고 흰밥으로 꼬아 심지를 만들어 삽입한다].

妳癰 내력

妳癰, 因女子十五六歲, 經脈將行, 或一月二次, 或過月不行, 致此疾. 多生寡薄, 氣體虛弱, 宜服敗毒散加地黃, 再服黃礬丸, 其毒自然而敗, 不致損命. 每乳上只有一個核可治, 若串成三四過, 即難療矣. 治法, 逍遙調經湯 [方見下], 開鬱順氣解毒湯 [方見下] 加減用之.

내력, 여자가 15, 6세가 되어 경맥이 활동을 시작한다. 한 달에 두 번 오거나 기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거나 하면 이 병이 생긴다. 과부나 박복한 사람이나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주로 생긴다. 마땅히 패독산에 지황을 가하여 복용하고, 재차 황반환을 복용한다. 그러면 독이 자연히 약해져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한다. 가슴마다 담핵이 하나만 생기면 치료할 수 있지만, 3, 4개 이상 줄지어 생기면 치료하기 어렵다. 치료법으로는 소요조경탕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개울순기해독탕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을 가감하여 사용한다.

妳癰 내벽

妳癰, 乃五十六歲, 年老之人, 生此疾. 症不成膿結毒, 莫用涼劑付貼. 若使涼劑付貼, 卽毒入肺腑卽死. 用鹿角散相和, 黃礬丸頻頻服之. ○開鬱順氣解毒湯 ○千金托裏散.

내벽, 5, 60세 정도 나이 든 사람에게 생긴다. 독이 한 곳에 맴혀 고름이 되는 증상은 없다. 찬 약을 붙이면 절대 안 된다. 만약 찬 약을 붙이면 독이 바로 장부(肺腑)로 들어가 죽는다. 녹각산을 써 화해시키고, 황반환을 자주 복용한다. ○개울순기해독탕 ○천금탁리산.

乳巖 유암

乳巖, 已嫁未嫁皆生. 此毒, 陰極陽衰, 奈虛陽積, 而與血無湯, 安能散? 故此血滲于心經, 卽生此疾. 若未破可療, 已破卽難治, 捻之內如山巖, 故名之. 早治得生, 若不治內潰肉爛, 見五臟而死. 未破用紅花流氣飲, 川芎丸. ○歸脾湯 [多用三四百貼, 此藥治乳巖爲第一]

유암, 이미 시집간 사람이건 아직 안 간 사람이건 모두 생긴다. 이 독은 음이 극성하고 양이 쇠한 상태이다. 양이 허한 상태가 심해져, 혈이 움직일 힘을 받지 못하면 혈이 퍼지지 못한다. 그러면 혈이 심경으로 넘치게 되어 이 병이 생긴다. 아직 터지지 않았다면 치료가 가능하나 이미 터져버렸으면 치료하기가 어렵다. 눌러 보면 안쪽이 산의 바위 같이 느껴지기에 이리 이름하였다. 조기에

치료하면 살 수 있지만, 만약 치료하지 않아 안으로 문드러지고 혈어 오장이 드러나면서 죽는다. 이직 터지지 않았으면 홍화류기음, 천궁환을 사용한다 ○
귀비탕 [많게는 3, 4백 첩까지 쓴다. 이 약이 유암 치료에 제일 좋다].

† 加筆 가필

- 貴隴木膏付之神效, 爲第一.
- 귀룽목고를 붙이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제일 좋다.
- 乳巖, 用熏法無不瘥云. 熏法卽蕎麥水銀餅, 而水銀爲五錢重, 一日熏之云.
- 유암에 훈법을 사용하면 효과가 없는 적이 없다. 여기서의 훈법은 교맥수은병이며 수은은 5돈 정도 쓴다. 하루만 한다는 말이 있다.
- 延日礪石, 以刀刮末糝之神效.
- 연일려석을 칼로 끌어낸 다음 가루 내어 뿌리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背疽

배저

發背之生, 積毒臟腑, 正氣盛, 淹留停煖, 血氣虛, 朝輕夕重, 如發弓矢, 外小內大. 內托則生, 敗毒則斃. 治法以參芪爲主, 一定之論, 百世不易. 凡癰發于背, 廣一尺, 深可一寸, 雖潰至骨, 不穿膜不死, 此症, 六氣七情, 或因飲食, 而感其毒, 積于肚之間, 用藥先消脾肚中之毒, 內外夾攻, 斯無患矣.

발배는 장부에 독이 쌓여 생긴다. 정기가 왕성하면 한군데로 몰려 열이 나고, 혈기가 허약하면 열이 아침에는 약하고 저녁에 심해진다. 모양이 화살과 같아 밖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안에는 크다. 정기를 보하면서 독을 밖으로 밀어내면 살고 독이 심해지면 죽는다. 치법으로 인삼과 황기를 주약으로 삼는 게 기본으로, 이는 옛날부터 변치 않는 원칙이다. 대개 응병은 등에 생기고 너비가 1척, 깊이가 1촌에 이를 수 있으나, 비록 굵아도 뼈까지 이르지 않는 않으며 막이 뚫리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이 병은 육기나 칠정이 원인이 되거나, 음식으로 감염되어 독이 비장(脾臟)과 복부[肚] 사이에 쌓여 생긴다. 먼저 비나 위장의 독을 삭이는 약을 쓰고, 이어 안팎으로 협공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用參芪湯 ○神功活命湯 ○神效托裏散 ○犀角散 ○黃連清涼飲子 ○刻效散 [並方見下].

삼기탕 ○신공활명탕 ○신효탁리산 ○서각산 ○황연청량음자 ○각효산을 사용한다 [처방은 모두 아래에 나온다].

發背初起, 用穿甲散 [方見下] ○發背, 發不起, 用穿山甲, 蛤粉, 拌勻炒, 五錢酒下.

발배(發背)의 초기에는 천갑산을 쓴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발배에 종기가 돌아나지 않으면, 천산갑, 합분 잘 섞어 볶아 5돈을 술에 넘긴다.

促膿, 排膿, 去惡, 生肌, 合瘡, 雜證, 並如治癰疽法, 不同者, 拔毒根耳.

촉농, 배농, 거악, 생기, 합창, 그외 잡증에는 모두 응저 치료법을 그대로 쓴다.
다만 독의 뿌리를 뽑는 방법 [拔毒根] 에는 이를 쓰지 않는다.

潰後拔根, 牛屎炒付 [瘡處乾燥, 則亦付此] ○田螺肉付之 ○馬刀 [蛤名], 爛搗付之 ○狗頭腦付之 ○野人乾燒存性, 和醋付之, 拔根去惡生肌, 始終用之, 爲妙 ○兔皮, 唾津付之 ○生鼠皮, 唾津付之 ○攻瘍丹用之 ○灸法, 小麥麵, 和水調勻, 撚作條如指, 圍瘡口如環, 鱸魚搗泥, 置圍環中, 放艾丸鱸肉上, 灸之, 鱸肉焦, 則改置生者, 以毒根盡消爲期, 此鱸魚灸法也 ○地龍灸之 [如上法, 以地龍數三介, 拌鹽置圍麵中] ○薰法, 瓦瓶注滿燒酒, 置炭火上, 竹管插瓶口, 以麵餅封瓶口, 以紙糊之, 勿洩氣. 竹管觜接瘡口薰之 ○醃醋薰如上法 ○牛角燒煙薰之 [烟薰法, 詳見上癰疽] ○南瓜瓢溫付, 消腫毒 [凡毒腫皆用之].

짓물러 헌 이후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소똥을 볶아 붙인다 [종기가 생긴 부위가 건조하여도 역시 이것을 붙인다] ○우렁 [田螺] 의 살을 붙인다 ○마도 [조개 일종의 이름] 를 잘 찢어 붙인다 ○개의 두뇌를 붙인다 ○야인건(인분)을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식초에 섞어 붙인다. 뿌리를 뽑고 나쁜 것을 제거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면 아주 좋다 ○토끼 껍질을 침과 섞어 붙인다 ○산 쥐의 껍질을 침과 섞어 붙인다 ○공양단을 사용한다

○구법: 밀가루를 물과 잘 섞어 막대 모양으로 잘 비벼 창구 주위를 고리 모양으로 두른다. 미꾸라지를 진흙처럼 찢어 고리 안쪽에 놓고 미꾸라지 살 위에 썩 덩이를 놓고 땀을 뜬다. 미꾸라지 살이 타면 새것으로 바꾸면서 독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뜬다. 이게 미꾸라지 땀법이다. ○지렁이 땀법 [앞의 방법과 같다. 지렁이 3개를 소금에 섞어 밀가루 고리에 놓는다] ○훈증법, 목이 짧은 항아리에 소주를 가득 담아 숯불 위에 올려놓는다. 대나무 대롱을 항아리 입구에 꽂고 밀떡으로 항아리 입구를 막은 다음 풀로 종이를 붙여 기운이 세지 않게 한다. 대나무 대롱의 부리를 한 부위에 대고 연기를 쐬다. ○식초 훈법을 앞의 방법같이 한다 ○소의 뽕을 태워 연기로 쐬다 [연기를 쐬는 법은 앞의 응저에 자세히 나온다] ○호박의 속을 따뜻하게 붙이면 종기의 독을 삭인다 [무릇 모든 종기의 독에 다 쓴다] .

腦疽

뇌저

發腦者, 伏陽結滯, 邪毒上壅. 或生玉枕之端, 或在風池之穴. 或多或少, 大小不同, 形如硬癰, 漸至潰爛, 遍生髮中, 痛如刀剌, 赤腫無膿. 逆則黃水出, 順則白膿來. 治法, 以當歸, 川芎, 人蔘, 赤芍藥, 連翹, 桔梗, 天花粉, 升麻酒炒, 黃芩, 山梔, 金銀花, 黃芪, 乾葛之類, 以意消息治之. 宜服蠟礬丸. 蛇蟪不拘多少, 和蔥搗爛絞汁, 加冰片, 麝少許, 搽之.

머리에 저(疽)가 생기는 이유는 잠잠하던 양기가 한군데로 쏠리면서 뭉쳐 독이 되어 위로 몰리며 막혔기 때문이다. 옥침혈에 생기기도 하고 풍지혈에 생기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크고 다른 경우에는 작아 크기가 다양하다. 겉모양은 딱딱한 부스럼 같으나 점점 헐어 짓무른다. 머리카락 나는 어디에나 생길 수 있고 통증이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 붉게 부어오르나 고름은 생기지 않는다. 상태가 안 좋으면 누런 물이 나오고 상태가 좋으면 맑은 물이 나온다. 치료법으로 당귀, 천궁, 인삼, 적작약, 연교, 길경, 천화분, 승마술에 볶은 것, 황금, 산치, 금은화, 황기, 건갈과 같은 약재를 쓴다. 종기를 삭이어 가라앉게 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한다. 납반환을 쓰는 게 좋다. 꽃게를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 파와 함께 잘 짓찧어 즙을 낸 다음에 빙편, 사향을 조금 넣어 바른다.

生鼠皮, 唾津付之. ○羊蹄根, 爛搗付之 [和醋] ○蜘蛛大者, 搗付 [拔根, 如背疽法] ○有大毒, 則地龍灸百餘壯 [見上] .

산 쥐 껍질에 침을 발라 붙인다 ○양제근을 잘 짓찧어 붙인다 [식초를 섞는다] ○거미 큰 것을 찢어 붙인다 [종기의 뿌리를 뽑아낸다. 배저의 치료법과 같다] ○독이 매우 심하면 지렁이 뚨를 백여 장을 뜯다 [앞에 나온다] .

† 加筆 가필

- 乾柿付之, 吮膿去根神效. 如無乾柿, 雖生柿付之.
- 곶감을 붙인다. 고름을 빨아내고 뿌리를 제거하는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 생감이라도 붙인다.

疔疽

정저

大抵, 疔瘡有十三種, 而有青黃赤白黑, 所以應五臟也. 復有暑疔, 火疔, 氣疔, 冷疔者, 皆以其時候緩急浮實之異. 但初發起, 或先後痛, 或先寒後熱, 四肢拘急沈重. 強痛者, 得症便發寒熱, 瘡邊麻, 漸至半身大痛應心, 嘔逆自利, 足冷至膝, 四畔紫黑色, 皆爲重症.

대개 정창에는 13종이 있다. 청황적백흑의 다섯 색을 띠는 것은 오장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서정(暑疔), 화정(火疔), 기정(氣疔), 냉정(冷疔)으로 분류하는데, 각각 계절에 따른 느낌과 빠름 [緩急], 들뜸과 내실 [浮實]의 차이를 반영한다. 다만 발생 초기에 먼저 붓고 통증이 나중에 오기도 하고, 한기가 먼저 오고 후에 열이 나기도 하고, 사지가 뒤틀리기도 하고, 몸이 천근같이 무겁게 느껴진다. 극심한 통증이 있는 수도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한열이 생기고 종기 주변이 마비되는 듯하다가 반신으로 점점 퍼지고, 통증이 심하여 심장이 조이는 듯하며, 구역이 나면서 설사를 하고 발이 냉해지기 시작하여 무릎까지 올라오고, 종기의 주위 전체가 자흑색으로 변한다. 이런 증상 모두는 위중한 증상이다.

惟麻子始末皆痒, 若症候寒熱, 與諸疔瘡同, 俱覺背強其痛甚者, 乃觸犯所致, 卽取枸杞根, 搗汁服之, 彌佳. 再狗屎白者, 得雨露之功, 臭氣已去, 加枸杞根, 和勻絞取清汁服之, 危¹良.

오직 마자정(麻子疔)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렵다. 모두 한열이 느껴지는 것은 다른 정창들과 마찬가지로이다. 모두 등이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심하면 이는 접하지 말아야 할 것에 감촉된 것인데, 즉시 구기자나무 뿌리를 찢어 즙을 내어 복용하면 두루 좋다. 재차 비와 이슬의 기운을 받아 냄새가 이미 빠진 개의 흰 똥에, 구기자나무 뿌리를 넣고 잘 섞고 짜아 푸른 즙을 내어 복용하면 더욱 좋다.

但有卒患喉痛, 心寒熱, 或腹痛, 惡寒發熱者, 當預防此疔症也. 凡疔瘡多生口邊頰內或舌上, 赤黑點點如珠, 慘痛應心者是也. 不即治之, 日夜根長, 流入諸脈, 如箭入身, 不得搖動, 經久五六日後, 甚者毒氣入腹, 眼中見火, 神昏煩悶, 嘔吐, 恍惚如醉如癡, 不可療矣.

다만 갑자기 목 속에 통증이 있으면서 심장 부위에 한기가 있다 열기가 있다 하며, 또는 복통도 있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열이 나면 정(疔)의 증상으로 보고 예방하여야 한다. 무릇 정창은 입 주변과 뺨 부위의 구강, 또는 혀에 생기는데, 모양이 붉으면서 검은 주술 모양의 것이 점점이 생겨나고 통증이 매우 심해 심장까지 조이는 듯하면 바로 정창이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하루가 다르게 뿌리가 성장하여 모든 경맥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화살이 사람에게 꽂힌 것처럼 자리를 틀고 앉아 흔들리지 않는다. 5, 6일이 지나 정창이 심하면 독기가 복부로 들어가고 눈앞에 불이 보이는 듯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답답하며 구토가 나며, 정신이 없어 취한 듯 바보가 된 듯하다. 이 지경에 이르면 치료할 수 없다.

疔瘡有頭黑硬而凹者, 瘡頭白而腫實者, 瘡頭如豆莖色者, 瘡頭鮮紅者, 瘡頭內有黑脈者, 瘡頭紅赤而浮虛者, 瘡頭如梔而黃者, 瘡頭如金箔者, 瘡頭如茱萸者, 瘡頭如石榴子者. 有初如風疹粉刺, 搔破入風則去², 黃水出, 其裏有赤黑脈而微腫者, 肉中突起如魚眼赤黑, 慘痛徹骨者. 結久則爲爛瘡, 瘡下深孔如大針穿物. 初生時, 突起疔痂, 故名疔瘡. 令人惡寒發熱, 四肢強直而牽痛, 一二日瘡便變色焦黑, 腫大光起, 根硬, 不可近, 犯之則痛, 甚則發于頭面手足骨節間者, 氣血之所聚會, 宜急治之.

정창에는, 꼭대기가 검으며 딱딱하면서 안으로 움푹 들어간 모양, 꼭대기가 희면서 부어올라 견실한 모양, 꼭대기의 색이 마치 콩 껍질 색 같은 것, 창이 꼭대기가 선홍색인 것, 꼭대기 안쪽에 검은 혈관이 있는 것, 꼭대기가 홍적색을 띠면서 물렁물렁한 것, 꼭대기가 치자색에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것, 꼭대기가 금박색을 띠는 것, 꼭대기가 오수유색 같은 것, 꼭대기가 석류 씨의 색을 띠는 것이 있다. 초기에는 풍진이나 풍자같이 보이다가 가려워 긁으면 노란 물이 나오고 안으로는 적흑색 혈맥이 있으면서 살짝 붓는 것도 있으며, 살 가운데에 돌기가 돌아나서 고기의 눈처럼 적흑색을 띠고 통증이 심하여 뼈까지 도달하는 듯한 것도 있다. 오래되면 창이 흐물흐물해지고 창 아래로 깊은 길이 생겨 대침이 뚫고 들어간 듯하다. 처음 생길 때 못을 박은 듯한 모양을 하여 정창이라 부른다.

有似灸瘡四邊泡漿者, 但疔瘡熟時, 膿水出瘡孔如蜂窠, 病易瘥也. 疔瘡惡症, 眼黃面青舌黑, 冷汗發渴, 脚冷至膝下, 不食自利, 瘡冷不痛, 嘔逆, 瘡不起發, 四畔不紅, 瘡邊麻木乾黑生刺, 瘡邊紫黑色, 慘痛應心, 眼中見火, 神昏煩悶, 神思恍惚, 猶如醉如癡者, 皆難治也. 試以針刺患人手足中指不痛者難治. 疔瘡初生時, 紅軟溫和, 忽

然頂陷黑, 謂廣走, 此症危. 痛急服飛龍奪命丹, 追疔奪命湯. 其疔發于太陽眼邊者, 名曰疔³腦疔, 十死一生. 《內經》, 以白疔發于右鼻, 赤疔發于舌根, 黃疔發于口脣, 黑疔發于耳前, 青疔發于目下. 蓋取五色以應五臟, 各有所屬部位而已. 然或肩或腰或足發, 無定處, 如在頭面手足骨節間者甚急.

뜸으로 생긴 부스럼같이 주변에 진물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다만 정창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고름이 나오면서 창 의 구멍이 벌집같이 보이게 되는데 쉽게 낫는다. 정창의 나쁜 증상은 다음과 같다. 눈이 노랗게 되고 얼굴에 푸른색이 보이거나 혀는 검게 변하면서 식은땀이 나고 갈증을 느끼거나, 다리가 차지면서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설사를 하거나, 부스럼이 차고 통증이 없으며 구토를 하거나, 부스럼이 돋지 못하고 주위가 붉게 되지 않거나, 부스럼 주변에 감각이 무뎌지고, 건조하면서 검게 변하고 마비감이 있으면서 작은 돌기가 생기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 심장을 조이는 듯하고 눈에 불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고 답답하거나 정신이 산만하여 마치 술에 취한 듯 바보가 된 듯하면, 모두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들이다. 시험 삼아 환자의 팔다리 중지를 침으로 찔렀는데도 통증이 없으면 치료하기 어렵다. 정창이 처음 생겨날 때 홍색을 띠면서 연약하고 따듯하다가 갑자기 부스럼 끝부분이 함몰되면서 검게 변하면 광주(廣走)라고 하고 매우 위급한 증상이다. 통증이 심하면 비롱탈명단, 추정탈명탕을 복용한다. 정창이 태양혈과 눈 주변에 생기면 정내정(釘腦疔)이라 하는데 열 중 한 명만 살 수 있다. 《내경》에서, 백정은 오른 코에 생기고, 적정은 허뿌리에 생기고, 황정은 입과 입술에 생기고, 흑정은 귀 앞에 생기고 청정은 눈 아래 생긴다고 하였다. 대개 오색을 들어 이름 지었는데 각각

부위가 소속되는 오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론 어깨에 혹은 허리에 혹은 다리에 생기기도 하여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머리, 얼굴, 팔다리, 골절 사이에 생기면 매우 증상이 심하다.

服追疔奪命湯 ○黃歸散 ○護心散.

추정탈명탕 ○황귀산 ○호심산을 복용한다.

拔疔法, 用蔥白, 同飛龍奪命丹五粒和嚼, 熱酒半碗過下, 以衣覆患上, 略出汗爲妙. 上午服藥, 下午即將絕利磁鋒, 劃破瘡口十字, 即糝飛龍奪命末在內, 而外用蟾舌研爛, 蟾肚底皮貼之, 內服追疔湯劑.

정창을 뿌리 뽑는 방법: 비룡탈명단 다섯 알과 함께 총백을 잘 씹어 따듯한 술 반 잔에 넘기고 나서, 옷으로 환부를 덮어 땀을 약간 내면 좋다. 오전에 약을 복용하고 오후에 바로 날카로운 도자기 칼로 부스럼을 십자 모양으로 절개한다. 그리고 즉시 비룡탈명단 가루를 뿌린 다음 안으로 밀어 넣고, 밖으로는 두꺼비 혀를 잘 으깨어 두꺼비 배의 피부에 놓고 붙인다. 내복으로 추정탕과 같은 약을 복용한다.

○芫蔚散, 治急慢疔瘡, 益母草一味, 燒存性爲末, 先以小【sm/金+縻】刀, 十字剖破疔瘡根, 至痛處, 令出血, 次繞疔根, 出血, 捻盡惡血拭乾, 以稻艸心, 蘸益母草灰, 撚入瘡孔中, 遍傳到底, 良久當有紫黑血, 捻出令盡拭乾, 再撚入前藥, 見紅血則止, 一日夜三五度, 重者三日根爛出, 輕者一日半出瘡根 盤腸根出, 即瘡根起也. 針挑出之, 雖挑不出根, 自爛無憂矣.

○충위산, 급만성 정창을 치료한다. 익모초 한 가지를 성질이 보존될 만큼 태운다. 먼저 작은 칼로 십자 모양으로 정창의 뿌리를 통증이 있는 깊이까지 이르도록 절개하여 피가 나오게 하고, 이어서 정창의 뿌리를 돌돌 감고 짜서 나쁜 피가 모두 나오게 한 다음 깨끗이 닦아 말린다. 이어 벼의 이삭의 끝부분으로 익모초 태운 가루를 찍어 정창 구멍 안으로 밀어 넣어 정창의 뿌리까지 두루 도달하게 하면 좋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검붉은 피가 날 것이며 모두 내보낸 후 말린다. 재차 앞의 약을 밀어 넣어 선홍색의 피가 나오면 그때 그친다. 하루 밤낮으로 3, 5번 정도 한다. 심하면 3일 동안 계속하면 뿌리가 흐물흐물해져 드러나고, 경미한 경우에는 하루 반나절만 하여도 정창의 뿌리가 드러난다. 소화기 창자가 보이면, 정창의 뿌리가 드러난 것이다. 침으로 긁어 뿌리를 제거하면 된다. 비록 긁어도 뿌리가 제거되지 않더라도 저절로 녹아내려 문제가 없다.

內服救生奪命丹, 如無則服忍冬酒, 日夜服之, 並服追疔奪命湯. 若得此症, 便發寒熱, 半身麻木, 嘔吐不食, 其痛應心者, 甚急, 三五日便死, 急用小刀, 劃斷疔根, 出血令盡. 若有疔發于三四處, 只去先發爲要, 其餘卽無害矣, 如前治之. 體壯者實者, 以鋒針刺瘡四邊, 多出血, 以洩毒氣, 針刺所屬經絡而瀉之暑濕, 忌風寒房事, 酒肉魚腥, 蒜椒辛辣, 油膩粉滑, 生冷狐臭, 息香, 射香, 湯火氣 ○益母草, 搗其莖葉, 以傳疔腫, 服其汁, 使疔腫內消.

구생탈명단을 복용한다. 이 약이 없으면 인동주를 밤낮으로 복용한다. 더불어 추정탈명탕을 복용한다. 정창의 증상이 있는 데다 한과 열이 왔다 갔다 하고, 몸의 반쪽에 감각이 없어지고, 구토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통증이 심하여

심장까지 조이는 듯하면, 매우 위중한 상태로 3, 5일 사이에 죽는다. 급히 작은 칼로 정창의 뿌리를 갈라 피가 나오는 대로 모두 빼낸다. 만약 정창이 서너 곳에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는 크게 해가 되지 않으니 앞의 치료법대로 하면 된다. 체격이 건강하고 튼실한 사람은 칼 모양의 침으로 창의 주변 전체를 찔러 피를 많이 빼서 독기를 내보내고, 종기가 생긴 위치가 속한 경락을 침으로 찔러 서습(暑濕)을 내보내고, 풍한과 방사, 술과 고기 및 불고기, 마늘이나 호초 같이 매운 것, 기름지고 느끼한 것, 차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안식향, 사향, 화로의 불기운을 피해야 한다. ◦익모초를 찢은 다음, 줄기와 잎은 불이고 즙을 마시면 정창이 사그라든다.

內服追疔奪命湯, 外用飛丹, 白礬, 火上熬和碾末, 雞子清調敷之. ◦螻蛄蟲擣爛, 敷瘡上, 能拔疔根. ◦蒼耳艸, 野菊花二味, 擣汁和酒服之, 微醉, 患處以衣覆之, 睡一時, 痛定熱除矣. ◦疔瘡頭陷, 碧綠色者, 不可用針刀出血, 略挑開壓, 付入益母草灰, 又擣益母草汁服之. ◦日久潰爛者, 不可用針出血, 只以【金+縻】刀割去腐肉, 以益母草灰付之. ◦疔瘡生根入腹者便死, 用磨針刀鐵漿水一碗, 絲綿濾淨, 銀窩內煎三四沸服之, 病者須臾腸鳴行利一二次, 甦醒方可.

안으로 추정탈명탕을 복용하고, 밖으로는 단약과 백반을 불에 녹인 다음 막장에 갈아 가루를 만들어 계란의 흰자와 섞어 붙인다. ◦창이풀과 야국화 두 가지를 찢어 즙을 내어 술과 섞어 복용한다. 약간 취기가 올라오면 환부를 옷으로 덮어 주고 한참 잠을 자며 통증이 멎고 열이 내린다. ◦정창의 끝부분이 꼭 꺼지면서 질푸른 색을 띠면 침으로 찔러 피를 내서는 안 된다. 단지 칼 모양의 침

으로 피를 내고 적당히 파내어 꺼진 부분을 절개하고 익모초 재를 붙여 안으로 밀어 넣는다. 그리고 익모초즙을 복용한다. ○시간이 지나 문드러지고 흐물흐물 해지면 침으로 피를 내서는 안 되고, 칼로 썩은 살만 도려내고, 익모초 재를 붙인다. ○정창의 뿌리가 배까지 들어가면 죽는다. 침이나 칼을 간 후 나오는 철장수 한 사발을 고운 비단에 거른 다음 은그릇에 담아 3, 4번 끓게 한 다음 마신다. 환자의 배에서 장명이 들리고 한두 차례 설사하면 바야흐로 소생할 수 있다.

○疔瘡不破, 則毒入腸胃, 惟蟬殼極效, 以一兩爲末, 蜜調下 ○黑雲膏, 蒼耳艸, 連莖葉子, 俱用燒灰, 用蠟月豬脂, 研爛成膏, 用厚皮紙, 攤貼瘡上, 其根自出 ○蟾舌膏, 用蝦蟇舌一個研爛, 用紅絹片攤貼, 其根自出 [蟾肚皮代絹爲妙] ○用拔疔散 [方見下] ○凡疔瘡發於頭面上者, 切不可用冷藥敷之, 若敷冷藥, 趕熱毒, 惡淚之氣, 入于喉間, 斷不能生矣 ○火疔, 其狀如湯火燒灼, 瘡頭黑靨, 四邊有烟漿, 又如赤粟米者, 忌火燒烙.

○정창이 끓아 터지지 않으면 독이 위와 장으로 들어간다. 오직 설했만이 효과가 지극히 좋으니, 설했 1냥을 가루 내어 꿀에 섞어 복용한다. ○흑운고, 창이초를 줄기와 잎까지 함께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운 다음, 납월에 잡은 돼지의 기름으로 잘 섞어 고를 만든다. 이어 두꺼운 종이에 잘 펴서 정창에 붙인다. ○섬설고: 두꺼비 혀 하나를 잘 으깨어 붉은 비단에 발라 붙이면, 정창의 뿌리가 저절로 나온다 [두꺼비 배의 껍질을 비단 대신 사용해도 신기한 효과가 있다] ○발정산을 사용한다 [처방은 다음에 나온다] ○무릇 정창 중에 머리와 얼굴에 나오는 것은 절대 찬 약을 붙여선 안 된다. 만약 찬 약을 붙이면 열독과

아주 나쁜 기운을 인후부로 몰아넣는 것이니, 절대 살아날 수 없다. ◦화정(火疔)은 상태가 뜨거운 국물로 지진듯하고, 부스럼의 끝부분이 검은색을 띠며 폭함몰되어 있고 주위가 담배의 색과 같은 진물이 나거나, 또는 붉은 쌀같이 생겼으면, 불로 지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人糞塗胞上, 艾灸至有聲 ◦馬齒莧, 和梳垢爛擣付疔上, 根出 ◦野人乾燒存性, 醋調付之 ◦蟪蛄割付 ◦酸漿付之 ◦潰則白粥浸之 [排膿去惡神效, 李魯城所傳之方也]
◦桑灰, 水浸之 ◦拔根, 如治背疽法 ◦久而不愈, 用攻瘍丹

인분을 여드름 위에 바르고 소리를 지를 정도까지 땀을 뚝뚝 ◦마치현을 빗에 붙은 때와 함께 잘 으깨어 부스럼 위에 붙이면 뿌리가 제거된다 ◦야인건, 즉 인분을 성질 보존될 정도로 태워 식초에 타서 붙인다 ◦제조를 칼로 갈라 붙인다 ◦파리를 붙인다 ◦창이 문드러지면 흰죽에 담근다 [고름을 제거하고 나쁜 것을 없애는 데 실효하다. 이노성(李魯城)이 전해준 처방이다] ◦뽕나무 잣물에 담근다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배저(背疽)의 치료법을 그대로 쓴다 ◦오래 되어도 낫지 않으면 공양단을 쓴다.

† 加筆 가필

- 白粥浸之, 去惡止痛 ◦生鼠捉之, 刻開付之. 吸膿去根止痛神效.
- 흰죽에 담그면 나쁜 게 없어지고 통증이 멎는다. ◦살아 있는 쥐를 붙잡아 껍질을 벗겨 붙인다. 고름을 빨아 빼주면, 뿌리를 제거하고 통증을 멎게 하는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

1. 危 : 𠄎 尤 ※《瘡瘍經驗全書》↩

2. 去 : 𠄎 ※《醫部全錄》↩

3. 疔 : 𠄎 釘 ※《瘡瘍經驗全書》↩



瘍醫微 卷之二 양익미 제2권

謂矣齋 編 위의재 편



咽喉

인후

總論 총론

夫纏喉風, 屬痰熱, 咽喉裏外皆腫者是也. 外面無腫者, 必身發熱面赤, 此乃熱毒之氣極也. 外面有腫者, 身亦發熱, 邪火發外之原也, 或牙關不強, 外面不腫, 但喉中紅者, 日暴感熱在心. 如左邊病, 退傳右邊, 此餘毒未盡故也.

대개 전후풍은 담열이 원인이고 목구멍의 안팎이 모두 붓는다. 얼굴에 겉으로 드러나는 붓기는 없는 경우라도 필히 몸에 열이 나고 얼굴이 벌겋게 되는데, 이는 열독의 기운이 매우 심해서 생긴다. 얼굴에 겉으로 붓기가 드러나면서 몸 전체 역시 열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쁜 화(火)가 겉으로 나오면서 유발하는 증상이다. 혹은 아래턱과 위턱을 제대로 악물지 못하고, 겉으로는 붓지는 않고 단지 목구멍 안에 선홍색이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폭염에 감촉되어 열이 심장에 쌓였기 때문이다. 왼쪽에 증상이 있다가 병이 나으면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이는 아직 여독이 남아 있어 그러하다.

咽喉有數症, 有積熱, 有風熱, 有客熱, 有病後毒未除, 變化雙乳蛾者, 且如病中喉間有腫紅色數日, 其光似鏡者, 此積熱也. 且如喉中有腫, 其色微白, 其形若臂者, 此風毒喉痺也, 此熱毒因而感風相搏而發故也. 或咽中有腫, 其色帶紫色者, 此乃客熱.

謂其人暴感熱毒之氣，壅塞喉間，須用木通，玄參，生地黃，黃芩，黃連，山梔仁，瀉心經之火爲要。或有傳變木舌者，皆心熱蘊積於胸中，故口中痰臭，服劑以涼膈爲要。

搯¹藥，以冰片散佐之，或用小靡刀點之以出紫血。

인후의 병은 여럿 있는데, 풍열, 객열, 병을 앓고 난 후 여독이 가시지 않아 쌓여 유아가 된 것이 그런 것들이다. 병을 앓고 있는데 목구멍 사이가 부으면서 선홍색이 수일이 지속되면서 빛나기가 마치 거울과 같으면 이는 적열이다. 목구멍 안이 붓고 색이 약간 희면서 형태가 마치 어깨 모양이면 이는 풍독후비(風毒喉痺)로서, 열독으로 시작하여 열과 풍이 뒤엉켜 서로를 악화시켜 생긴다. 혹 목구멍 안에 종기가 있으면서 색이 자줏빛을 띠면, 이는 객열이다. 사람이 갑자기 강한 열독에 노출되면 독이 목구멍 사이에 들러붙는다고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목통, 현삼, 생지황, 황금, 황연, 산치자와 같은 심경의 화를 내리는 약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혹시 목설(木舌)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심열이 흥중에 몰려 쌓였기 때문으로 입안에 구취가 난다. 흥격을 시원하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적으로 빙편산을 바른단. 혹은 작은 칼로 찔러 검붉은 피를 뺀다.

或風毒喉痺，內外俱腫，其故何也？風毒之氣，結於喉間，則壅塞喉間，乃風毒與痰相搏故也。素問云，無風則不動痰，無痰則不受風，風痰相搏，結塞咽喉，其外症，咽喉形如鷄子大，其色微白，外面腮上有腫，其形似瘡，身發寒熱，牙關緊強，語聲不出者是也。先用蠶汁加玄明粉，或蜜湯採取其痰，急服荊防消毒散。牙間腫處紫血，用小刀點破，即用冰片散吹之，無不效驗。

간혹 풍독으로 후비가 생겨 목구멍의 안팎이 모두 붓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 까? 풍독의 기운이 목구멍 사이에 엉겨 붙으면 목구멍 안이 막히는데, 풍독과 담이 서로 뒤엉키기 때문이다. 《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풍이 없으면 담도 움직이지 않고, 담이 없으면 풍도 맞지 않게 된다. 풍과 담이 서로 뒤엉켜 목구멍에 들러붙으면, 목구멍의 모양이 계란 크기로 부풀어 오르고 약간 희미한 색을 띠며, 외부로는 땀이 부으면서 부스럼 모양을 띠고 몸에 한열이 왔다 갔다 하고 이를 악물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다. 먼저 채소즙에 현명분을 넣거나 혹은 꿀물을 사용하여 붙어 있는 담을 긁어내고, 급히 형방소독산을 복용한다. 이빨 사이가 부으면서 검붉은 피가 보이면 작은 칼로 찔러 피를 뽑아 내고, 즉시 빙편산을 붙여넣어 주면 효과가 없는 적이 없다.

口內諸證 구내 제증

單乳蛾, 左畔虛陽上攻, 其腫微紅者, 若肺氣外症, 手足厥冷, 痰涎自出, 頭重目昏, 急用薺菜酸汁加玄明粉灌之, 旋去痰涎, 卽吹冰片散, 再服蘇子降氣湯, 二陳湯, 甘桔湯. 如厥重不省人事, 氣欲絕者, 急以茱萸研爛, 酸醋調塗腳心.

단유아(單乳蛾)는 좌측 반쪽을 허양(虛陽)이 치받아 그 부위가 붓고 약간 선홍색으로 변한다. 폐기에 이상이 생겨 수족이 차고, 가래가 저절로 생기고, 머리가 무거우며 눈앞이 캄캄해지면, 급히 냉이의 신맛 즙 [薺菜酸汁] 에 현명분을 더하여 흘려 넣어준 다음 휘저어 가래를 제거한다. 그리고 즉시 빙편산을

불어넣고, 소자강기탕, 이진탕, 감길탕을 복용한다. 만약 곁증이 심해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려 하면, 급히 오수유를 잘 갈아 으갠 다음 시원한 식초를 사용하여 족심에 바른단.

雙蛾風, 此症有兩枚在喉間兩邊如豆大, 急將黃蠶汁, 蜜少許, 玄明粉, 漱出風痰, 仍服當歸連翹散, 雄黃化毒丸七丸, 茶清送下, 次用冰片散, 吹入數次立效, 後服當歸連翹散.

쌍아풍(雙蛾風)이 있으면, 목구멍 좌우 가장자리에 콩만한 덩어리가 두 개 생긴다. 급히 황제의 즙 [黃蠶汁], 꿀 약간, 현명분을 입에 머금어 풍담을 내보낸다. 그리고 당귀연교산을 복용하고, 옹황화독환 7알을 맑은 찻물로 삼킨다. 재차 빙편산을 여러 차례 불어넣으면 바로 효과가 난다. 그리고 이어 다시 당귀연교산을 복용한다.

牙癰, 牙邊生瘡者如豆大, 此脾胃二經火也, 宜用小刀點破之, 搽以冰片散, 再服清胃湯, 甘桔湯.

아옹(牙癰)이 생기면 치아주위에 콩알만 한 크기의 종기가 생긴다. 이는 비위 경의 화로 인해 생긴다. 작을 칼로 찌어 주고, 빙편산을 뿌려준 다음, 재차 청위산이나 감길탕을 복용한다.

舌微黃, 右畔虛陽上攻, 其色微黃, 其形若蠶蠶, 故謂之乳蛾, 其症亦手足厥冷, 治法同前. 倘腰痛加乾薑, 赤芍藥.

설미황(舌微黃)이 생기면 목구멍 오른쪽 반으로 허양(虛陽)이 치밀어 올라와 혀의 색이 노란색을 약간 띠게 되며, 형태가 누에고치 같아 유아(乳蛾)라고 일컫는다. 역시 수족이 찬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는 앞서 나온 대로 한다. 갑자기 허리통증이 있으면 건강과 적작약을 더한다.

酒毒喉痺, 其形若雞子, 其腫紅, 其光如鏡, 外症發熱惡寒, 頭痛項強, 此上焦積熱, 心脾受之. 蓋心脾二經, 主上焦, 宜服粘子解毒湯, 治法同前.

주독후비(酒毒喉痺)가 생기면, 형태가 마치 계란 같고, 선홍색을 띠며 붓고 마치 거울같이 빛난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열이 나고 으슬으슬 추우며, 두통과 목덜미가 뻐뻐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상초에 열이 축적되어 심장과 비장이 영향을 받아 그러하다. 대개 심장, 비장 2경이 상초를 주관하니 복점자 해독탕을 복용하는 게 마땅하며, 치료는 앞의 방법을 그대로 쓴다.

風毒喉痺, 外赤腫, 內腫微紅帶白色, 其形似蒸餅, 連腮腫痛, 外症身惡寒而無熱, 腮頰浮腫, 牙關緊強, 此乃風痰相搏, 結塞喉間, 治法必以去痰爲主, 吹藥吹之. 若外面腫紅, 用圍藥敷之, 中留一大孔, 再潤之, 以助藥力.

풍독후비(風毒喉痺)가 생기면, 겉으로 붉게 붓고, 안쪽으론 약간 선홍색에 흰색 기운도 같이 나타나면 살짝 붓는다. 형태는 찐 떡 모양이고 뺨까지 이어져 붓고 아프다. 겉으로는 몸에 오한이 생기나 열은 없고, 뺨이나 턱까지 붓고, 이를 악문다. 이러면 바로 풍담이 서로 엉겨 싸우다 목구멍에 들러붙은 것이다. 치료법은 반드시 담을 제거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붙어넣는 약 [吹藥] 을 불

어넣는다. 만약 얼굴 외면이 선홍색을 띠면서 부으면 붙이는 약 [圍藥] 을 붙인다. 가운데 큰 구멍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붙여 촉촉하게 해주어 약의 힘을 도와준다.

風熱喉痹, 其腫紅而微紫, 其形如拳, 其人面赤而目上視, 外症壯熱惡寒, 儼若傷寒, 此病人久積熱毒, 因而感風所致. 如病人聲音不響, 宜用潤肺之藥.

풍열후비(風熱喉痹)가 생기면, 선홍색에 약간 자주색을 띠면서 붓고 형태는 주먹 모양이다. 환자의 얼굴이 붉으며 눈을 치켜뜬다. 겉으로는 심한 열이 나고 오한이 있어 마치 상한 같아 보인다. 이 병은 환자가 오랫동안 쌓인 열독이 있는 데다 풍을 맞아 생긴다. 환자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마땅히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을 써야 한다.

腮毒喉癰² 其腫黃, 其血黑, 其形若臂, 其腫若坎, 外症面赤, 目睛上視, 此乃熱毒傷於心脾, 氣通於口, 循環上下, 故咽喉痛. 治法先取其痰, 次用冰片散乾吹, 鼠粘子湯多加乾姜, 天花粉, 黃連, 山梔仁, 連翹, 玄參, 桔梗, 枳殼.

주독후비(酒毒喉痹)가 생기면, 부위가 노란색을 띠며 붓고 피의 색이 검다. 형태는 어깨 모양을 보이고 부은 부위가 구덩이같이 파여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동자를 위로 치켜뜬다. 이 병은 열독이 심장과 비장을 손상하여 생긴다. 기(氣)가 입을 통해 위아래로 순환하기 때문에 인후통이 생긴다. 치료법으로 먼저 가래를 제거하고 이어 마른 빙편산을 붙여 넣는다. 서점자탕에 건강, 천화분, 황란, 산치인, 연교, 현삼, 길경, 지각을 많이 넣어 쓴다.

陰毒喉痺, 腫如紫李, 見黑色, 其色光血紅可治, 陰毒血黑不治. 外症惡寒, 其身潤動振, 腰痛脚冷, 此冬月感陰濕火邪相干也. 其血微紅及腫處軟, 喉中有痰, 可治. 血紅黑甚, 腫硬喉乾, 難治. 先服五福化毒丹, 次以蘇子降氣湯, 再次冰片散, 一月之內戒酒.

음독후비(陰毒喉痺)가 생기면, 자두 모양으로 붓고 검은색을 띤다. 부은 형태가 반들반들 빛나고 피가 선홍색을 보이면 치료할 수 있고, 음독(陰毒)으로 피가 검으면 치료할 수 없다. 겉으로는 오한을 나타내고 몸에 근육 떨림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차다. 이것은 겨울에 음습(陰濕)과 사화(火邪)가 들어와 서로 엉겨 붙어 싸워 생긴다. 피의 색이 약간 선홍색을 띠고 부은 부위가 말랑말랑하고, 목구멍에 가래가 끼어 있는 상태라면 치료가 가능하다. 피가 심히 검은색을 띠고 부은 부위가 딱딱하고 목구멍이 말라 있으면 치료가 어렵다. 먼저 오복화독단을 복용하고 이어 소자강기탕을 복용한다. 그리고 빙편산을 불어넣는다. 1개월 동안 술을 피한다.

纏喉風外症, 此症外面症, 如蛇纏頸, 身發潮熱, 頭目大痛, 其腫紫糖色. 依總論治之前, 吹藥內, 加雄黃, 腦麝, 服荊防粘子二陳湯. 急用鵝毛蘸燈窩濁油, 攪去痰涎三四碗, 方活. 如痰不能去, 難生矣. 須避風.

전후풍외증(纏喉風外症)은 외면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말한다. 마치 뱀이 목을 휘감는 듯하며, 몸에 조열(潮熱)이 생기고 머리와 목이 심하게 아프며 머리와 목의 부은 부위가 자줏빛 엷 색깔을 띤다. 일반적 치료법을 쓰기 전에 취약에 웅향, 사향을 더한 다음 불어넣어 주고, 형방점자이진탕(荊防粘子二陳湯)을

복용한다. 등간의 파인 곳에 모인 탁한 기름에 거위 털을 담갔다가 이것으로 가래를 3, 4그릇 끌어내면 바야흐로 회복된다. 가래를 제거할 수 없으면 살리기 어렵다. 반드시 바람을 피해야 한다.

纏喉風內症, 其腫紅線白色, 腫塞不見咽下, 外症身發寒熱頭痛.

전후풍내증(纏喉風內症)은 부어오른 부위에 붉은 선이 나아있고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며, 부은 부위가 막혀 삼킬 수 없다. 증상으로 한열(寒熱)이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아프다.

纏喉風, 此病因腎經有熱, 內枯不能上潤, 致令心火盛, 故發此症, 服敗毒散, 其探吐法在前.

전후풍(纏喉風)은 신경(腎經)에 열이 있어 안으로 건조하게 말라버려 상부를 축축이 적셔주지 못해, 심화가 왕성하게 되어 생긴다. 패독산을 복용하고, 토하게 하는 법은 앞부분에 나온다.

啞瘡喉風, 此啞瘡者, 風痰犯於咽膈之間, 以此口不能言, 牙關不開, 急用蟾酥磨水, 滴入鼻中即開, 隨用桐油滴入喉中, 仍將鵝毛攪喉間, 風痰出盡, 再用甘艸湯, 解桐油之氣, 即用冰片散吹之, 更服荊防敗毒散, 連進三服, 如面紫舌青脣黑, 鼻流冷涕, 爪甲俱青, 眼中多淚, 不可治.

아장후풍(啞瘡喉風). 여기서의 아장은 풍담(風痰)이 목구멍과 흉격 사이에 침범하여 말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를 악무는 것이다. 급히 뚜꺼비독 [蟾酥] 을 물에 타 코안으로 넣어주면 즉시 목구멍이 열린다. 이어 오동나무 씨 기름을 목구멍 안으로 흘려 넣어주고, 이어 거위 털로 목구멍을 휘저으면 풍담이

모두 배출된다. 다음으로 감초탕으로 오동나무 씨 기름의 기운을 중화시킨다. 즉시 빙편산을 붙여넣어 준다. 그리고 형방패독산을 연이어 3번 복용한다. 열굴에 자줏빛이 나고 혀가 푸르며 입술이 검게 변하고, 찬 콧물이 나오고 손발톱이 모두 푸르며 눈곱이 많이 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弄舌喉風, 此症啞不能言, 舌出常將手拿. 急將兩手大指側爪甲縫, 用三稜針, 每指刺三針, 有血可治, 無血不治. 若針小商穴亦妙. 用銅匙排開口, 用膽硝丹吹入喉中, 燈窩內油脚, 再用鵝翎蘸攪出痰涎, 仍服雄黃化毒丸七丸, 茶清送下, 後服疏風甘桔湯, 再用冰片散頻吹之.

농설후풍(弄舌喉風)이 생기면, 목이 쉬어 말이 나오지 않고 혀가 축 늘어져 손으로 잡아 넣어주어야 한다. 급히 양손의 엄지 측면 모서리를 삼릉침으로 3번 찌러준다. 피가 나면 치료할 수 있다. 소상혈(小商穴)에 침을 놓아도 역시 효과가 좋다. 구리 수저로 입을 벌리고 담초단(膽硝丹)을 목구멍으로 붙여넣고, 등잔에 낀 기름 찌꺼기에 거위 깃털을 한번 담갔다가 이것으로 가래를 긁어 빼낸다. 이어 웅황화독환 7알을 찻물에 삼킨다. 이어 소풍감길탕을 복용한다. 다시 이어 빙편산을 여러 번 붙여넣는다.

氣癰喉閉, 此症爲因聚毒塞於喉間, 痰涎稠實, 發寒熱者, 仍分上中下三關, 毒在下關者難治, 上中二關, 用吹喉藥, 吹數次, 茶湯送下雄黃化毒丸七丸, 然後服參苓順氣散.

기옹후폐(氣癰喉閉)은 독이 한곳으로 몰려 목구멍을 막고 가래가 걸쭉하고 한열이 생기는 병이다. 상중하 3부분으로 구분하여 독이 아래 하부에 있으면 치료가 어렵다. 상, 중부에 있으면 취약을 몇 차례 붙여넣어 주고 찻물에 웅황화

독한 7알을 삼키고 다시 삼령순기산을 복용한다.

噙食喉風, 此症因熱毒在心經, 咽喉燥而無痰, 若噙食者不可治, 服川桔散. 如落心肺間刺痛者, 仍用當歸連翹散加大黃利下. 如久不治, 變爲飛絲勞毒, 能傷人命.

창식후풍(噙食喉風)은 열독이 심경에 쌓여 목이 마르고 가래는 없는 병이다.

만약 사례 [噙食] 까지 나타나면 치료가 안 된다. 천길산을 복용한다. 낙상을 입은 듯 심장과 폐장 사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당귀란교산에 대황을 넣어 여러 차례 설사를 시킨다. 오래되어도 낫지 않으면 비사노독(飛絲勞毒)으로 변한 것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脚根喉風, 此症脚根發起, 至於喉間, 或一年發一次, 半年發一次, 切忌熱物, 不得傷於怒氣, 其病一日行一穴, 至七日行七穴, 雖然不妨, 只是要發用吹喉藥, 仍服敗毒散. 如腥惡發泡者死.

각근후풍(脚根喉風)은 발뒤꿈치에서 시작하여 목구멍 사이까지 올라오는 병이다. 일년에 한번 발병하기도 하고 반년에 한번 발병하기도 한다. 절대 뜨거운 것을 먹으면 안 되고 화를 내어서도 안 된다. 병이 생기면 하루에 1혈씩 이동하여 7일에 7혈을 이동한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취약을 붙여넣는다. 그리고 패독산을 복용한다. 만약 비린내와 같은 악취가 나고 물집이 생기면 죽는다.

喉閉, 此症因外感寒邪, 內傷熱物, 或大寒後便入熱湯洗, 故將寒氣逼入脾經, 冷氣阻於中脘, 邪氣熱客於心經, 故生此疾. 急用三稜針, 刺手腕紫筋上, 或少商穴出血, 却將雄黃化毒丸, 冷茶磨化灌之, 仍將冰片散吹入喉中, 待漱出風涎稠痰爲愈, 更服

八正順氣散, 後服玉樞丹.

후폐(喉閉)는 외감 한사(寒邪)로 있는 상태에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내상이 겹쳐지거나, 혹은 추위에 매우 심히 떨다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여, 냉기가 중완(中腕)에 멎쳐 나쁜 열이 심경으로 들어와 생긴다. 급히 삼릉침으로 손목 부위에 있는 자주색 근육을 찌르거나 소상혈에서 피를 내준다. 그리고 옹황화독환을 찬 찻물에 풀어 조금씩 입에 넣어 넘기게 한다. 이어 입을 행구어 이때 침과 가래가 같이 나오면 낫는다. 다시 팔정순기산을 복용한 다음 옥추단을 복용한다.

傷寒喉閉, 此症傷寒遺毒不散, 致八九日後喉閉, 皆因熱毒入於心經脾經, 急服四七氣湯三貼, 次用冰片散, 後服蠲毒氣流氣飲.

상한후폐(傷寒喉閉): 상한의 여독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8, 9일 후에 후폐가 된다. 대개 열독이 심경과 비경으로 침입한 것인데, 급히 사칠기탕 3첩을 복용하고 이어 병편산을 쓰고, 뒤이어 견독기류기음을 복용한다.

喉腫, 此毒起於脾經, 因食煎燂油膩等物及飲酒太過而行房事, 以致毒氣不能流行, 聚結於喉根. 若不速治, 潰毒閉急即死, 治法先用醋水蘸汁攪去痰涎, 即用吹喉藥吹數次, 後服八正順氣散.

후종(喉腫)은 비경에서 시작된다. 끓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음주를 지나치게 하고 성생활을 하여, 독기가 순조롭게 흩어지지 않고 목구멍의 뿌리에 모여 맺혀 생긴다. 만약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독이 문드러지면서 목구멍을 막

아 즉사한다. 치료는 먼저 신맛의 절인 채소즙을 찍어 문혀 목구멍을 휘저어
침과 가래를 제거한다. 즉시 취약을 몇 차례 붙어넣고 이어 팔정순기산을 복용
한다.

喉節, 此症生於鳩尾之中, 初起如³梅核在喉膈之間, 吐不出嚥不下, 至三日漸⁴喉
節之間, 名爲喉節, 其疾須用刺破後, 用膽硝丹吹入喉中, 再用雄黃化毒丸吞下七丸,
仍用四七氣湯連進五服, 再用冰片散吹之.

후절(喉節)은 명치에서 시작된다. 초기에는 목구멍과 횡격 사이에 매핵기가
생긴 것 같아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다가, 3일이 되면 점차 목
구멍과 성대 사이로 올라오면 후절이라 부른다. 이 병이 생기면 먼저 찔러 깨
뜨리고 이어 담초단을 목 속으로 붙어넣는다. 그리고 다시 옹황화독환 7알을
삼킨다. 뒤이어 사칠기탕을 연속해서 5회 복용한다. 다시 빙편산을 붙어넣는
다.

喉癰, 此毒因喜怒憂思悲恐驚, 以傷七情鬱結, 成癰毒生喉間. 若不速治, 恐毒氣內
攻喉骨. 若出⁵必致口內出膿, 雖不傷命, 卽成冷癰, 終身之痼疾也. 用十奇散治喉節,
初起有膿卽散破, 用內補散, 外用金絲膏貼之, 吹藥同前.

후옹(喉癰)은 희로우사비공경(喜怒憂思悲恐驚)의 칠정이 한군데 뭉치어 종기
의 독이 목구멍 사이에 생긴 것이다. 만약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독기가 안으
로 울대뼈를 공격한다. 혹 곱아 터지면 필히 입으로 고름이 흘러나오지만 그렇
다고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는다. 다만 바로 냉루(冷癰)가 되어 평생 고질병이
된다. 십기산을 써서 후절을 치료한다. 초기에 고름이 나오면 바로 터뜨려 제
거한다. 내보산을 쓰고 밖으로 금사고를 붙인다. 취약은 앞의 방법대로 한다.

喉瘤, 生於喉間兩旁, 或單或雙, 形如圓眼大, 血絲相裹如瘤, 故名之. 此症肺經受熱, 多語損氣, 或怒中高喊(口+感), 或誦讀太急, 或多飲燒醞酒, 或多噉炙煖物. 犯之即痛, 不犯不痛, 須要斂神晏息, 以藥攻之, 則此疾脫落矣, 不可用刀點破. 內服益氣疎風湯, 外用麝香散, 日夜吹之. ○一人口內生肉毬, 有根線長五寸餘, 吐毬出, 方可飲食, 以手輕捻, 痛徹至心. 煎劑同前, 再用真麝香二錢, 分二次, 水調服之, 或用麝香散三日, 根化而愈. ○一人咽喉間生肉, 層層相疊, 漸漸腫起, 有孔出臭, 用臭枸橘葉⁶煎, 頻服之而愈.

후류(喉瘤)는 목구멍 양 측면에 생기며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쌍으로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다. 형태는 눈동자 크기의 원 모양으로 실핏줄이 서로 싸고 있어 혹 [瘤] 처럼 보여 후류라 부른다. 이 병은, 폐경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여 기를 손상시키거나, 크게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거나, 암송을 너무 급하게 하거나, 독한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생긴다. 환처를 건드리면 아프고 건드리지 않으면 통증이 없다.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약으로 공격하면 아픈 부위가 바로 떨어져 나가니 칼을 사용해서 찢을 필요가 없다. 안으로 익기소풍탕을 복용하고, 밖으로 사향산을 밤낮으로 붙여 넣는다. ○어떤 사람이 입안에 공모양 살덩어리가 생겨, 뿌리가 있고 선처럼 5촌이 넘게 늘어나 있었는데 덩어리를 토하여 뱉어내니 바야흐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손으로 가볍게 꼬았더니 통증이 심하여 심장까지 이어지는 듯이 느껴졌다. 탕약은 앞에 나온 처방을 그대로 쓰고, 재차 진사향 2돈을 둘로 나누어 물에 타서 복용한다. 또는 사향산을 3일에 걸쳐 쓰면 뿌리가 저절로 사라지고 낫는다. ○어떤 사람이 목구멍에

살덩어리가 여러 겹으로 생겨나면서 부어오르기 시작하였고, 구멍이 파이더니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냄새가 나는 탕자나무 잎을 다려 자주 복용하니 나아왔다.

懸癰, 此毒生於上腭, 形如紫李, 墜下抵舌, 其人口不能言, 舌不能伸, 頭不能低, 仰面而立, 鼻中時出紅涕. 若不速治, 毒入腦即死. 用銅匙挑開口, 竹批針破癰頭, 用鹽湯攪淨. 血出盡, 用冰片散吹入患處, 閉口以待, 藥化自然嚥下, 連吹三五次, 仍服荊防敗毒散, 再服雄黃化毒丸三丸, 冷茶清下.

현옹(懸癰)은 상악에 생기는데, 형태는 자줏빛 자두 모양으로 아래로 축 처져 혀에 닿는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고, 혀가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머리를 굽힐 수도 없어 얼굴을 위로 들고 서 있어야 하며, 시시때때로 코에서 선홍색 콧물이 흐른다. 만약 빨리 치료하지 않아 독이 뇌로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구리 수저로 입을 꺾어 열고 대나무로 침을 만들어 종기의 꼭지 부분을 찌고 소금물로 잘 씻어준다. 피가 멎으면 빙편산을 환처에 붙여 넣고 입을 다물게 한 다음 기다린다. 약이 녹으면서 자연스레 삼키게 된다. 3, 5번 연이어 붙여넣는다. 이어 형방패독산을 복용하고, 다시 옹황화독환 3알을 찬 찻물로 삼킨다.

鎖喉瘡者, 心經毒氣, 小腸邪風, 發於聽會之端, 注於懸雍之側, 初生如瘰癧, 不能飲食. 閉塞難通, 漸次腫破化膿, 早治得生, 宜服當歸連翹散之類, 內用冰片散, 牛黃清心丸之類治之. 蛭蟪不拘, 以麝香冰片和擣搽之.

쇄후창(鎖喉瘡)은 심경의 독기와 소장의 나쁜 바람 [風] 이 청회혈에서 발생하여 현웅, 즉 연구개의 뒤쪽 가운데의 측면에 물려들어 생긴다. 처음에는 나력 같이 보이며 음식을 먹지 못한다. 막혀 통하지 못하여 점차 붓다가 터져 고름이 잡힌다. 빨리 치료하면 나을 수 있으니 당귀연교산과 같은 처방을 복용한다. 안으로 빙편산을 쓰고, 우황청심환과 같은 것으로 치료한다. 다소를 따질 필요 없이 있는 대로 연추(延螭)를, 사향, 빙편과 함께 으깨어 바른단.

上腭生瘡, 如黃粟, 口中腥臭, 外症爲手怕冷, 脚怯寒, 此脾經積熱也. 上腭屬脾, 脾氣通於口, 故脾經受熱, 則上腭生瘡也. 先用蚌水, 布蘸繳淨患處, 先服清脾降火湯, 再吹冰片散, 無不效. 又宜戒酒戒色. ○取蚌水法, 用蚌洗淨, 打碎取水. 另用濕綿布濾清, 若用夏布則夏布孔遇水即疎滑, 則蚌中馬蝗蟲竟在水碗矣. 遇△⁷口中將何處之? 其綿布孔遇水即緊密, 則蝗不能下, 故用之. 口喉之症, 屬太陽之火, 然蚌乃河中之物, 屬太陰之精, 故借水以濟火耳.

상악에 생긴 종기 [上腭生瘡] 는 누런 좁쌀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입안에서 비린내가 난다. 겉으로는 손이 굉장히 차고 다리도 또한 굉장히 시리다. 비경에 적열(積熱)이 있어 생긴다. 상악은 비장에 속하고 비기는 입으로 통하기 때문에 비경이 열을 받으면 상악에 창이 생긴다. 먼저 방합 조개 물 [蚌水] 에 삼베를 담가 환처를 씻어낸 다음, 청비강화탕을 복용하고 이어 빙편산을 붙여 넣는다. 효과가 없는 적이 없다. 그리고 주색을 삼간다. ○방합 조개의 물을 내는 법: 방합 조개를 깨끗이 씻고 깨뜨려 물을 얻는 다음, 따로 젖은 면포를 이용하여 맑은 물을 거른다. 만약 하포(夏布)를 사용하면 하포의 구멍이 물을 만나 성기고 커져서, 방합 조개 물속에 있던 마황충이 물그릇으로 떨어져 담긴다.

우연히 사람 입안으로 들어오면 어찌 처리하겠는가? 면포의 구멍은 물을 만나면 촌촌해지기에 황충이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이것을 쓴다. 입과 목구멍의 증상은 태양(太陽)의 화(火)에 속하고, 방합은 강에 사는 물건으로 태음(太陰)의 정(精)에 속하기에, 물을 빌려 화를 제어하는 것이다.

重脣症, 舌上生一瘡, 其狀若楊梅, 外症無寒並熱, 但作事煩心, 先以甘桔湯多加山梔, 後服黃連解毒湯, 再吹冰片散, 不宜用刀.

중악증(重脣症)은 혀 위에 창이 하나만 생기는 것으로 모양이 마치 양매(楊梅) 같다. 겉으로 한열의 증상은 없고 다만 뭔가 신경 쓰면 가슴에 번증이 생긴다. 먼저 감길탕에 산치자를 많이 넣어 쓰고, 이후에 황연해독탕을 복용한다. 이어 빙편상을 붙여넣는다. 칼을 사용해선 안 된다.

舌生瘡, 如黃粟, 外症怯寒而口張, 先用蚌水, 或田螺水, 或若茶繖淨, 然搽藥⁸, 次服鼠粘子解毒湯加山梔, 黃連. 口臭, 冰片吹藥內, 加入中白, 桔, 礬, 銅青, 黃連末吹之.

설생창(舌生瘡)은 누런 좁쌀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증상으로 매우 심하게 추위를 탄다. 먼저 방합 조개 물을 사용한다. 혹은 우렁이 물을 사용한다. 혹은 차로 잘 닦아 깨끗이 하고 난 후 약을 발라준다. 그리고 서점자해독탕에 산치자, 황연을 더하여 복용한다. 구취가 나면 빙편산과 같은 취약(吹藥)에 인중백, 길경, 백반, 동청, 황연의 가루를 더하여 붙여 넣는다.

重舌症, 舌下生一小舌, 其舌鮮紅, 外症頰下浮腫, 有硬核, 此心經受熱, 毒氣出於舌下. 先用紫雪糝上, 流出熱涎, 用小刀點紫黑處, 吹冰片散, 急服甘桔湯加山梔, 連翹, 生薑, 燈心之屬.

중설증(重舌症)은 혀 아래에 작은 혀가 하나 생기는 것인데, 작은 혀는 선홍색을 띤다. 겉으로 턱밑이 붓고 딱딱한 핵이 잡히는데 이는 심경이 열을 받아 독기가 혀 아래로 나오기 때문이다. 먼저 자설단(紫雪丹)을 뿌려 뜨거운 침을 빼준다. 작은 칼로 자흑색을 띠는 지점을 찌르고, 빙편산을 붙여넣는다. 급히 감길탕에 산치자, 연교, 생강, 등심과 같은 약재를 더하여 복용한다.

蓮花舌, 舌下生三小舌, 如蓮花狀. 舌乃心之苗, 心火上炎, 或思慮太過, 或火氣所傷, 或酒後當風取涼, 以致風痰相搏而成此症, 急用清涼解毒湯加減服之, 再吹冰片散. 如腫不散, 用小刀針出紫血.

연화설(蓮花舌)은 혀 아래 연꽃 모양의 작은 혀가 3개 생기는 것이다. 혀는 심장의 싹이기 때문에, 심화가 타오르거나, 혹은 생각이 과도하거나, 화기에 손상을 입었거나, 혹은 음주를 한 후 바람을 맞고 차게 굴면, 풍과 담이 서로 엉겨붙어 싸워 이 증상이 생긴다. 급히 청량해독탕에 가감하여 복용한다. 이어 빙편산을 붙여넣는다. 종기가 흩어지지 않으면 작은 칼로 찌서 검붉은 피를 낸다.

木舌症, 舌硬如穿山甲, 見人舌做一拳, 外症增寒壯熱, 語言蹇澀, 此心經受熱也, 以小刀點紫黑處, 煎藥內多加山梔. 山梔瀉火之要品也.

목설증(木舌症)은 혀가 천산갑같이 딱딱하고 혀가 마치 주먹처럼 보인다. 겉으로 심한 오한과 격렬한 발열이 있으며, 말을 더듬는다. 이 증상은 심경이 열을 받아 생긴다. 작은 칼로 검붉은 곳을 찌러주고, 탕약에 산치자를 많이 넣어 쓴다. 산치자는 열을 빼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약이다.

木舌乳蛾, 此症爲因心經熱毒, 或因酒後溫牀厚被, 以致熱氣攻心. 故生單蛾及舌脹而紫, 吐出風痰. 急用三稜針, 刺舌下金津玉液二穴, 及刺乳蛾, 俱破出血痰, 却用膽硝丹吹入喉中, 仍用荊防敗毒散, 雄黃化毒丸, 用茶湯送下, 吹藥同前. ○一婦人, 木舌脹滿口, 諸藥罔效, 以銚針砭之五七次腫減, 三日方平, 血出盈斗, 服藥同前.

목설유아(木舌乳蛾)는 심경의 열독이 원인이 되거나, 혹은 음주 후 뜨거운 방에서 두꺼운 옷을 입어 열기가 심장을 공격한 것이 원인이다. 단유아가 생기고 더불어 혀가 팽창하면서 자색을 띠고 풍담을 토한다. 삼릉침으로 급히 혀 아래의 금진(金津)과 옥액(玉液) 두 군데의 혈을 찌르고, 그리고 유아(乳蛾) 부위를 찔러 풍담을 빼낸다. 바로 담초단을 목구멍으로 붙여 넣는다. 이어 형방패독산을 복용하고, 우황화독환을 찻물에 넘긴다. 취약은 앞의 방법대로 한다. ○어떤 부인이 목설이 부풀어 올라 입안을 꽉 채웠다. 쓴 약이 모두 효과가 없었는데, 못 모양 침 [銚針] 으로 5, 7차례 찌더니 부종이 감소했고, 3일 지나니 평평해졌다. 피는 한 말 가득히 나왔다. 복용하는 약은 앞의 방법을 그대로 썼다.

舌忽脹大滿口, 以百草霜搽之, 卽服粘子解毒湯, 多加黃連, 連翹, 紫蘇梗, 或服黃連解毒湯, 并服牛黃清心丸. 如無百草霜, 以冰片散代之, 用銚刀刺之.

혀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서 커져 입을 가득 채우면, 백초상을 바르고, 즉시 점자해독탕에 황연, 연교, 자소 줄기를 다량 더하여 복용한다. 또는 황연해독탕을 복용하고, 동시에 우황청심환을 복용한다. 만약 백초상이 없으면 빙편산으로 대신한다. 못 모양 칼 [銚刀] 로 찌른다.

舌長三寸, 不能入口, 用巴豆仁三粒, 用竹紙包打去豆仁, 將此油紙撚成條, 火點薰之, 其舌聞烟即縮, 急服清脾降火湯, 再吹冰片散. ○一人傷寒舌出寸餘, 連日不收, 用梅花冰片糝舌上即收 [重者用五錢而愈] .

혀가 3촌씩이나 늘어나 입을 다물 수가 없으면, 파두의 인(仁) 3개를 죽엽지(竹葉紙)에 감은 다음 방망이로 친다. 파두의 인을 제거하고 이 기름먹인 죽엽지를 잘 꼬아 가지 모양으로 만들고 불을 붙여 훈증한다. 혀가 연기를 맞으면 수축한다. 급히 청비강하탕을 복용하고, 이어 빙편산을 붙여 넣는다. ○어떤 사람이 한에 상하여 [傷寒] 혀가 늘어나 1촌 정도 입 밖으로 노출되었는데 이틀이 되어도 줄어들지 않았다. 매화빙편을 혀 위에 뿌려주었더니 바로 수축하였다 [증상이 심하면 5돈을 사용하면 낫는다] .

舌縮無故, 舌縮不能言, 用芥菜子碾末, 醋調敷頸項下, 即時能言, 服清脾降火等湯, 再用紫雪, 冰片散吹之.

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축하여 말을 못하면, 겨자씨를 갈아 가루를 내어 초와 잘 섞은 다음 목과 목덜미 주위에 바른다. 그러면 즉시 말을 할 수 있다. 청비간화탕과 같은 처방을 복용하고, 여기에 자설(紫雪)이나 빙편산을 붙여넣는다.

舌上出血, 舌上忽出血如簪孔, 赤小豆一升杵碎, 水三碗, 和搗取汁, 每服一盞, 不拘時服. 槐花末糝舌上尤良.

설상출혈(舌上出血)로 혀에 구멍이 난 듯이 갑자기 출혈이 보이면, 적소두 1되를 절구로 빻은 다음 물 3대접 함께 잘 찼어 즙을 내어 매 1잔을 복용하되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괴화를 가루 내어 혀에 뿌리면 더욱 좋다.

虛牙, 此症齒屬腎經, 或風乘虛而入發腫, 或飲酒太過而腫, 或血虛而腫, 或剔傷而腫, 或房勞陰虛而腫, 治法宜以意詳症消息而治, 用嗽藥, 另服清胃湯, 玉池散.

허아(虛牙)는 치아가 신경에 속하기 때문에 생긴다. 치아가 풍(風)이 허(虛)를 타고 들어와 붓거나, 음주가 과도하여 붓거나, 혈허로 붓거나, 혹은 이를 쑤시다가 상처가 생겨 붓거나, 성생활을 과도하게 하여 붓는 증상이다. 치료할 때는 각각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치료해야 한다. 입에 머금은 약 [嗽藥] 을 쓰고, 별도로 청위탕, 옥지산을 복용한다.

牙【齒+宣】, 謂脾胃中熱涌而宣露也. 此症牙齒縫中出血, 上屬脾, 下屬胃. 吐血痰至斗, 深難療者, 宜速治, 遲則難生, 用蚌水灌淨, 後用吹藥, 服清脾抑火湯, 清胃湯. ○一人齒齦邊, 津液血不止, 苦竹茹四兩, 醋煮含嗽吐之.

아선(牙【齒+宣】)은 비위의 열이 넘쳐 잇몸이 주저앉아 뿌리가 드러나는 증상을 말한다. 이 병이 생기면 잇몸에서 피가 난다. 위 잇몸은 비장과 연결되어 있고, 아랫잇몸은 위장과 연결되어 있다. 피가 섞인 가래가 1되 되도록 토하면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다. 빨리 치료해야 하고 늦어지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먼저 방합물(蚌水)로 깨끗이 씻고 이어 취약을 붙여넣는다. 청비억화탕, 청위탕을 복용한다. ○어떤 사람이 잇몸 주위에서 진물과 피가 계속 나와, 고죽여(苦竹茹) 4량을 초에 넣어 끓인 다음 그 물을 입에 물었다 뱉었다 하였다.

† 加筆 가필

- 薄荷三錢, 吉更二錢, 甘草一錢, 水三甫兒, 煎至一甫兒半, 咽喉症, 無論單蛾雙蛾, 及凡屬口內諸瘡, 此藥神效. 薄荷用眞品, 吉更勿水浸勿去皮乾者.
- 박하 3돈, 길경2 돈, 감초1 돈, 물 3 보시기를 넣고 다려 1보시기 반으로 만든다. 쌍유아, 단유아를 막론하고 제반 인후증과, 입안의 제반 부스럼에 이 약을 쓰면 신표하다. 박하는 진품을 써야 하고, 길경은 물에 담그지 않은, 그리고 껍질을 제거하지 않는 마른 것이어야 한다.

喉痺 후비

服防風通聖散 ◦萬應膏含之 ◦五倍子煎湯含之 ◦鵬砂細嚼嚥津 ◦喉痺腫痛, 馬蘭根葉二兩, 水一升, 煎半細飲 ◦蟪蟪汁點喉中 ◦枯白礬末吹入 ◦用吹喉散 ◦五倍子燒薰 [以紙撚筒用之] ◦葶麻油蘸紙撚燒烟吸 ◦水銀燒薰.

방풍통성산을 복용한다 ◦만응고를 입에 머금는다 ◦오배자를 끓여 머금는다 ◦봉사를 잘게 씹어 침이 생기게 한다 ◦후비(喉痺)로 붓고 아프면 마린근(馬蘭根) 잎 2량을 물 1되로 다려 반이 되면 조금씩 삼킨다. ◦궁병이 [蟪蟪] 즙을 목구멍에 한 방울 떨어뜨린다 ◦고백반 가루를 붙여 넣는다 ◦취후산(吹喉散)을 사용한다 ◦오배자를 태워 연기를 쐬다 [종이로 통을 말아 사용한다] ◦피마자기름을 종이에 찍어 다음 태워 연기를 들이마신다 ◦수은을 태워 연기를 쐬다.

口舌瘡 구설창

服甘桔湯. ○五倍子煎含 ○薄荷葉煎含 ○黃柏含之 ○蛇莓艸汁稍稍嚥之 [口瘡] ○
薔薇根, 水煎含嗽, 治三十年口瘡連胸 ○口瘡, 西瓜和蜜常服 ○百草霜蜂蜜調塗 ○龍
石散糝之 ○口瘡不斂, 用生肌散 ○赴筵散糝之.

감길탕을 복용한다 ○오배자를 끓여 입에 머금는다 ○박하 잎을 끓여 머금는다
○황백을 입에 머금는다 ○뱀딸기 풀을 즙 내어 천천히 삼킨다 [구창(口瘡)] ○
장미의 뿌리를 물에 끓여 머금는다. 구창이 삼십 년이 되어 가슴까지 퍼진 것
도 치료한다 ○구창에 수박을 꿀과 잘 섞어 상시 복용한다 ○백초상을 꿀과 잘
섞어 바른다 ○용석산(龍石散)을 뿌린다 ○구창이 낫지 않으면 생기산을 쓴다
○부연산을 뿌린다.

1. 搯: 搯 搯 ※《瘡瘍經驗全書》↩

2. 靨毒喉痺: 靨 靨毒喉痺 ※《瘡瘍經驗全書》↩

3. 如: 如 於 ※《瘍醫大全、瘡瘍經驗全書》↩

4. 土: 土 上 ※《瘍醫大全、瘡瘍經驗全書》↩

5. 出: 出 ※《瘡瘍經驗全書卷一、후웅

潰 ※《瘍醫大全》↩

6. 枸橘葉: 탕자나무의 잎 ↩

7. 人：入※《瘡瘍經驗全書》↩

8. 然搽藥：然後搽藥※《瘍醫大全》↩



繭脣

견순

繭脣者, 此症生于觜脣也, 其形似蠶繭, 故名之. 《內經》云, 脾氣開于口. 又云脾之榮在脣. 但燥則乾, 熱則裂, 風則瞶, 寒則揭. 若腫起白皮皴裂如蠶繭, 故定名曰繭脣也. 始起一小瘤如豆大, 或再生之漸漸腫大, 合而爲一約寸厚, 或花如疙瘩. 如楊梅, 如靈芝, 如菌形狀不一, 皆由六氣七情相感而成, 或心思太過, 憂慮過深, 則心火焦熾, 傳授脾經, 或食醢酒厚味, 積熱傷脾, 而腎水枯竭以致之, 須審其病症之因, 惟補腎水生脾血, 則燥自潤, 火自除, 風自息, 腫自消矣. 若久不愈者, 急用金銀烙鐵燙之, 服歸脾養榮湯. 若婦人患此, 陰血衰少故也, 宜用四物逍遙散.

견순(繭脣)은 부스럼이 입술 주위에 생기며 형태가 누에고치 같아하여 이렇게 부른다. 《내경》에, 비기(脾氣)는 입으로 열린다고 하였고, 또한, 비장의 상태는 입술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만 건조 [燥] 하면 마르고, 뜨거우면 갈라지고, 바람이 있으면 근육이 떨어 [瞶], 추우면 살이 튼다 [揭]. 부으면서 흰 껍질이 트고 갈라져 누에고치같이 보여 견순(繭脣)이라 이름을 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콩만한 크기의 혹 [瘤] 과 같고, 또는 다른 것이 생겨나 점점 붓고 커져, 서로 합해져 크기가 1촌만 하게 되어, 모양이 뽕두라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양매, 혹 영지, 혹 버섯 모양을 하여 일률적이지 않다. 대개 육기(六氣)와 칠정(七情)이 서로 뒤섞여서 생기기도 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 생기기도 하고, 격정이 너무 심하여 생기기도 한다. 심화가 치성하여 그 화가 비경으로 전해진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독한 술과 고량진미를 먹어 쌓인 열이 비장을 손상

하고 이어 신수(腎水)가 말라 초래되기도 한다. 반드시 병증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다만 신수를 보하고 비장의 혈을 생성하여 주면, 건조한 것이 저절로 촉촉해지고, 화(火)가 저절로 제거되고, 풍이 저절로 사그라들어, 종기가 저절로 사라진다. 만약 오래되어도 낫지 않으면 급히 금과 은으로 만든 인두 [金銀烙鐵] 로 지진다. 귀비양영탕을 복용한다. 만약 부인이 이 병을 앓으면 음혈이 부족해서이니 마땅히 사물소요산을 쓴다.

烙鐵法, 不拘金銀打成烙鐵, 每用艾火燃燒通紅, 乘熱盪患上, 再燃再盪, 一日止可五六次, 恐傷元氣. 盪畢將除根搽藥搽之, 明日再用甘艸湯洗淨, 再烙如前, 以平爲度, 後用花蕊生肌散糝.

인두로 지지는 법 [烙鐵法] :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에 구애받지 말고 지지는 인두를 만들어, 매번 뜸속으로 벌겍게 달구어 열기가 있을 때 환부를 지지고, 다시 달구어 재차 지진다. 하루에 5, 6번은 넘기지 않는다. 원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기를 다한 다음에는 뿌리를 뽑기 위해서 바르는 약 [搽藥] 을 바른다. 다음날 다시 감초탕으로 깨끗이 씻고 재차 앞의 방법으로 지진다. 편평해질 때까지 지지며, 이후에는 화예생기산을 뿌린다.

脣腫色黑, 痛痒不可忍, 以磁針去血, 古文錢磨, 豬脂塗之. 〇脣瘡, 黃連水煎, 乘熱徐徐服. 八月藍汁洗不過三次. 又白蓮花瓣貼之.

입술이 붓고 검게 변하며 통증과 가려움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면 자석침으로 피를 내고, 옛날 동전을 갈아 돼지기름과 섞어 바른다. 〇입술에 부스럼이 생기면 황연 달인 물을 따듯할 때 서서히 복용한다. 8월에 쪽즙 [藍汁] 으로 씻되 3번을 넘기진 않는다. 또한 흰 연꽃의 꽃판을 붙인다.

脣腫, 果松節 [有脂者也, 會撮上小簪陳久者尤良], 火烘出脂熨之。○躡足火烘熨之。○蟻螬付之。○芝麻嚼付。○果松子嚼付。○夏布細嚼付。○青布剪條, 絢索燃火, 置斧斤上, 自然出津, 取津塗之。○蠅擣付。又人衣中蠅擣付之 [蠅蟲, 小兒脣腫, 尤良]。○青皮燒存性, 豬脂調付。○陰蛇退, 香油調付。○桑蟲 [桑樹有蟲狀如蟻螬者], 割半付之。

순종 [脣腫] 에는 소나무 마디 [기름이 있는 것, 마디에 작은 가지가 오랫동안 나 있던 것이 더욱 좋다] 를 불에 달구어 송진이 나오면 이것으로 찜질을 한다。○노루의 발을 불에 달구어 찜질을 한다。○굼벵이 [蟻螬] 를 붙인다。○검은깨를 씹어 붙인다。○소나무 열매를 씹어 붙인다。○모시를 잘게 씹어 붙인다。○청포 가지를 잘라 새끼를 꼬아 불을 붙여 도끼에 올려놓으면 자연히 진물이 나오는데 이 진물을 바른다。○파리를 으깨어 붙인다. 또한 사람 옷에 붙어 있는 이를 으깨어 붙인다(sm/파리와 이 [蠅蟲] 는 소아의 견종에 특히 좋다)。○청피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돼지기름으로 붙인다。○암컷 뱀의 허물을 참기름과 섞어 붙인다。○뽕나무 벌레 [뽕나무에 있는 벌레 중 모양이 굼벵이와 유사한 것] 를 반쪽을 갈라 붙인다.

眼瘡

안창

雄雀屎, 初男乳, 調勻取汁, 點滴于眼中三四次.

참새 수컷의 똥, 첫 남자아이 난 이의 모유를 잘 섞어 즙을 내어, 한 방울씩 눈에 3, 4차례 떨어뜨린다.

耳風毒

이풍독

耳風毒, 受在心腎, 氣不流行, 壅在心經, 致傷於耳. 五種耳痔, 耳聾, 耳壅, 耳濕, 耳爛, 可用清肝流氣飲, 後用定痛降氣湯治之.

이풍독(耳風毒)은 심장과 신장에 사기가 들어와 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심경에 멎어 있다가 귀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치(耳痔), 이심(耳聾), 이옹(耳壅), 이습(耳濕), 이란(耳爛)의 5종 질환에는 청간류기음을 사용할 수 있고, 뒤이어 정통강기탕으로 치료한다.

耳中諸證 이증 제증

○耳痔耳聾, 先用針刺破, 用紅玉膏點之 ○耳脹痛, 用虎耳草汁, 滴入耳內, 痛即止. 又用江魚齒 [又名腦內骨] 火煨爲末, 水調滴入耳中 ○耳孔出膿, 用枯礬, 石子, 麝香, 輕粉各等分, 爲末糝之 ○耳疔, 以燒酒滴疔根上, 方得脫. 隨用苦茶, 洗解酒毒 ○耳輪赤爛, 清涼膏貼之 ○耳中血出不止, 龍骨末付之 ○耳中生瘡, 服鼠粘子湯.

○이치와 이심이 있으면, 먼저 침으로 찌 주고, 홍옥고를 떨어뜨린다 ○귀가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면 호이초의 즙을 귀 안에 조금씩 떨어뜨리면 통증이 바로 멎는다. 또는 강어치 [일명 뇌내골] 를 불로 달구어 재를 만든 다음, 물에 섞어 귀 안으로 조금씩 떨어뜨린다. ○귓구멍에서 고름이 나오면, 고반, 석자, 사향, 경분을 같은 분량으로 가루 내어 뿌린다 ○귀에 종기 [耳疔] 가 생기면 종

기의 뿌리에 소주(燒酒)를 조금씩 떨어뜨린다. 그러면 서서히 뿌리가 빠진다.
이어 쓴 차로 씻어 술의 독기를 중화시킨다. 꺾바귀가 붉게 짓무르면 청량고
를 붙인다. 꺾귀 안에서 피가 멎지 않고 나면 용골 가루를 붙인다. 꺾귀 안에 종기
가 생기면 서점자탕을 복용한다.

† 加筆 가필

- 聾耳出膿
- 정이로 고름이 날 때
 - 石雄黃, 朱砂, 黃丹, 乳香, 沒藥, 血竭, 全蝎各等分, 和細搗, 艾入小鍾燒火, 以紙罩掩鍾, 以罩嘴插耳孔熏之, 合七分重, 可爲一劑.
 - 석웅황, 주사, 황단, 유향, 몰약, 혈갈, 전갈을 같은 양으로 섞어 잘게 찢어 작은 종지에 싹과 함께 담은 다음, 망사 모양 종지로 종지를 덮는다. 망사 종이 주둥이를 귓구멍에 삽입하고 훈증한다. 약 7푼 정도를 한번 분량으로 하면 된다.
 - 聾耳出膿延日, 礪石細末, 以紙撚塗之, 插耳中, 濕一望插之而每日三次.
 - 정이(聾耳)로 고름이 나오는 날이 이어지면 여석을 잘게 갈아 종지와 함께 이겨 귀에 삽입한다. 촉촉하게 습기가 있게 해서 삽입하며 매일 3번 한다.

鼻痔

비치

鼻居面中, 爲一身之血運, 而鼻孔爲肺之竅. 其氣上通於腦, 下行於肺. 若肺氣清, 氣血流通, 百病不生, 肺氣盛, 一有阻滯, 諸病生焉. 鼻孔中息肉, 名曰鼻痔, 皆由六氣七情所感而成. 若生上入眼, 名曰弩肉. 若生下入鼻中, 名曰息肉. 室塞不通, 戒酒絕慾, 除煩惱, 戒憂愁, 內服通氣辛夷散, 外點消痔散, 鷄鴨散, 庶平復矣.

코가 얼굴 한가운데 있는 이유는, 콧구멍은 폐의 구멍으로서 혈이 몸 전체를 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콧구멍으로 들어온 기(氣)는 위로 머리까지 도달하였다가 아래로 내려가 폐에 다다른다. 만약 폐기가 맑으면 기와 혈이 잘 흐르고 통하여 제반 병이 생기지 않는다. 폐기가 한곳에 지나치게 몰려 통하지 않으면 갖가지 병이 생긴다. 콧구멍에 생긴 쓸모없는 살을 비치(鼻痔)라 부르고, 모두 육기와 칠정에 문제가 생겨 생긴다. 만약 생겨나면서 위로 이동하여 눈으로 들어가면 노육(弩肉)이라 부르고, 만약 생겨나면서 아래로 이동하여 콧속으로 들어가면 식육(息肉)이라 부른다. 코의 내강이 막혀 통하지 않으면, 술을 삼가고 성생활을 끊으며 번뇌를 제거하고 걱정을 끊는 생활을 해야 한다. 안으로 통기신이산을 복용하고 밖으로 소치산이나 계압산을 한 방울씩 떨어 뜨려 주면 거의 회복된다.

鼻中諸證 비중 제증

鼻中息肉, 仰臥時, 用白葡汁, 滴入鼻孔中即消 ○礪砂點之即落 ○息肉出, 硫黃末薄塗即縮. 又膽礬末吹當處. 又新生兒腹中屎塗之. 又鹿火烘熨當處 ○鼻中瘡, 杏仁末, 乳汁和付. 若成蟲, 杏仁擣炒, 取油塗之 ○鼻瘡, 日久膿極臭, 百艸霜細, 冷水調服 ○服洗肺飲.

코안에 식육이 생기면, 누워있을 때 흰 포도의 즙을 콧구멍 안에 방울방울 떨어뜨리면 사라진다 ○망사(礪砂)를 한 방울씩 넣어주면 떨어진다 ○식육이 나올 때 유황 가루를 얇게 바르면 수축한다. 또한 담반(膽礬) 가루를 환처에 붙여 넣는다. 또는 새로 태어난 아이의 배내똥을 바른다. 또는 사슴의 뿔을 불에 달구어 환처를 지진다 ○코안에 부스럼이 생기면, 행인 가루를 우유와 잘 섞어 붙인다. 코안에 벌레가 생기면 행인을 으깨 볶아 기름을 짜 바른다 ○비창이 오래되어 고름이 나고 냄새가 지극히 심하면, 백초상을 잘게 갈아 냉수에 잘 섞어 복용한다 ○세폐음을 복용한다.

鼻中出黃水臭穢, 或出膿, 腦有蟲, 絲瓜燒存性, 和酒服.

코에서 누런 물이 나오면서 악취가 나거나 혹은 고름이 나오면, 머리에 벌레가 있는 것이니 사과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술과 잘 섞어 복용한다.

鼻塞不通, 灸上皇, 百會, 風門, 通天 ○鼻不聞香臭, 服通氣湯.

코가 막혀 통하지 않으면, 상황, 백회, 풍문,通天혈에 뜸을 뜬다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하면 통기탕을 복용한다.

鼻衄, 山梔燒灰爲末, 吹鼻內 ○田螺水滴入鼻內 ○用耳鼻出血方 ○服二神湯

코피가 나면 산치자를 태워 코안으로 붙여넣는다 ○우렁이 물 [田螺水] 을 코안에 방울방울 떨어뜨린다 ○이비출혈방(耳鼻出血方)을 쓴다 ○이신탕을 복용한다.

鼻中生毛, 晝夜長一二尺, 漸圓如繩, 痛不可忍, 此因食豬羊血過多. 用乳香, 礪砂各一兩, 爲末飯丸, 空心臨臥, 下十丸即落.

코안에 털이 생겨 하룻밤에 1, 2척씩 자라 점차 밧줄 같으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으면, 이는 돼지나 양의 피를 너무 많이 먹어 생긴다. 유향, 망사 각 1량을 가루 내어 밥으로 환을 지어 잠자리에 들 때 빈속에 10환을 넘기면 떨어진다.

鼻梁無故崩堆, 牛骨, 狗骨燒末, 臘豬脂和付 ○黃連, 大黃, 射香爲末, 和津搽之 ○色黑者, 氣血先死也, 用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

콧마루가 이유 없이 뭉개지면, 소뼈, 개뼈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가루 내어 납월에 짠 돼지기름과 잘 섞어 붙인다 ○황연, 대황, 사향을 가루 내어 침과 잘 섞어 바른다 ○코의 색이 검게 변하면 기와 혈이 모두 죽은 것이니,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을 쓴다.

† 加筆 가필

- 治宿滯方
- 속체 치료 처방
 - 乾干, 桂皮, 胡椒, 花椒各一兩細末, 每貼六菱重, 溫水吞, 日三服. 肉滯則加入白礬一兩.

- 건강, 계피, 호초, 화초 각 1냥을 가루 내어 6돈을 한 첵으로 하여 따뜻한 물에 하루 3번 복용한다. 고기에 체하면 백반 1냥을 더한다.
- 肉滯, 白礬二錢重作末, 溫水或藥湯調服, 卽效.
- 고기에 체하면, 백반 2돈을 가루 내어 따뜻한 물 또는 약을 다린 물에 타서 복용하면 바로 효과가 있다.
- 單腹鼓脹方
- 단복고창방
 - 新煙鍾及煙竿, 竿長一 餘, 好眞艾細末, 入鍾熬火, 煙觜插肛門. 又以新煙鍾竿相合, 煙鍾他人口吹之將可, 次用之, 以多放大便爲度. 用此藥時, 連服地膚子煎湯. 地膚子五兩, 重濃煎爲數碗, 略略飲之.
 - 새대통과 설대, 설대 길이는 1뼘 정도 되는 것, 좋은 쑥을 곱게 가루를 내어 대통에 담아 불을 붙여 물부리를 항문에 삽입한다. 또한 새로운 대통과 설대는 서로 잘 맞아야 한다. 대통은 다른 사람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어도 된다. 한번 더 시행할지의 결정은, 다량의 대변을 보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이 약을 사용할 때 지부자전탕을 연이어 복용한다. 지부자 5냥을 진하게 몇 대접 분량으로 다려, 조금씩 복용한다.

面腫

면종

面腫, 朱砂細末, 和津付之. ○笠菌 [갓버섯] 搗付, 乾則易之. ○蟹醬付之. ○面上小癰, 半夏末, 鹽麪三味各等分, 搗爲粉, 醋調勻, 敷上卽退. ○面瘡, 浮萍艸濃煎沈洗, 半日, 赤小豆末糝之. 又蛇莓艸根莖葉, 水煎入鹽少許, 淋洗. 又柳絮和膩粉付之. 又柳葉煎湯洗面. ○香瓣瘡, 延及頤下, 浸淫出水, 殺羊鬚, 荊芥, 乾薑燒, 入輕粉擦之. ○金腮瘡, 初生如栗豆, 久則穿頰, 鷄內金末付之. ○鬢邊生軟癰, 名發鬢, 有數年不愈, 付三物散極妙.

얼굴이 부으면, 주사를 곱게 가루 내어 침과 섞어 붙인다. ○갓 버섯을 찢어 붙인다. 마르면 바꾼다. ○게장을 붙인다. ○얼룩에 작은 부스럼이 나면, 반하 가루, 소금, 밀 3가지를 빵아 가루 내어 초에 잘 섞어 붙이면 사라진다. ○얼굴에 부스럼이 생기면, 부평초를 진하게 다려 가라앉힌 다음 씻는다. 반나절 지나 적소 두 가루를 뿌린다. 또는 뱀딸기풀의 뿌리, 줄기, 잎을 물에 다려 소금을 조금 넣고, 조금씩 뿌려주며 씻는다. 또는 버드나무꽃을 경분(輕粉)과 섞어 붙인다. 또는 버드나무 잎을 다려 얼굴을 씻는다. ○향판창(香瓣瘡)이 아래턱까지 이어져 진물이 나오면, 검은 암컷 양의 수염, 형개, 건강 태운 것에 경분을 넣어 문지른다.

腮瘡 시창

○金腮瘡, 初生如栗豆, 久則穿頰, 鷄內金末付之.

○금시창(金腮瘡)은 처음 생길 때 속두(粟豆)만 하다가 오래 지나면 턱에 구멍이 난다. 계내금 가루를 붙인다

發鬢 발빈

○鬢邊生軟癰, 名發鬢, 有數年不愈, 付三物散極妙.

○귀밑털 주위에 연한 부스럼이 나면 발빈(發鬢)이라 부른다. 몇 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 삼물산을 붙이면 아주 좋다.

頭瘡

두창

服酒歸飲 ○防風通聖散爲末, 酒浸焙三次, 食後白湯調, 日三服.

주귀음을 복용한다 ○방풍통성산을 가루 내어 술에 담갔다가 약한 불에 3번 구운 다음, 식사 후에 끓인 물에 타서 하루에 3번 복용한다.

雄黃二錢, 輕粉一分, 和豬脂付之 ○羊屎燒, 雁肪調付 ○百部根爲末, 調油塗之 ○密陀僧, 硫黃各二錢, 輕粉少許爲末, 豬脂調付 ○杏仁燒, 水銀同鉛炒, 定粉各分等, 先以豆腐水洗之, 將藥末糝之 ○溼爛者, 燕窠土, 黃柏爲末, 乾糝. 又樊履底皮燒存性, 調油付之.

웅황 2돈, 경분 1푼을 돼지기름에 잘 섞어 붙인다 ○양의 똥을 태워 기러기 기름과 잘 섞어 붙인다 ○백부근을 가루 내어 기름과 잘 섞어 바른다 ○밀타승, 유향 각 2돈, 경분 약간을 가루 내어 돼지기름에 섞어 붙인다 ○행인 태운 것, 수은을 납과 같이 볶은 것, 정분(定粉) 각각 같은 분량으로 준비한다. 먼저 두붓물로 씻은 다음 약 가루를 뿌린다 ○진물이 나고 혈면, 제비집 흙, 황백을 가루 내어 마른 상태로 뿌린다. 또는 신발의 바닥 가죽을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기름과 섞어 붙인다.

洗法, 蒺藜子, 兔絲子 [或用莖], 馬齒莧, 何首烏, 并水煎洗之 [各用一料]. 貴隴樹枝葉煎洗 ○豆腐水溫洗 ○熱溺洗之.

씻는 법: 질려자, 토사자 [또는 줄기를 사용], 마치현, 하수오를 함께 물에 다
려 씻는다 [하나씩만 쓸 수 있다]. 귀룡수(貴隴樹)의 가지와 잎을 다려 씻는
다 ◦두붓물로 따뜻하게 씻는다 ◦뜨거운 오줌으로 씻는다.



甲疽 [付指同法治之]

갑저 [부지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氣血阻滯不行, 潰于指甲間, 或剪甲傷肌, 或爪長侵肉, 或履小不適, 血氣阻滯不通, 腐潰久則浸淫爛指, 然病在四末, 不必治內, 唯用糝藥而愈.

기혈이 막히고 엉켜 흐르지 않으면 손발톱 사이가 끓는다. 혹은 가위로 손톱을 자르다가 살에 상처가 생기거나, 혹은 손발톱이 자라 살을 침범하거나, 신발이 작아 적당하지 않으면, 혈기가 막히고 눌러 통하지 않게 된다. 섞고 끓은 지 오래되면 손과 발가락까지 침범하여 문드러진다. 그렇더라도 병이 손발에 있으니 안을 치료할 필요, 즉 내복약을 쓸 필요는 없고 다만 뿌리는 약을 쓰면 낫는다.

甲疽, 赤肉生甲邊, 用白礬燒令沸定, 爲末付之. 溼則再付, 一日數易即消散矣. 須先以蔥椒湯浸洗爪甲, 令快¹刀割去甲角, 入肉處挹乾, 取藥付之, 軟絹裹之, 藥溼則易之. 又方, 綠礬, 蘆薈各二錢, 射香一分, 末之², 肩袋盛藥, 納指于袋中, 線紮定, 以差爲度.

갑저(甲疽)에는 벌건 살이 손발톱 주변에 생긴다. 백반을 가열하여 끓으면 꺼내어 가루를 내서 붙인다. 진물이 남아 있으면 재차 붙이고, 하루에 몇 번 바꾸면 서서히 사그라든다. 반드시 먼저 총백탕에 담가 손발톱을 씻고 뾰족한 칼로 살로 파고드는 손발톱을 제거한 다음, 약을 붙이고 부드러운 비단으로 감싼다.

약이 축축해지면 바꾼다. 다른 처방으로, 녹반, 노회 각 2돈, 사향 1푼을 가루
내어 비단 자루에 약을 담아 손과 발가락을 자루 안에 넣고 끈으로 묶는다. 나
을 때까지 한다.

代指 대지

○代指, 芒硝煎洗, 方潰 ○枯白礬, 黃丹末糝之 ○鷄卵穿一穴, 出黃入清, 和硃黃末, 插
指浸之 [或以硃黃調鷄子清塗之] ○白蠟打薄片付之 ○酸醬割付 ○燈檠垢刮付 ○若
久不愈, 而連出努肉, 則用攻瘍丹.

○대지(代指)가 생기면, 망초를 다려 씻으면 저절로 사그라든다 [潰] ○고백
반, 황단(黃丹) 가루를 뿌린다 ○계란에 구멍 하나를 내어 노른자는 빼내고 흰
자만 남긴다. 응황 가루를 잘 섞은 다음 손발톱을 담근다 [또는 응황을 계란
흰자와 잘 섞어 바른다] ○백납을 두드려 얇게 펴 붙인다 ○파리를 갈라 붙인
다 ○등잔걸이에 붙은 때를 긁어 붙인다 ○오래되어도 낫지 않고 계속 궤은살이
생기면 공양단을 쓴다.

† 加筆 가필

- 黃檗膏
- 황벽고

○ 治甲疽神方. 黃檗皮去麤皮, 數十斤入大鍋, 盛水二大盆, 濃煎去滓, 次①
以小鍋煎至如膏, 塗甲疽努肉上, 待膏乾, 甲疽結痂自落, 頻塗膏, 以差爲
度. 手足甲疽皆神效.

- 갑저(甲疽)를 치료하는 신기한 처방: 거친 부분을 제거한 황벽 껍질 수십 근을 큰 솥에 넣고, 큰 동이 2개 정도의 물을 넣고 진하게 끓인 다음 찌꺼기를 버린다. 이어 작은 동이에 넣고 고(膏)가 될 때까지 끓인다. 갑저로 생긴 곳은살에 바르고 고(膏)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갑저의 딱지가 저절로 떨어진다. 자주 고(膏)를 바르고 날 때까지 계속한다. 모든 손발의 갑저에 신기한 효과가 있다.
- 隣有一婆, 手指端生甲疽, 四年不差, 乞僧見之, 傳此方, 獲痊誠奇方也. 加入石雄黃五錢重.
-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손가락 끝에 갑저가 생겨 4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았다. 탁발승이 보고 이 처방을 전해주었는데, 너무나 잘 나았다. 정말 신기한 처방이다. 석웅황 5돈을 더 넣는다.

1. 快: 𢶏尖 ※《奇效良方》←

2. 之: 𢶏以 ※《世醫得效方》←

臍癰

제옹

此症生臍內, 因食油膩冷物, 積聚于氣海之間, 聚結成癰. 若不速治, 卽內潰, 臍內出膿, 四圍堅硬. 或出血水者難治, 無此卽生. 用內托散, 加豬苓, 澤瀉, 當歸鬚, 黃柏, 車前子, 知母. 膿盡, 多加白朮, 黃芪, 熟地黃, 山藥. 多服蠟礬丸. 如未潰破, 按之有膿, 將治腸肚癰行藥, 從大便中出, 甚妙, 痛加乳香. ○膀胱有熱, 蓄毒不流, 以致臍中堅硬結核, 小便疼痛, 日夜下利無度. 用敗毒散, 加豬苓, 澤瀉, 木通, 燈艸, 瞿麥, 甘艸梢. 又用連根蔥十根, 搗爛盒臍上, 多服金花丸.

이 병은 배꼽에서 생긴다. 기름지거나 찬 음식을 먹어 나쁜 기운이 기해(氣海) 사이에 중간에 쌓이면 웅창 [癰] 이 생긴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에서 끓어 배꼽에서 고름이 나오면서 사방이 딱딱하게 굳는다. 만약 핏물이 나오면 치료가 어렵고, 이 증상이 없으면 살 수 있다. 내탁산에 저령, 택사, 당귀수, 황백, 차전자, 지모를 더하여 쓴다. 고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백출, 황기, 숙지황, 산약을 다려 많이 복용한다. 납반환을 많이 복용한다. 만약 아직 끓어 터지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 대장과 복부의 웅창에 쓰는 약으로 치료하여, 대변으로 나오게 하면 매우 좋다. 통증이 심하면 유향을 더한다. ○방광에 열이 있어 쌓인 독이 빠지지 않아 배꼽 가운데가 딱딱히 굳어 덩이가 생기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밤낮으로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패독산에 저령, 택사, 목통, 등초, 구맥, 잔 줄기 감초 [甘艸梢] 를 넣어 쓴다.

婦人臍癰 부인 제옹

○婦人臍中堅硬如石, 此惡毒症也, 用內托流氣飲, 定通三香飲. 用圍藥. 用男子臍癰藥, 加減治之.

○부인이 배꼽 가운데가 굳어 돌 같으면, 매우 안 좋은 증상이다. 내탁류기음, 정통삼향음을 쓰고, 위약(圍藥)을 쓴다. 남자의 배꼽의 웅창에 쓰는 약 [臍癰藥] 을 가감하여 치료한다.

鶴膝風

학슬풍

鶴膝風, 痢風, 鼓槌風之類也. 氣血相竝, 而行過于一身. 得寒則行遲而不及, 得熱則行速而太過. 內傷七情, 外傷六淫, 則氣血之運或遲或速而病作焉. 多因日久得熱, 已自騰沸, 後復感冒濕熱, 血受邪鬱, 爲瘀滯不得運行, 所以作痛. 夜則痛甚, 行于陰也. 治以辛溫, 監以辛涼, 流散寒溼, 而積熱得發, 其血自行, 與氣相和, 其病乃止. 或因澁藥取效, 性急作勞, 常享厚味, 感冒風雨, 腿腫則痛甚, 皆瘀血流于經隧. 行久不治, 恐成偏枯, 以致膝腫筋縮大痛, 兩足無力, 腳弱漸細, 髀腓枯槁, 拘攣不能屈伸, 治宜祛風順氣, 補血壯筋, 養陰除溼, 則氣血通暢, 自然愈矣. 服大防風湯, 四妙丸, 外用追風除溼圍藥.

학슬풍(鶴膝風)은 이풍(痢風)이나 고퇴풍(鼓槌風)의 한 종류이다. 기혈은 같이 어울려 온몸을 돈다. 차가워지면 운행이 느려져 제때 돌지 못하고, 뜨거워지면 너무 빨리 돌고 너무 앞서간다. 내상의 칠정이나 외감의 육기로 인해 기혈의 운행이 느려지거나 너무 빨라지면 병이 생긴다. 오래전부터 열이 몸에 쌓여 이미 불덩이가 되었는데 다시 외부로부터 습열을 받아 생기는 게 대부분이다. 사기에 의해 혈이 한군데로 몰리어 운행하지 못하고 고착되면 통증이 생긴다. 밤에 통증이 심한데 기혈이 음분을 운행하기 때문이다. 신온(辛溫)한 약으로 치료하고 신량(辛涼)한 약으로 감독하여 한습을 흩뜨려 쌓인 열이 퍼지면, 혈이 저절로 잘 운행하여 기와 혈이 서로 화합한다. 그러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 혹은 멎게 하는 약 [澁藥] 이 효과가 있다고 몸조리하지 않고 성급히 노동

하거나 평상시 고량진미를 즐기다가, 바람과 비를 맞으면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하게 된다. 모두 어혈이 경수(經隧)로 흘러들어 그러하다. 오래도록 치료하지 않으면 몸 한쪽이 마르고 불편하고 결국에는 무릎이 붓고 근육이 수축하며 통증이 심하고 양다리의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약해지고 가늘어진다. 그리고 대퇴부가 마르고 뒤틀리면서 굴신이 안 된다. 치료는 당연히 풍을 물리치고 기를 순환시키며, 혈을 보하고 근육을 튼튼히 하며, 음을 길러주고 습을 제거한다. 그러면 기혈이 잘 통하여 자연히 낫는다. 대방풍탕, 사묘환을 복용하고, 외용으로 풍을 물리치고 습을 제거하는 붙이는 약 [圍藥] 을 붙인다.

廉瘡

겸창

大抵下部之症, 以蒼朮爲主, 佐以黃柏之辛, 行以青皮, 加以甘艸, 隨症用引經之劑得效矣. 此毒受在肝腎經, 用內托流氣飲, 內托清氣飲, 紫蘇流氣¹三香和氣飲¹, 三香和氣飲, 外用腿風搽藥 [与婦人廉瘡藥通用] .

대개 하체의 병은 창출을 주로 쓰고, 황백의 신맛으로 보좌하고, 청피로 운행을 촉진하고, 감초로 보충해두면서, 증상에 따라 인경약을 사용하면 효과를 본다. 이 병은 간경과 신경에 독이 들었기 때문에 생기니, 내탁류기음, 내탁청기음, 자소류기음, 삼향화기음을 쓰고, 외용으로 학슬풀에 쓰는 바르는 약 [搽藥] 을 쓴다 [부인겸창에 쓰는 약을 통상적으로 쓴다] .

婦人廉瘡 [互看濕瘡] 부인 겸창 [습창과 서로 참조]

婦人廉瘡, 服紫蘇流氣飲, 三香和氣飲, 外用龍鳳散, 輕粉隔紙膏, 銅乳隔紙膏.

부인겸창에는 자소류기음, 삼향화기음을 복용하고, 외용으로 용봉산, 경분격지고, 동유격지고를 쓴다.

¹. 紫蘇流氣三香和氣飲 : 紫蘇流氣飲, 三香和氣飲 ※《瘡瘍經驗全書》←



便毒

변독

便毒者, 生于小腹兩腿合縫之間, 或行路遠涉, 或低閃腠氣, 或房事所傷, 或男女大慾不遂其志, 或妄想不能忘情, 一有所感, 精血凝滯, 此症遂生. 初起之時, 寒熱交作, 兩腿牽絆腫起, 不能屈伸, 急服龍膽湯, 槐膠敗毒散. 初期時, 用溼蚯蚓糞, 捻成餅如銅錢厚, 放患處, 以艾灸之覺熱 [蚯蚓餅焦則易之], 一二十壯爲度, 或痒或痛即可
○服紫金丁 ○班貓去頭翅足末, 同滑石服, 毒從小便出 ○皂莢煨研酒服, 醋和付之.

변독(便毒)은 아랫배와 대퇴부가 만나는 서혜부에 생긴다. 오랫동안 걷거나, 삐끗하여 뼈와 근육을 다치거나, 성생활로 다치거나, 남녀가 성욕이 넘쳐나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망상으로 한시도 잊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만약 감정이 요동이 있으면 정혈(精血)이 응체 되어 이 병이 생겨난다. 처음 시작될 때는 한영이 번갈아 오고 양다리가 당기고 부으며, 펴고 접을 수 없다. 신속히 용담탕, 괴교패독산을 복용한다. 초기에는 축축한 지렁이 똥을 꼬아 동전만 하게 떡을 만들어 환처에 놓고, 그 위에 땀을 뜨되 열기를 느낄 정도만 한다 [지렁이 떡이 마르면 바꾼다]. 10, 20장 정도 뜬다. 가렵거나 통증이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금정을 복용한다 ○반묘에서 머리와 다리를 제거하고 가루 내어 활석과 함께 복용하면, 독이 소변을 통해 나간다 ○조협(皂莢)을 불에 구운 다음 가루 내어 술에 복용하고, 식초와 섞어 붙인다.

千步峰, 和薑汁, 或用醋調勻貼之 ○菖蒲生搗付 ○山藥, 同砂糖炒付 ○五倍子, 炒黃爲末, 醋調付.

천보봉을 강즙과 섞거나, 혹은 식초와 섞어 붙인다 ○생창포를 찢어 붙인다 ○산약을 사탕과 함께 볶아 붙인다 ○오배자를 누렇게 볶아 가루 내어 초와 섞어 붙인다.



跟疽

근저

此毒生于脚跟之上, 因行動高下脚傷, 故生此疽. 形如琉璃色, 無膿, 惟有紫色, 便不可刺破, 先用金箍散, 或鐵箍散敷之. 避風戒色, 不宐行動, 先服蠲毒流氣飲, 後服除溼木瓜湯.

이 병은 발꿈치에 생긴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여 근골을 손상하면 이 종기가 생긴다. 형태는 유리와 같이 반들반들하고 고름은 없으며 다만 자줏빛이 난다. 찢어 터뜨려서는 안 되며, 먼저 금고산 혹은 철고산을 붙인다. 바람을 피하고 성생활을 멀리하고 걷지 말아야 한다. 먼저 건독류기음을 복용하고, 이어 제습목과당을 복용한다.

足上諸證 족상 제증

脚心毒¹, 受在腎, 心經在脚心, 是爲溼毒也, 乃名脚心癰, 當服定氣飲, 并檳榔丸治之. 脚跟裂破, 白芨, 赤石脂末塞之五日, 不犯水. 春夏脚指叉溼爛, 枯礬六錢, 飛丹五分, 爲末糝 [名神應散]. 又蛇牀艸搗付. 足上肉刺, 人蝨搗付, 黑鉛打薄付之, 攻瘍丹少許入飯粒, 搗泥付肉刺上, 其疣自出.

각심독(脚心毒)은 신장이 독에 상하여 생긴다. 심경에 연계되어 있어, 습독이 생긴 것으로 습독의 일종이다, 따라서 각심옹(脚心癰)이라 부른다. 마땅히 정기음과 빈랑환을 복용하여 치료한다. 발뒤꿈치가 찢어지면, 백급, 적석지 가

루로 5일 동안 틀어막고 물을 대지 않는다 ○봄여름에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면, 고반 6돈, 비단 5푼을 가루 내어 뿌린다 [신응산이라 부른다]. 또 사상초를 찢어 붙인다 ○발에 살 가시가 생기면, 사람 몸의 이를 찢어 붙이거나, 흑연을 깨서 얇게 붙이거나, 공양단 약간에 밥알을 넣어 찢어 살 가시에 붙이면, 사마귀가 저절로 떨어진다.

1. 脚心毒 : 다른 이름은 용천저(涌泉疽)이다 ※《瘡瘍經驗全書》←

遊丹

유단

遊丹者, 卽遍身丹毒也. 初發兩手青腫, 徹上下急急痛, 若經一宿二宿, 腫氣遍身, 入心內腫卽死, 初覺急治之, 宜服五香連翹湯, 木香流氣飲, 外敷金箍散, 以治疗之法治之. 以三稜刺當處, 外付青苔. 藍葉取汁飲一合, 外付其滓. 連翹樹 [羅茂介那里] 枝葉, 水煎薰洗. 白雞肉割付 [夏服通聖散去硝黃, 冬服升麻葛根湯, 加玄參, 犀角. 觀在病在何經, 如胃經多發, 針內庭, 厲兌, 三里. 他經推此] .

유단(遊丹)은 온몸에 단독이 생긴 걸 말한다. 처음 생길 때는 양손이 푸른색을 띠며 붓고, 위아래 할 것 없이 전신이 엄청 아프다. 하루나 이틀 지나서 종기가 전신으로 퍼지고 심장으로 들어가 내부에 종기가 생기면 바로 죽는다. 따라서 처음 느낄 때 급히 치료해야 하며 오향란교탕, 목향류기음, 외부금고산을 복용하는 게 마땅하다. 정창(疔瘡)의 치료법을 준용하여 치료한다. 삼릉침으로 환처를 찌르고 밖으로 청대를 붙인다. 쪽잎 [藍葉] 으로 즙을 짜서 1흡을 마시고 외부에 찌꺼기를 붙인다. 연교 나무 [나무개나리] 의 가지와 잎을 물에 다려 훈증하면서 씻는다. 흰 닭의 고기를 갈라 붙인다 [여름에는 통성산에서 망초, 대황을 제거하고 복용하고, 겨울에는 승마갈근탕에 현삼, 서각을 더하여 쓴다. 병이 어느 경에 있는지 잘 살핀다. 만약 위경에서 자주 발병하면 내정(內庭), 여태(厲兌), 삼리(三里)에 침을 놓고, 다른 경에 생겼다면 위경의 취혈법을 준용한다]

上下眼丹 상하안단

此毒受在心肝, 氣毒上攻, 壅而聚此, 丹毒當用清心流氣飲, 兼服黃連敗毒丸. 外用
皂礬 [五錢], 大粉艸 [二兩], 同煎濃膏, 加冰片少許, 以鵝毛潤眼眶上.

이 병은 심장과 간장이 손상을 받아 생긴다. 독기가 상부를 공격하여 뭉치면
이렇게 발현된다. 단독에는 당연히 청심류기음을 쓰고, 겸하여 황연패독환을
복용한다. 밖으로 조반 [5돈], 대분초 [2냥] 을 같이 진하게 다려 고(膏)로
만들고, 여기에 빙편을 약간 더하여 거위털로 눈언저리를 촉촉이 적셔준다.

內丹 내단

內丹者, 從脇下至腰下, 腫發赤色. 如早覺可治, 至腰不可治. 其病多大小便不通, 不
過三日, 飛遍身青黑色而死. 用救急丹, 醋付丹處, 服連翹敗毒散.

내단(內丹)이 생기면 옆구리에서 허리 아래까지 붓고 붉은색을 띤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되고 허리까지 이르면 치료가 안 된다. 이 병은 대소변이 나
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 3일이 지나기 전에 온몸이 청흑색으로 변하며 죽는다.
구급단을 식초와 섞어 단이 생긴 부위에 붙인다. 연교패독산을 복용한다.

結核

결핵

獨形而小核者, 爲結核. 蓋火氣熱甚鬱結者, 不須潰破, 熱氣散則自消, 服海帶丸, 加味二陳湯 [在項者服] ○牛膽南星, 水調塗之 ○熊膽塗之 ○陰蛇退津唾付 ○櫻桃仁爲末, 冷水調塗 ○百合根搗爛, 和醋付.

단독으로 하나만 생기면서 작은 덩이가 있으면 결핵(結核)이다. 대개 화기로 열이 심하게 물려 있는 것이니, 반드시 절개하여 터트릴 필요는 없고 열기가 사라지면 저절로 사그라든다. 해대환, 가미이진탕 [목덜미에 생긴 경우에 복용한다] 을 복용한다 ○우담남성을 물에 풀어 바른다 ○웅담을 바른다 ○뱀 암컷의 허물을 침을 발라 붙인다 ○앵두 열매의(櫻桃)의 인(仁)을 가루 내어 찬물에 섞어 바른다 ○백합의 뿌리를 찢어 초와 섞어 붙인다.

癭瘤

영류

此癭瘤受症, 陽在六腑, 流在經絡, 風寒溼熱傷于心肝脾之經, 血聚不散, 日漸增長. 或有破者, 可將梅花散, 紫金散敷之. 已結聚, 用點藥付癭瘤中心, 待七日後, 方可取出惡物, 後用膏藥貼之. 內服秘方流氣飲, 蠟礬丸 [久服] 治之, 不可輕易, 此乃宿瘤之疾 [不可針破, 多致夭死]. ○粉瘤紅玉膏 ○瘰癧膏 ○消瘤膏 ○痰瘤煎藥 ○南星末, 醋調塗之 ○蟬蟠汁塗之 ○藥線繫瘤法, 先用芫花根淨洗帶溼, 不犯鐵器, 搗取汁, 用生絲線一條, 浸汁中一宿, 以線繫上一夜即落, 不過二次. 將龍骨, 細茶, 呵子末三味, 付瘡口. 如無根, 以芫花煎濃汁浸之亦妙. 下部痔亦可用.

영류(癭瘤)병은 양병(陽病)으로 육부에 생기고, 전파되면 경락으로 들어간다. 풍한습열(風寒溼熱)로 심간비(心肝脾)의 경락이 손상을 받으면 혈이 몰려 퍼지지 않아 날로 점점 커진다. 만약 끓어 터진 것이 있으면 매화산, 자금산을 붙여주어도 된다. 이미 모여 형태가 형성되었으면 떨어뜨리는 약 [點藥] 을 영류의 가운데에 붙인다. 7일이 지나면 나쁜 고름 등을 짜서 뽑아내도 된다. 이후 고약을 붙인다. 내복으로 비방류기음, 납반환 [오랫동안 복용] 을 써 치료한다. 쉽게 보면 안 된다. 영류는 고질병이다 [침으로 터뜨려서는 안 된다. 요절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분류홍육고 ○고류고 ○소류고 ○담류(痰瘤)에 쓰는 전탕약 ○남성 가루를 식초에 풀어 바른다 ○굴벙이 즙을 바른다 ○약 먹인 선으로 영류를 묶는 법 [藥線繫瘤法]. 먼저 완화(莞花)의 뿌리를 깨끗이 씻어 축축할 때, 금속을 가까이하지 않고 찢어 즙을 낸다. 삶지 않은 명주실을 이 즙에

하루를 담근 다음, 이 실로 하룻밤 조여 묶어 놓으면 떨어진다. 2번을 넘지 않는다. 옹골, 고운 차 [細茶], 가자 가루를 환처에 붙인다. 뿌리가 없으면 완화를 진하게 다려 담가도 또한 효과가 좋다. 아래의 치질에도 쓸 수 있다.

† 加筆 가필

- 消項核方
- 목덜미 결핵을 삭히는 처방
 - 捕燕一枚, 入香油二兩兒中, 煉成膏, 塗紙付項核數次神效. 燕則不去毛, 入油而及其成膏, 則燕毛與骨皆融化云.
 - 제비 1마리를 잡아 참기름 2보시기에 넣고 다려 고(膏)를 만든 다음, 종이에 발라 목덜미 결핵에 몇 차례 붙이며 신기한 효과가 있다. 제비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기름에 넣어 고(膏)가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제비의 털과 뼈가 모두 녹아 사라진다고들 한다.

瘍醫微 卷之三 양익미 권3

謂矣齋 編 위익재 편



痔漏

치루

總論 총론

凡痔有五, 卽牡痔, 牝痔, 腸痔, 脈痔, 血痔. 素問曰,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癖爲痔. 臟腑所發, 多由飲食不節, 醉飽無時, 恣食胞膩, 胡椒辛辣, 炙燂醞酒, 禽獸異物, 任情醉飽耽色, 不避嚴寒酷暑, 或久坐濕地, 恣意耽看, 久忍大便, 遂致陰陽不和, 關格壅塞, 風熱下衝, 乃生五痔. 天道失常, 民心益肆, 今痔變成五五二十五類, 或左或右, 或內或外, 或狀如鼠奶, 形如櫻桃, 或膿或血, 或痛或痒, 或腫或覺, 久而不治, 漸成漏矣. 治法以涼血爲主, 徐徐取效, 切不可用砒霜毒藥, 亦不可輕易割取,¹ 成漏瘡. 又有肛門左右別有一竅出膿血, 名曰單漏. 治之須以溫煖之劑補其內, 生肌之藥敷其外. 其竅有皮膚者易愈, 臟腑有損而致竅者未易治也.

무릇 치질에는 모치(牡痔), 빈치(牝痔), 장치(腸痔), 맥치(脈痔), 혈치(血痔), 다섯 종류가 있다. 《소문》에 말하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근육과 경맥이 늘어져 풀려, 장벽(腸癖)이 치질로 변한다고 하였다. 장부의 병은, 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음주를 시도 때도 없이 하고, 내키는 대로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고, 구운 음식을 먹고 독주를 마시며, 산 동물과 이상한 것을 먹으며, 술에 취해 성생활을 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혹은 습한 곳에 오래 앉아 있고, 뭔가를 보는데 물입하여 대변을 오랫동안 참아 생긴다. 위와 같이 하면 결국 음양이 조화를 상실하여 흐름이 꼭 막혀버려 풍열이 아래로 몰려버리

고, 이에 오치(五痔)가 생긴다. 천도(天道)가 규칙을 벗어나면 민심도 따라 방자해진다. 치병도 따라 변하여 25종으로 증가한다. 혹 왼쪽 또는 오른쪽, 혹 안쪽 또는 바깥쪽, 혹 쥐젖 모양, 혹 형태가 앵두 모양, 혹 고름이 나거나 피가 나기도 하고, 혹 통증이 있거나 가렵기도 하고, 혹 붓기도 하고 혹 부으면서 아프거나 한다. 모두 오래되면 치료할 수 없고 점차 루병(漏病)으로 변한다. 치료는 차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서서히 치료하여야 하고 절대 비상과 같은 독약을 써서는 안 되며, 짚는 방법을 쉬이 써도 안 된다. 그러면 치루 [漏瘡] 가 초래된다. 항문 좌우에 별도로 구멍이 생겨 고름과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루(單漏)라 부른다. 치료할 때 반드시 따뜻한 약으로 안을 보해주고, 살을 돋게 하는 약을 외부에 붙여야 한다. 구멍에 피부가 있으면 쉽게 낫고, 장부에 손상이 있어 구멍이 초래되었다면 치료가 쉽지 않다.

服益氣清藏湯 ○秦艽蒼朮湯 ○秦艽防風湯 ○秦艽羌活湯 ○秦艽當歸湯 ○當歸郁李仁湯 ○紅花桃仁湯 ○槐角子湯 ○木通散 [小便不通] ○蒼朮澤瀉丸 ○秦艽白朮丸 ○槐角丸 ○秦艽槐角丸 ○秦艽枳殼丸 ○黃蠟丸 ○潤腸丸 ○蟬皮散 ○豬肚膏 ○壯氣收腸散 ○橡糯餅 ○升元大補湯 [脫肛] . 虛人脫肛, 補中益氣湯 [加黃柏, 知母, 蒼朮, 黃芩. 肛門痒, 加秦艽, 桃仁. 大便閉塞, 加阜角仁] .

익기청장탕 ○진교창출탕 ○진교방풍탕 ○진교강활탕 ○진교당귀탕 ○당귀육리인탕 ○홍화도인탕 ○괴각자탕 ○목통산 [소변이 안 나올 때] ○창출택사환 ○진교백출환 ○괴각환 ○진교괴각환 ○진교지각환 ○황납환 ○윤장환 ○위피산 ○

저두고 ◦장기수장산 ◦상나병 ◦승원대보탕 [탈항] 을 복용한다. 허약자의 탈항에는 보중익기탕 [황백, 지모, 창출, 황금을 더하고, 향문이 가려울 때는 진교, 도인을 더하고, 대변이 막혔을 때는 조각의 인을 더한다] .

外用法, 製枯藥 ◦護肉藥 [點藥時, 先將此藥塗四邊好肉] ◦信石烏蝎散 ◦冰片點痔散 ◦辰砂錠子 ◦二黃生肌散 ◦赤石生肌散 ◦胭脂生肌散 ◦脫肛痔, 用避風散糝之. 又用赤龍散.

외용법의 말리는 약 제조법 ◦살을 보호하는 약 [약을 방울방울 떨어뜨릴 때 먼저 이 약을 주위의 정상적인 살에 바른다] ◦신석오갈산 ◦빙편점치산 ◦신사정자 ◦이황생기산 ◦적석생기산 ◦연지생기산 ◦탈항으로 생긴 치질에는 피풍산을 뿌린다. 적룡산도 쓸 수 있다.

青荷葉, 燒灰爲末, 空心酒下三錢 ◦金銀藤, 並花爲末, 每日酒下三錢 ◦每日食海螺蛸半升, 因鹹以苦茶漱口約及二斗. 又能清心寡慾, 痔即消 ◦痔貼藥之後, 恐毒未盡, 將槐米一兩炒黃色, 用水一鍾, 煎至七分, 加酒半鍾, 溫服之, 痔永不發 ◦小兒生痔, 空心服甘艸膏, 自愈.

청하엽을 태워 재로 만들고 가루 내어 빈속에 술로 3돈 먹는다. ◦인동덩굴을 꽃과 함께 가루 내어 매일 술에 3돈 넘긴다 ◦매일 소라 반 근을 먹는다. 맛이 짜니 쓴 차로 입을 행군다. 행군 물이 2되가 될 때까지 한다. 또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버리면 치질이 저절로 사그라든다. ◦치질에 붙이는 약을 쓴 후에도 독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면, 괴미(槐米) 1냥을 누렇게 볶아 물 한 대접으로

다려 7푼이 되게 한 다음 술 반 종지를 더하여 따스하게 복용한다. 그러면 치질이 영원히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에게 치질이 생긴 경우 빈속에 감초고를 먹이면 저절로 낫는다.

用牡蠣二兩, 煨過, 入地窖坑埋之, 去火氣, 爲細末, 痔漏瘡, 若溼乾糝, 若乾以津調搽 ○用銅杓, 內制牛黃末一分, 先炒微煙, 卽下礞末二錢, 候煙起, 再下白礬末九錢, 待滾乾取起, 仍入火微炒煨, 安地上, 出火毒爲末, 後入乳香, 辰砂末, 藥冰片各一錢, 共爲極細末, 每以一錢許, 用稠糊調和, 隨漏孔大條子, 量深淺短長用之. 如瘡孔爛大, 止用津唾調之, 填入孔內, 待痔已潰動, 毒水自流, 如好肉生瘡, 卽以五黃膏護外. 如入錠時, 仍用唾調前末藥, 付在痔根上. 如痔根脫落, 糝生肌散, 並多服蠟礬丸 ○痔腫, 用殼木鼈, 五倍爲末, 蜜水調敷 ○諸痔, 用螻蛄五枚搗碎, 水銀一錢, 麝香三釐, 冰片五釐, 用銀簪蘸汁, 適患上 ○痔漏, 用團魚一枚, 扯出頭殺之取血, 卽將團魚頭燒灰爲末, 血爲丸如棗核大, 諒痔之大小爲之入內 ○漏孔不合, 用石楠葉煎湯, 放在桶內薰洗, 待湯通手, 就將漏洗淨後, 將黃牛面前牙齒四枚, 裝在小瓶內, 用木屑燃之, 待白煙出爲度, 取出研末, 用津液蘸牙末, 點入漏孔處, 出黃水爲效 [黃牛牙齒散, 預製備用].

모려 2냥을 불에 달군 다음 땅에 구덩이를 파서 묻어 화기를 제거하고 이어 곱게 가루 낸다. 치루나 치창이 축축한 상태이면 마른 상태로 뿌리고, 건조하면 침을 타서 바른다 ○구리 주걱에 우황 가루 1푼을 놓고 먼저 볶아 약간 연기가 나면 바로 비상 가루 2돈을 넣어 볶는다. 연기가 나면 다시 백반 가루 9돈을 넣는다. 끓어 올라 마를 지경에 이르면 바로 불 속에 넣어 약간 달구어져 가루(煨)의 상태가 되게 한다. 이어 땅에 적절히 놓아두어 화독이 빠지면 가루를 낸

다. 다시 유황, 진사 가루, 양빙편 각 1돈을 함께 넣고 매우 곱게 가루 낸다. 매번 1돈 정도 걸쭉한 꿀에 풀어 구멍의 크기에 맞게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깊이와 장단을 잘 살펴 사용한다. 상처의 구멍이 흐물흐물해져 크게 벌어진 상태라면 침을 섞어 구멍을 메워 놓고 치질이 스스로 문드러지길 기다리면 독물이 저절로 나온다. 정상적인 살에도 창이 생기면 오황고(五黃膏)로 주위를 보호해준다. 덩어리로 된 약을 삽입할 때 별도로 침에 앞의 약 가루를 섞어 치질의 뿌리에 붙인다. 치질의 뿌리가 떨어지면 생기산(生肌散)을 뿌리고, 또한 납반환(蠟攀丸)을 복용한다. 치질로 부으면 [痔腫] 각목별(殼木蠟), 오배(五倍)를 가루 내어 꿀물에 섞어 붙인다. 모든 치질에는 땅강아지 [螻蛄] 5마리 찢은 것, 수은 1돈, 사향 3푼, 빙편 5푼을 섞어, 은비녀로 즙을 찍어 환처에 떨어뜨린다. 치루에는 자라 1마리를 머리를 잡아당겨 제거하여 죽이고 피를 받는다. 즉시 자라 머리를 태운 재를 가루 내어 피와 함께 대추 씨만 한 정도로 환을 만들어, 치질의 크기에 맞춰 안으로 밀어 넣는다. 치질 구멍이 아물지 않으면 석남(石楠)의 잎을 끓여 통 안에 넣고 훈증으로 씻고 손으로 씻는다. 깨끗이 씻은 다음, 바로 이어서 누런 소의 얼굴 앞니 4개를 작은 항아리에 넣은 다음 톱밥으로 불을 땀다. 흰 연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꺼내 갈아 가루 내고, 침으로 가루를 찍어 치질 구멍에 방울방울 떨어뜨려 넣는다. 누런 물이 나오면 효과가 있다 [누런 소의 치아 가루는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쓴다].

薰洗方, 用大雄鷄宰出血, 在湯鍋內燂去毛取出鷄, 將此燂毛垢湯燒二沸, 傾在淨通內, 蓋定其氣少頃, 將陽物放桶上, 坐緊薰之, 候湯溫洗痔淨拭乾, 隨將蜈蚣一條碾末, 艾二錢, 和捻成條, 放馬桶內坐薰之, 其痔焦熱尤妙. 新生者一兩次得愈, 久生者

五次得愈. ①加蜈蚣并艾薰後, 隨服益氣清藏湯, 秦艽蒼朮湯調治之. ○馬蘭頭一片, 皮硝四兩, 煎滾坐薰, 候湯溫洗之 ○牛膝搗爛, 煎湯洗之 ○紅花子打碎, 煎湯洗之 ○用藥後, 大便閉塞, 用國老湯.

훈증으로 씻는 법: 큰 수탉 우두머리에서 피를 뺀 다음, 노구솔에 담아 삶고 깃털을 제거하고 닭을 꺼낸다. 떼어낸 깃털을 한두 번 더 끓인 다음, 깨끗한 통에 기울여 담는다. 뚜껑을 덮어 잠시 시간이 지나 기운이 안정되면 음경 [陽物] 을 통 위에 놓고 김이 새지 않게 앉아 훈증한다. 탕액이 따뜻할 때 치질을 씻고 닭아 말린다. 이어서 지네 1마리를 약연에 갈고, 쑥 2돈을 함께 넣고 섞은 다음 비틀어 막대 모양으로 만든다. 말의 여물통에 넣고 훈증한다. 치질 부위가 타는 듯한 정도로 뜨겁게 하면 더욱 좋다. 새로 생긴 치질은 1, 2번 하면 낫고, 오래된 것은 5번 하면 낫는다. ①지네를 더하여 쑥과 함께 훈증한다, 이어 익기 청장탕, 진교창출탕을 복용하여 치료한다 ○마난두 1편, 피초 4냥을 끓여 앉아 훈증하고, 약물이 따뜻하게 식으면 씻는다 ○우슬을 문드러지게 찢어 다려 씻는다 ○홍화씨를 찢어 부숴 끓은 다음 씻는다 ○약을 쓴 다음 대변이 막히면 국노탕을 쓴다.

服忍冬丸. ○家貓 [黑者尤佳] 烹食 ○凡痔, 酒色膏粱, 溼熱下流, 衝突爲痔, 快痊極難, 禁忌尤難, 常服茯苓麪. 白茯苓, 不拘多少, 水飛, 和麻仁搗, 九蒸晒乾爲末, 蜜和久服, 斷厚味醋醬 ○服清心丸.

인동환을 복용한다 ○집 고양이 [검은 것이 더욱 좋다] 를 삶아 먹는다 ○모든 치질은 음주, 성생활, 고량진미로 습열이 아래로 흘러내려 한곳으로 몰려 생긴다. 빨리 낫기가 매우 어렵고, 금기를 범하지 않기는 더욱 어렵다. 평상시 복령

면(茯苓麪)을 먹는다. 백복령을 다소에 관계없이 수비를 한 다음 마자와 함
께 찧는다. 9번 찧고 햇볕에 말려 가루 낸다. 꿀과 잘 섞어 오랫동안 복용하고,
고량진미, 식초, 간장을 끓인다 ○청심환을 복용한다.

熊膽和水, 塗痔腫上, 或納肛門 ○鰻鱺油, 和熊膽塗之 ○用攻瘍丹 [穴則絀之, 突如
鷄心, 則泥藥成片, 以線縛定之.] ○五倍子煎湯洗之. 用蜈蚣燒存性, 調香油, 不犯
好肉, 只塗當處. 痔出不入者尤好 ○鱧魚煙薰之 ○槐耳作片如錢厚, 置痔瘡, 上艾和
雄黃末 [艾丸如棗核大], 灸數千壯 ○蜀黍稭, 去葉細剉, 水煎四五沸, 傾在桶中, 坐
薰之, 候湯溫洗痔. 亦治脫肛. 此水大有引出溼熱之力, 薰洗方, 當以此爲第一 ○鹽麩
子 [北羅茂列枚²] 煎湯洗之.

웅담을 물에 타서 치질의 부은 부위에 바르거나, 항문에 넣는다 ○뱀장어 기름
을 웅담과 잘 섞어 바른다 ○공양단을 쓴다 [구멍이 나 있으면 심지를 만들어
심고, 돌출하여 닭의 심장 모양을 하고 있으면 찔흙같이 약을 만들어 실로 고
정하여 붙인다] ○오배자를 끓여 씻는다. 지네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참기름과 잘 섞어 정상적인 살에는 침범하지 않게 하고 환부만 바른다. 치질이
외부로 노출되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더욱 효과가 좋다 ○드렁허리 [鱧魚]
를 태워 훈증한다 ○괴이(槐耳)를 동전 크기로 조각내어 치질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쑥과 웅황 가루를 놓은 다음 [뜸의 크기는 대추 씨 크기로 한다], 수천
장 뜸을 뜬다. ○촉 땅에 나는 기장 [蜀黍稭] 의 이삭 줄기에서 잎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물에 4, 5번 끓도록 다려 기울여 통에 담은 다음 앉아 훈증한다. 약물

이 따듯할 정도로 식으면 치질을 씻는다. 또한 탈항도 치료한다. 이 물은 습열을 끌어내 빼주는 효력이 있으니, 훈증하고 씻어내는 처방 중에 이것이 제일이다. ◦염부자 [복나무열매] 를 끓여 씻는다.

痔日久成漏, 尿汁流出, 鱖魚十箇, 蛻蝗十箇, 并暴乾爲末, 和酒服二十日, 則蟲斃。人中龍赤色者, 陰乾插瘡孔。◦龍骨, 寒水石并煨, 輕粉各一錢, 臙脂三分, 爲末糝之, 生肌合孔。◦豬左懸蹄, 鱉甲, 蝟皮, 露蜂房, 蛇退, 燒存性爲末, 和勻, 入射香小許, 空心井水調下, 通治五痔.

치질이 오래되어 치루가 되면 똥물이 흘러나온다. 드렁허리 10마리와 쇠똥구리 10마리 함께 띄약별에 말려 가루 내어, 술과 함께 20일 복용하면 벌레가 모두 죽는다. ◦인중용(人中龍) 중 붉은색을 띠는 것을 응달에서 말려 상처 구멍에 삽입한다. ◦용골, 한수석 용골과 함께 달군 것, 경분 각 1돈, 연지(臙脂) 3푼을 가루 낸 다음 뿌리면 새살이 돋고 구멍이 아문다. ◦돼지의 왼쪽 발굽, 별갑, 위피, 노봉방, 뱀의 허물을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가루 낸다. 잘 섞어 다음 사향 약간을 넣고 빈속에 우물물에 타서 마신다. 오치(五痔) 전반을 통치한다.

† 加筆 가필

- ◦通腸散
- ◦통장산

脫肛 탈항

肺與大腸相爲表裏, 故肺臟蘊熱, 則肛閉結, 肺臟虛寒則肛脫出. 又有婦人產育過多, 力盡血枯, 氣虛下陷, 小兒久痢, 皆脫肛. 治法惟溫補肺臟, 滋榮腸胃, 久則自收矣, 血虛以四物湯爲主, 血熱以涼血爲主 [四物湯加黃柏]. 氣虛以參芪歸朮爲主, 肺虛以參芪升麻爲主. 腎虛少年六味元加補骨脂, 老人八味元加補骨脂訶子. 勞心者服蓮肉, 且蓮縫殼燒存性和酒服. 痢後脫者, 用澀藥, 五倍子, 白礬末糝之. 小兒脫肛, 龜頭燒存性爲末付之, 又取草麻子 [四十九粒], 去殼搗作餅, 付頂上, 卽收入.

폐와 대장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기에, 폐장에 열이 축적되어 꼭 차면 항문이 막히고, 폐장이 허하고 차면 탈항이 생긴다. 그리고 부인이 출산을 너무 많이 하면, 체력이 다하고 혈이 마르고 기가 아래로 꺼져내려 탈항이 생기고, 소아가 오랫동안 이질이 있어도 탈항이 생긴다. 치료법은 폐장을 따뜻하게 보하고 위(胃)와 장(腸)을 튼실하게 해주게 유일한 방법이니, 오랫동안 이리 해주면 탈항이 저절로 수렴되어 제자리를 찾는다. 혈이 허 [血虛] 하면 사물탕을 위주로 하고, 혈열(血熱)이 원인이면 혈을 차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사물탕에 황백을 더한다]. 기허에는 인삼, 황기, 당귀, 백출을 주로 쓰고, 폐허에는 인삼, 황기, 승마를 위주로 쓰며, 신허가 원인이면 소아는 육미원에 보골지를 더하여 쓰고, 노인은 팔미원에 보골지, 가자를 더하여 쓴다. 정신을 너무 써서 [勞心] 생겼으면 연자육을 복용하고, 또한 다 익은 연봉각(蓮縫殼), 즉 연자를 싸고 있는 외피 덩이를 성질이 보전될 정도로 태워 술에 타 마신다. 한다. 이질 이후에 탈항이 생기면 삽약(澀藥)을 쓰고 오배자, 백반 가루를 뿌려준다. 소아가 탈항이 생기면 자라 머리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가루 내어 붙인다. 또한 초마자(草麻子) 49알을 껍질을 제거하고 찢어 떡을 만들어 머리 꼭대기에 붙이면 바로 탈항이 들어간다.

服藥, 糝藥, 俱見上 [痔漏下] ○以醬一匕, 搽百會穴上, 艾灸三壯 [冬至後灸之], 次日再灸尾翠骨. 又灸臍中, 隨服升元大補湯 ○用生鐵五斤, 水二斗, 煎至五升, 出鐵洗之日三次, 明日再易新鐵, 如前法洗之 ○用枳芎煎洗之.

복용약이나 뿌리는 약 [糝藥] 에 대해서는 모두 앞에 나와 있다 [치루 부분의 하단에 나온다] ○장(醬) 한 숟가락을 백회혈에 바르고 뜸 3장을 뜬다 [동지가 지난 다음 뜬다], 다음날 재차 장강혈 [尾翠骨] 을 뜬다. 또한 배꼽 [臍中] 에 뜸을 뜨고 즉시 승원대보탕(升元大補湯)을 복용한다 ○생철 5근을 물 2말에 넣고 끓여 5되가 되면 생철을 제거한 다음 하루에 세 차례 씻는다. 다음날 새로운 철로 바뀌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씻는다 ○지궁전(枳芎煎)으로 씻는다.

肛門痒甚或痛, 用熊膽抹指上, 納肛門周拌. 又煙管中垢刮取納之, 如上法.

항문이 매우 가렵고 통증이 있으면 웅담을 손가락에 바른 다음 항문으로 밀어 넣고 주변에도 바른다. 또 담뱃대 안에 낀 때를 긁어내어 앞의 방법과 같이 안으로 넣는다.

¹: 致 ※《瘡瘍經驗全書》²: 北羅茂列枚 : 오배자 ※역자주

臟毒

장독

臟毒者, 其大腸盡處是臟頭, 一曰肛門, 又曰屎孔內, 是也. 毒者其勢凶也, 皆喜怒不測, 飲食不節, 陰陽不調, 藏府不和, 或房勞太過, 或飲醞戾之酒, 或食五辛炙燂等味, 畜毒在內, 流積爲癰, 肛門腫痛, 大便堅硬, 則株痛, 其癰生小者如貫珠, 大者如李核, 煎寒作熱, 疼痛難安, 勢盛腫脹, 翻行虛浮. 早治易愈, 失¹潰膿. 孔爛陷內寸許者難生, 血膿出而腫消痛減者易生也. ○先服行藥一劑, 追其毒 [卽大黃追毒散]. ○清臟內托散. ○初起微腫, 卽用溼蚯蚓糞捻盛餅如錢厚, 放患上, 艾壯如半粒豆大者燒之微熱卽去, 再換餅燒之, 再易如前法, 以十四壯爲期, 外用冰香散搽之.

대장이 끝나는 부분이 장독(臟頭)인데, 항문이라고도 하고, 시공내(屎孔內)라고도 한다. 독이라 하면 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개 감정이 일정하지 않거나 먹는 음식에 절제가 없어 음양이 조화롭지 않게 되면 장부의 조화가 깨진다. 혹은 성생활이 과도하거나 독한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맵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면 독이 축적되어 웅(癰)이 되어, 항문이 붓고 아프며 대변이 굳고 막혀 심각한 통증이 생기고, 항문 주변에 작은 종기들이 생겨 구슬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큰 것은 자두 씨만 하다. 심한 한기로 오들오들 떨며 열이 나고, 통증이 있어 편이 앉지 못하며, 증상이 심해지면 부으면서 탕탱해진다. 조기에 치료하면 쉬이 낫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곪아 고름이 난다. 구멍이 헐어 1촌 정도 폭 주저앉은 정도면 살기 어렵다. 피고름이 나오면서 종기가 사그라들고 통증이 감소하면 쉬이 치료된다 ○먼저 약의 기운을 북돋는 약 [行

藥] 한 제를 복용하여 독을 밀어낸다 [즉 대황추독산을 쓴다]. ○장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내탁산 ○약간 부은 상태이면, 즉시 축축한 지렁이 똥을 둘둘 말아 동전 크기의 떡 모양으로 만들어 환부에 놓고, 콩 반 알 정도의 땀을 만들어 태워 약간 열감이 느껴지면 바로 제거한다. 재차 새 똥으로 갈고 태운다. 가는 방법은 앞의 방법을 따른다. 14장을 뜯다. 외부에는 빙향산을 뿌린다.

¹: :: 治 ※《瘡瘍經驗全書》

懸癰

현옹

穀道前後生癰, 爲之懸癰, 初發如松子大, 甚痒, 漸如蓮子, 數十日後, 始覺赤腫如桃子卽破. 若破而大小便皆從中出者, 爲難治. 此疾首尾常服國老膏, 雖患亦輕, 雖潰亦淺, 誤用寒涼, 則不可救. 初起作痛尿澀者, 仙方活命飲去大黃服之. 膿已成者, 急鍼之. 久成漏者, 加味十全湯, 蠟礬丸服之.

항문 앞뒤로 종기가 생기면 현옹(懸癰)이 된다. 처음 생길 때는 소나무 씨만 하고 가려움이 심하다가 점차 연꽃 씨만 하게 되고 수십 일 지나면 복숭아씨만한 붉은 종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곪아 터진다. 터지면 대소변이 모두 이곳을 통해 빠지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치료가 어렵다. 이 질환이 생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노고를 복용한다. 그러면 이 병으로 앓더라도 심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곪더라도 또한 깊지 않을 것이다. 잘못 판단하여 차고 시원하게 하는 [寒涼] 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〇병의 초기에 통증이 있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 선방활명음에서 대황을 제거하고 복용한다. 고름이 이미 형성되었으면 급히 침을 놓는다. 구멍이 생긴 지 오래되었으면 가미십전탕, 납반환을 복용한다.

水中荇葉, 細擣綿裹, 納下部日三卽愈. 〇南瓜瓢入鹽炒付. 〇蜈蚣末糝之, 去惡 [或燒存性用之] 〇五毒膏付之, 合瘡.

물속의 수초인 마름의 입을 찢어 솜으로 쌓아 항문에 3일 넣어두면 낫는다 ○
호박의 속에 소금을 넣어 볶아 붙인다 ○지네 가루를 뿌려 나쁜 것들을 제거한
다 [또는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사용한다] ○오독고(五毒膏)를 붙이면
상처가 아문다.



陰囊毒

음낭독

此卽外腎癰也. 因肝經溼熱不利, 遂流毒于膀胱, 腎經感冒寒暑, 邪氣偏腎于陰之經絡, 以至血氣凝聚, 寒溼不散, 陰囊上腫而痛, 或潰爛皮脫, 腎子懸掛, 宜用瀉肝清熱湯服之. ○或潰爛, 飲食少思, 日晡發急, 服加味小柴胡湯. ○外用鐵箍散圍之. ○此症腐壞, 急用烏金散敷之 [皮脫丸懸, 蘇葉蜜和付之, 燥則入香油.] ○囊無皮, 以荷葉包裹, 生肌.

음낭독은 바로 신장의 외부에 생기는 응창이다. 간경의 습열이 잘 돌지 못하면 결국 독이 방광으로 흘러들고, 때마침 신경(腎經)이 바로 한(寒)와 서(暑)에 침습 당하면, 사기가 한쪽 신장의 음경 주위를 도는 경락에 몰린다. 이렇게 되면 혈과 기가 응결되면 퍼지지 못하고 한과 습 [寒溼] 을 흘트리지 못해 음낭이 붓고 아프거나, 짓물러 피부가 탈락하여 고환이 드러나게 된다. 사간청열탕을 복용하여야 한다. ○혹 짓물러 문드러지고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으며 오후 서너 시쯤에 심해지면 가미소시호탕을 복용한다. ○외용으로 철잡산으로 에워싸고 붙인다. ○이 병으로 썩어 문드러지면 급히 오금산을 붙인다 [피부가 탈락하여 고환이 드러나면 소엽을 꿀과 잘 섞어 붙인다. 건조하면 참기름을 넣는다] ○음낭의 피부가 탈락하면 연잎으로 쌓아준다. 그러면 새살이 돌아난다.

年高者, 因宿行疝氣疾, 及感冒寒溼氣辛勤, 少壯爲因房事所得, 初起陰囊赤腫, 身發寒熱, 攻小注, 歸來二穴, 痛不可忍. 用手按之, 皮寬不急, 可用敗毒散加入當歸須, 川練子發散, 用手按之, 急脹似火之熱, 急用陰囊毒之藥治之. ○服蠟礬丸. ○倘或開刀, 須待其熱, 以油頭繩¹托²住腎子, 以小刀開海底穴, 其膿血卽流盡矣. 外貼金絲等膏. 少勞戒色, 并避湯火風氣, 及諸毒物.

노인은 장기간 오래 걸어 산병(疝病)의 기운이 있거나 한기와 습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면 이 병이 생기고, 청장년자는 성생활을 하여 생긴다. 초기에는 음낭이 붓고 아프고 몸에 한열이 있으며, 소주(小注)와 귀래(歸來)혈을 공격하여 이곳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난다. 손으로 만져 피부가 부드럽고 당기지 않으면 패독산에 당귀수, 천련자를 넣고 복용하여 발산시킨다. 손으로 만져 탕탕할 정도로 부어있고 타오르는 불과 같이 뜨거우면, 급히 음낭독에 쓰는 처방으로 치료한다. ○납반환을 복용한다. ○갑자기 고환에 고름이 잡히면 절개해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고름과 함께 열이 난 이후에 하여야 한다. 0 모양의 끈인 유두승(油頭繩)으로 고환을 묶고, 작은 칼로 해저혈(海底穴), 즉 회음혈을 절개하면 고름 피가 흘러나온다. 겉으로 금사등고(金絲等膏)를 붙인다. 힘쓰는 일을 줄이고 성생활을 절제하며 뜨거운 불이나 끓은 물을 피하고 바람도 피하며, 또한 모든 독이 든 물건도 피한다.

1. 油頭繩 : 원형의 0모양의 끈 ←

2. 托 : 托 *《瘡瘍經驗全書》 등 다수의 한의서 ←



陰蝕瘡

음식창

陰蝕瘡之生也, 皆由臟中虛怯, 腎氣衰少, 風邪入腑, 毒惡損傷榮衛, 或与有毒婦人交接, 不曾洗淨, 故時痛時痒, 以漸成竅作疳, 膿水涌流, 若不早治, 命亦難保. 先用蛇床子, 地骨皮, 桑槐枝¹煎湯溫洗, 內服清熱消疳解毒之劑. 外用糝藥, 先用金絲膏, 後用紫金膏. 拔出毒水, 易能長肉 [陰蝕瘡, 卽下疳也. 陰汗燥臭, 故莖根生疳瘡. 此處乃肝經所屬之分野也].

음식창은 대개 장부가 허약하여 신기(腎氣)가 쇠약해지면서 풍사(風邪)가 장부로 들어오고 악독이 영위(榮衛)를 손상하여 생긴다. 혹은 독(毒)이 있는 여자와 성생활을 하고 깨끗이 씻지 않아 생긴다.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가렵다가 점차 구멍이 뚫리고 감창(疳瘡)이 생겨 고름이 샘솟듯이 흘러나온다. 만약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먼저 사상자, 지골피, 상지, 괄지를 다려 따듯할 때 씻는다. 내복약으로 열을 내리고 감창을 해소하며 독을 풀어 주는 처방을 복용한다. 외용으로 뿌려주는 약을 쓰는데 금사고(金絲膏)를 먼저 쓰고 이어 자금고(紫金膏)를 써서 독액을 빼내면 새살이 쉽게 돋는다 [음식창은 하감이다. 음부에 땀이 나고 살이 건조하며 냄새가 나서 음경에 감창이 생긴다. 이 부위는 간경에 소속되어 있다].

服凉血解毒丸 ○清溼瀉肝湯 ○人蔘敗毒散 ○防風羌活散 ○蒼石散 ○補中益氣湯 [加南星, 蒼朮, 黃柏, 知母, 黃芩, 牛膝, 燈艸] ○身熱, 小便澀滯, 服小柴胡湯 [加龍膽草, 黃連, 車前子] .

양혈해독환 ○청습사간탕 ○인삼패독산 ○방풍강활산 ○창석산 ○보중익기탕
[남성, 창출, 황백, 지모, 황금, 우슬, 등초를 더한다] 을 복용한다 ○몸에 열이
있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 소시호탕을 복용한다 [용담초, 황연, 차
전자를 더한다] .

疼痛不可忍, 用黑羊角, 穿山甲, 煨過研末, 各二錢, 乳香末一錢, 空心酒下.

동통이 심하여 참을 수 없으면, 흑양각, 천산갑을 불에 달구어 가루 내어 각각
2돈, 유향 가루 내어 1돈을 빈속에 술로 넘긴다.

用冬青湯洗之 ○薰法, 用菉豆一升煮極爛, 茶葉五錢研末, 乘熱傾在多年馬桶內, 在
無風處薰之, 待出身汗妙甚, 男婦竝用.

동청탕으로 씻는다 ○훈법: 녹두 1되를 삶아 잘 짓찧어 다진다. 찻잎 5돈을 곱
게 가루 낸다. 뜨근뜨근할 때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말 여물통에 넣고 바람 없
는 곳에서 연기를 쐬다. 몸에 땀이 나면 매우 좋다. 남녀 모두 사용한다.

糝藥, 用輕粉金石散 ○輕者, 用輕粉末一味, 糝上 ○紅棗去核嵌, 明礬二分, 珍珠四粒
煨存性末之, 乾糝瘡上.

뿌리는 약으로는 경분금석산을 쓴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경분 가루 하나만을
뿌려줘도 된다 ○붉은 대추에서 씨를 제거한 것, 명반 2푼, 진주 4개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가루 내어 마른 상태로 상처에 뿌린다.

川椒枝 [或用川椒實, 或用山椒枝], 煎湯洗之. ◦灰藿 [明阿子] 燒灰, 水浸洗 [陰上粟瘡尤效]. ◦淫羊藿, 煎水洗之, 爲末酒調服, 一月而效. ◦黃柏, 滑石細末, 糝之. ◦白鮮皮, 爲末糝之. ◦燒血衲糝之, 女用男袴. ◦豆豉一分, 地龍屎二分, 研付. ◦黃柏, 蛤粉末糝之. ◦油髮灰, 津調付, 米飲調服. ◦甘艸蜜灸²末, 塗之. ◦虎牙磨塗. ◦鷄卵殼, 黃連, 輕粉末, 香油和付. ◦鼈甲燒存性, 鷄子白和付. ◦黑鉛五錢化開,³入水銀二錢, 硼砂一錢, 極末細, 先以蔥根艾葉煎湯洗當處, 乾糝之, 治玉莖蝕, 了如初. ◦陰蝕瘡, 欲盡莖, 蟾灰, 兔屎末付之. ◦五倍子燒煙燻之.

천초 가지 [혹은 천초의 열매를 쓰기도 하고, 혹은 산초의 가지를 쓰기도 한다] 를 끓여 씻는다. ◦회조 [명아자] 를 태워 재를 만들어 물에 섞어 가락앉혀 씻는다 [음상속창(陰上粟瘡)에 더욱 좋다]. ◦음양곽을 끓인 불로 씻는다. 가루 내어 술에 타 먹는다. 1개월 정도면 효과가 있다. ◦황백, 활석을 가루 내어 뿌린다. ◦백선파를 가루 내어 뿌린다. ◦혈납(血衲)을 태워 뿌린다. 여자는 남자의 바지를 쓴다. ◦두시 1푼, 지령이 똥 2푼을 갈아붙인다. ◦황백, 합분을 가루 내어 뿌린다. ◦머리카락을 태워 침과 잘 섞어 붙이고, 쌀죽에 타서 먹는다. ◦감초를 꿀과 같이 구운 다음 가루 내어 바른다. ◦호랑이 이빨을 숯돌에 갈아 바른다. ◦계란 껍질, 황연, 경분을 가루 내어 참기름과 섞어 붙인다. ◦별갑을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계란 흰자와 섞어 붙인다. ◦열을 가해 녹인 흑연 5돈에, 수은 2돈, 붕사 1돈을 넣고 지극히 곱게 가루 낸다. 먼저 파 뿌리, 애엽을 끓인 물로 상처를 씻고 마른 가루를 뿌린다. 음경의 식창(蝕蝕)을 치료하여 원래 상태를 회복시킨다. ◦음식창으로 음경이 모두 문드러지려 할 때, 두꺼비를 태운 가루, 토기 똥 가루를 붙인다. ◦오배자를 태워 연기를 쐬다.

婦人陰蝕瘡 부인의 음식창

婦人之性多偏而多鬱, 若有不遂, 則心肝胃三經之火勃然而起, 遂致陰內生瘡, 其種不一, 或生陰蝕瘡, 或生陰茄, 或生陰蕈, 或生疳瘡, 或生翻花瘡, 或生愚瘡, 極痛極痒, 狀如蟲行, 淋瀝濃汁等症, 皆由溼熱與心火相擊而生, 惟陰茄難治. 性氣和緩之婦, 胸次坦夷, 服藥易愈, 若性急悍妒之婦, 習與性成, 服藥百帖方愈, 必須忌口絕慾戒性爲要. [陰中腫塊如棗核者, 名陰茄, 匾如蕈者, 名陰蕈, 陰中極痒者, 名蝕瘡, 名愚瘡, 餘類倣此]

아녀자의 성정은 상당히 편협하여 울증이 상당히 많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심, 간, 위장의 화(火)가 갑자기 일어나고, 이어 음부에 부스럼이 생긴다.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서, 혹 음식상(陰蝕瘡)이 생기기도 하고, 음가(陰茄)가 생기기도 하고, 음심(陰蕈)이 생기기도 하고, 혹 감창(疳瘡)이 생기기도 하고, 혹 번화창(翻花瘡)이 생기기도 하고, 혹 특창(愚瘡)이 생기기도 하는데, 지극히 심한 통증이 있고 지극히 가려우며, 벌레가 기어가는 듯하며, 소변이 시원히 나오지 않고 고름이 나온다. 성품이 온화한 부인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 약을 복용하면 쉬이 낫지만, 성격이 급하고 질투가 심한 부인은 습성과 성품이 상호작용을 하여 백첩의 약을 복용하여야 낫는다. 먹는데 주의하고 탐욕을 줄이고 성품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부가 부어 덩어리가 생기되, 대추 씨 모양이면 음가(陰茄)라 부르고, 편평하여 버섯 모양이면 음심(陰蕈)이라 부른다. 음부가 지극히 가려우면 음식(蝕瘡)이나, 특창(특창)이라 한다. 나머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

服茯苓補心湯 ○補心養胃湯 ○內補托裏流氣飲 ○加味逍遙散.

복령보심탕 ○보심양위탕 ○내보탁리류기음 ○가미소요산을 복용한다.

外用冰黃膏 ○一抺散 ○薰洗方, 芭蕉根搗爛煎湯, 溫洗避風 ○用椒柳湯薰洗 ○黃鼈湯 ○麻黃湯.

외용으로 빙황고 ○일말산을 사용한다 ○훈증으로 씻는 방법으로, 파초근을 찢어 이겨 다린 후 따듯하게 씻고 바람을 피한다 ○초류탕(椒柳湯)으로 훈증하고 씻는다 ○항별탕 ○마항탕.

陰中極痒, 及蝕惡瘡, 用大蒜搗碎煎湯洗之, 後以杏仁燒烟盡研末, 絲綿包納陰戶 ○取鷄肝, 或牛肝, 豬肝煮熟, 乘熱納入陰戶, 其蟲入肝內 ○水銀, 輕粉, 雄黃, 和棗肉, 研細無星, 納陰戶 ○鯽魚膽搽之 ○烏賊魚骨, 爲末付之 ○桃葉取汁, 綿漬納陰中 ○狼牙濃煎洗, 綿漬納陰中 ○艾葉, 雄黃燒烟薰之 ○五倍子燒薰 ○陰痒難忍, 硫黃, 白礬煎洗之, 杏仁燒末, 油調付之, 內服歸脾湯 [加柴胡, 梔仁, 牡丹皮, 赤芍藥] ○陰爛, 孩兒茶, 鷄內金 [各一錢], 輕粉 [五分], 冰片 [三分], 爲末乾糝, 內服加味逍遙散.

음부가 지극히 가렵거나 식창 또는 특창이 생겼으면, 마늘을 찢은 다음 다려 씻는다. 이어 행인을 태워 연기가 다 빠지면 뽕아 가루를 낸 다음 명주천에 싸 음부에 밀어 넣는다 ○닭의 간, 또는 소나 돼지의 간을 취하여 삶아 익힌 다음 열이 식기 전에 음부에 밀어 넣는다. 벌레들이 간으로 들어온다 ○수은, 경분, 옹황을 대추 살과 같이 잘 섞어 곱게 가루 낸 다음 음부에 밀어 넣는다 ○붕어의 담으로 칠한다 ○오징어 뼈를 가루 내어 붙인다 ○복숭아나무의 잎으로 즙을

내어 솜에 적서 음부에 밀어 넣는다 ○낭아초 [狼牙] 를 진하게 달여 씻고, 솜에 적서 음부에 밀어 넣는다 ○쑥과 웅황을 태워 연기를 쐬다 ○오배자를 태워 쏘인다 ○음부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려우면, 유황, 백반을 다려 씻고, 행인을 태워 가루 낸 다음 기름과 섞어 붙인다. 귀비탕을 복용한다 [시호, 치자인, 목단피, 적작약을 더하다] ○음부가 문드러지면, 해아다(孩兒茶), 계내금 [각 1돈], 경분 [5푼], 빙편 [3푼] 을 가루 내어 마른 상태로 뿌리고, 가미소요산을 복용한다.

○陰中生瘡, 用黃芩湯薰洗, 付雄黃, 硫黃, 輕粉末 ○陰瘡, 與男子妒精瘡略同, 先以荊芥蛇床子煎湯, 溫洗拭乾, 用香油, 調蓄蘘散付之 ○陰茄, 用茄根燒灰末之, 香油調勻, 鵝毛潤內 ○陰中堅痛, 白礬 [五錢], 生大黃, 生甘草 [各二錢五分], 爲末, 綿包如棗核大, 入陰中. ○陰腫痛, 枳殼水漬炒熨, 四物湯 [加梔仁, 枚丹皮, 艸龍膽] 煎服

○음부에 부스럼이 생기면, 황금탕으로 훈증하여 씻고, 웅황, 유황, 경분 가루를 붙인다 ○음부에 부스럼이 생기면, 남자의 투정창과 대략 같다. 먼저 형개와 사상자를 끓인 물로 따스하게 씻고 말리고, 참기름에 축고산(蓄藁散)을 섞어 붙인다 ○음가에는 가지 뿌리를 태워 재를 가루 낸 다음, 향유와 잘 섞어 거위 털로 안을 윤택하게 한다 ○음부에 강한 통증이 있으면 백반 [5돈], 생대황, 생감초 [각 2돈 5푼] 를 가루 내어 솜으로 싸 대추 씨만 하게 만들어 음부에 밀어 넣는다 ○음부가 붓고 아프면, 지각을 물에 담갔다 볶은 것으로 찜질을 하고, 사물탕에 [치자인, 매단피, 초용담을 더하여] 다려 복용한다.

○陰腫如斗, 石雄 [一兩], 甘草 [五錢], 白礬 [二錢], 水煎洗. 又馬鞭艸搗付.
 又梁上鹿, 醋和付之. ○陰戶腫痛, 不閉, 寒熱, 逍遙散 [加知母, 地骨皮, 車前子] ○
 陰挺突出, 小柴胡湯 [合四物湯, 加草龍膽, 青皮] ○陰吹, 胃氣下泄, 陰吹而正喧,
 此穀氣之實也, 用豬膏 [半斤], 亂髮鷄子大 [三枚], 和煎髮消, 藥成, 分再服, 病
 從小便中出也. ○陰冷, 母丁香 [十粒] 研末, 縫紗袋如指大, 入藥末, 納陰戶. ○小便
 溼痛, 牛膝 [五兩], 酒 [二升], 煮半升去渣, 作三服. ○血結痛, 無故血尿, 龍骨
 [一兩] 研末, 熱酒調下一匙.

○음부가 뒷박만 하게 부으면, 석웅 [1량], 감초 [5돈], 백반 [2돈] 을 물에
 끓여 씻는다. 또한 마편초를 찢어 붙인다. 또한 대들보 위의 먼지를 초와 섞어
 붙인다. ○음부가 붓고 아프고 벌어져 있으면서 한열이 있으면, 소요산 [지모,
 지골피, 차전자를 더한다] 을 쓴다. ○음부에서 막대 모양의 물건이 아래로 튀
 어나오면 [陰挺突出], 소시호탕 [사물탕을 합하고 초롱담, 청피를 더한다]
 를 쓴다. ○음부에서 바람이 불어 나오는 원인은 [陰吹], 위기가 아래로 빠져
 음부를 통해 나와 소리가 난다. 이는 음식을 너무 실하게 먹어 그러하다. 돼지
 기름 [반 근], 계란 크기의 난발(亂髮) [3개] 을 같이 고아 머리카락이 녹으
 면 약이 완성된다. 둘로 나눠 두 번에 먹는다. 병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간다. ○
 음부가 차면, 모정향 [10개] 을 찢어 가루 내어, 비단 봉지를 손가락 크기만
 하게 만들어 약 가루를 담고, 음부 안으로 밀어 넣는다. ○소변을 볼 때 주위가
 축축하고 아프면, 우슬 [5냥], 술 [2되] 을 끓여 반 되가 되면 찌꺼기를 제거
 한 후, 세 번에 나눠 복용한다. ○음부에 어혈이 뭉쳐 아프면 [血結痛] 이유 없
 이 피 섞인 오줌이 나온다. 용골 [1냥] 을 갈아 가루 내어 뜨거운 술에 한 손가
 락 섞어 마신다.

† 加筆 가필

- 《採蘭雜誌》: 一婦人病陰中痒苦甚, 平日奉觀世音像甚謹, 見一尼持一函, 至曰煎此洗之即愈矣. 尼忽不見, 啓視之乃蛇床子, 吳茱萸, 苦參也.
- 《채란잡지》: 어떤 부인이 음부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가려워 고생하고 있었다. 매일 관음상을 보고 열심히 빌고 있었는데, 상자를 들고있는 비구니 한 분이 나타나났다. 하루 내내 다린 다음 씻으면 바로 낫는다고 말하였다. 그러곤 홀연히 사라졌다. 상자를 열어보니 다름 아니라 사상자, 오수유, 고삼이 들어 있었다.

1. 桑槐枝: 《聖濟總錄》의 "桑枝, 槐枝 [各四兩, 慢火煎令黃熟, 去桑槐枝後, 下諸藥]" 라는 문구를 참조하여, 상지와 꾀지로 해석하였다. ※역자주 <

2. 灸: 灸 ※문맥상 <

3. 黑鉛五錢化開, : 《瘍醫大全》에 나오는 "升白靈藥法, 生鉛, 水銀 [各一兩], 礪砂 [三錢] 先將鉛化開, 入水銀, 即取出爲末, 再入礪砂共研, 听用."라는 문장을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역자주 <

濕瘡

습창

凡無名毒瘡, 及浸淫流膿者, 摠謂之濕瘡, 蓋風濕之所祟也. 專以攻毒去濕爲治法.

賺瘡及諸般惡瘡, 當以此法治之.

일반적으로 특정한 명칭이 없는 독으로 인한 종기나, 축축하다가 짓물러 고름이 나는 종기를 모두 합쳐 '습창'이라 부른다. 대개 풍습이 발미가 되어 생긴다. 독을 제거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법이다. 겸창(賺瘡)과 제반 독한 종기도 당연히 이 치료법으로 치료한다.

服玄參酒 ○蠟礬丸 ○平血飲 ○涼血飲 ○連翹飲 ○疏風解毒散.

현삼주 ○납반환 ○평혈음 ○양혈음 ○연교음 ○소풍해독산을 복용한다.

外用, 海釜浮散 ○眞君妙貼散 ○萬應膏 ○麒麟¹膏 ○白蟲油 ○百花油 ○百膽膏 ○攻瘍丹 [瘡久不愈, 則用此藥末, 入狗膽調勻, 攤紙上貼之]

외용으로, 해부부산 ○진군묘첩산 ○만응고 ○기린갈고 ○백충유 ○백화유 ○백담고 ○공양단 [종기가 오래되도록 아물지 않으면, 이 약 가루를 개의 담 속에 넣고 잘 섞은 다음 종이 위에 잘 발라 붙인다] 을 쓴다.

薰洗方, 石硫黃水煎洗 ○五倍子煎水薰洗 [或燒煙薰之] ○石灰淋取汁溫洗 ○裹鹽艸席 [小古音去積], 剉切煎洗 ○桑灰水溫洗 ○豆腐水洗 ○海水溫洗 ○蛇床子煎湯洗 ○貴隴樹枝葉煎湯洗 ○蜀黍稭剉煎洗 ○蘿菈莖葉陳久者, 煎湯洗之 ○枸橘 [搗

子] 煎洗 ○槐枝, 蔥白, 川椒, 煎湯淋洗 ○黃柏, 茵陳, 荊芥, 蔥白, 藿香, 煎水淋洗 ○
艾葉, 細茶, 蔥白, 挑枝, 柳枝, 川椒, 濃煎湯, 入鹽頻洗 ○艾葉燒薰, 出惡水 [黃柏, 同
輕粉, 豬膽, 貼之] ○浸淫瘡, 百方不效, 水銀 [二錢], 百艸霜 [一兩], 和熟艾作
炷, 口含漿水²薰之, 勿見風.

훈증으로 씻는 처방: 석유황(石硫黃)을 물에 끓여 씻는다 ○오배자 끓인 물에
훈증하여 씻는다 [또는 태워 연기로 훈증한다] ○석회에 물을 조금 부어 흐르
는 좁으로 따스하게 씻는다 ○풀방석으로 소금을 싸고 [소금 거적], 이 거적
을 잘게 썰어 물에 다려 씻는다 ○뽕나무 잣물로 따스하게 씻는다 ○두붓물에
씻는다 ○해수를 따스하게 데워 씻는다 ○사상자를 물에 끓여 씻는다 ○귀룽수
(貴隴樹)의 가지와 잎을 끓여 씻는다 ○촉의 땅에서 나는 기장의 짚의 고갱이
를 끓여 씻는다 ○무의 줄기와 잎 중 오래된 것을 골라 끓여 씻는다 ○구굴 [탕
자] 을 끓여 씻는다 ○괴화나무 가지, 총백, 천초를 끓여 조금씩 흘리면서 씻는
다 ○황백, 인진, 형개, 총백, 곽향을 끓여 조금씩 흘리면서 씻는다 ○애엽, 세다,
총백, 복숭아나무 가지 [挑枝], 버드나무 가지 [柳枝], 천초를 진하게 다린
다음, 소금을 넣고 자주 씻는다 ○애엽을 태워 훈증하면 나쁜 물이 나온다 [황
백을 경분, 저담(豬膽)과 같이 붙인다] ○침음창에 어떤 약도 효과가 없으면,
수은 [2돈], 백초상 [1량] 을 잘 익은 쭉과 섞어 막대기 모양으로 만든다. 구
함장수(口含漿水)로 입을 깨끗이 씻은 다음 앞의 약으로 훈증한다. 바람을 씌
면 안 된다.

乾碧魚 [貫目] , 燒存性, 香油調付 ○酸漿置瓦上, 噴燒酒, 燒存性, 香油調付 ○燮履底皮, 燒存性, 香油調付 ○水芹葉, 焙乾爲末, 香油調付 ○北衫脂付之 ○蛇退燒末, 醋調付之 [又治落痂似癩者] ○蟾蜍燒灰, 油調付 [治諸惡瘡] ○胡麻嚼付 [又生胡麻油塗之, 又生麻油亦可] ○羊蹄根搗付 ○馬齒莧搗付 ○牛糞上黑菌作末, 和油塗之 ○牛脂攤紙付之 ○熊膽, 狗膽, 皆可付之 ○豬脂, 豬膽, 俱可貼之 ○苦練根, 燒存性, 豬脂調, 先以大腹皮, 苦參煎湯洗, 付之 [治浸淫瘡, 延及遍身] ○眞珠, 朱砂, 白礬, 綠礬, 雄黃, 硫黃, 赤石脂, 石膏, 玄明粉, 硼砂, 硃砂, 砒礪, 石灰, 水銀, 輕粉, 白蠟, 自然銅, 松脂, 黃柏, 乳香, 沒藥, 龍腦, 五倍子, 巴豆, 大風子, 血竭, 菖蒲, 漏蘆, 蛇床子, 蒼耳, 貝母, 白芷, 白鮮皮, 大黃, 藜蘆, 白斂, 白芨, 蛇含, 商陸, 百合, 山茨菰, 孩兒茶, 露蜂房, 蟾酥, 蛇退 [燒存性], 蜣螂, 穿山甲, 麝香, 鼯鼠 [作膏塗之], 黃鼠, 鷄內金 [或燒存性], 百草霜, 梁上塵, 亂髮灰, 右爲末, 或單用一味, 或兼用數種, 或糝之, 或以香油, 黃蠟, 熊膽, 狗膽, 豬脂, 豬膽等汁調勻, 攤紙貼之.

말린청어 [관목] 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참기름에 잘 섞어 붙인다 ○파리 [酸漿] 를 기와 위에 놓고 소주를 입에서 뱀어 적신 다음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향유와 잘 섞어 붙인다 ○페리저피(燮履底皮)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향유와 섞어 붙인다 ○수근의 잎을 은근한 불에 말려 가루 내어 향유와 섞어 붙인다 ○배삼지(北衫脂)를 붙인다 ○사퇴를 태워 가루 내어 초와 잘 섞어 붙인다 [또한 피부에서 딱지가 떨어져 나와 나병과 같이 보이는 것도 치료한다] ○두꺼비를 재가 될 정도로 태워 기름과 섞어 붙인다 [모든 악창을 치료한다] ○제반 개 [胡麻] 를 씹어 붙인다 [또한 생호마유를 바른다. 생마유도 좋다] ○양제근을 찢어 붙인다 ○마치현을 찢어 붙인다 ○소똥 위에 생기는 검은 버섯을 가루 내어 기름과 잘 섞어 바른다 ○소기름 [牛脂] 을 종이에 잘 펴

붙인다 ○웅담, 구담 둘 다 붙여도 좋다 ○저지(豬脂), 저담(豬膽) 둘 다 붙여도 좋다 ○고련근을 성질이 보존될 정도 태워 돼지기름과 잘 섞는다. 먼저 대복피, 고삼을 끓여 씻고, 이어 이것을 붙인다 [침음창이 온몸으로 퍼진 것을 치료한다] ○진주, 주사, 백반, 녹반, 웅황, 유황, 적석지, 석고, 현명분, 봉사, 망사, 비상, 석회, 수은, 경분, 백랍, 자연동, 송지, 황백, 유황, 몰약, 용뇌, 오배자, 파두, 대풍자, 혈갈, 창포, 루노, 사상자, 창이, 패모, 백지, 백선평, 대황, 려노, 백렴, 백급, 사함, 상륙, 백합, 산자고, 해아다, 노봉방, 두꺼비, 사퇴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운다], 쇠똥구리, 천산갑, 사향, 두더지 [고(膏)를 만들어 붙인다], 족제비, 계내금 [혹은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운다], 백초상, 양상진, 난발회, 이상을 가루 낸다. 한가지 약재를 사용해도 되고, 여러 약재를 같이 사용해도 된다. 가루로 뿌리거나, 향유, 황납, 웅담, 구담, 돼지기름 [豬脂], 돼지 쓸개 [豬膽] 등의 즙과 같이 섞어 종이 위에 잘 발라 붙여도 된다.

遍身生瘡, 粘著衣被, 夜臥不睡, 石菖蒲作末, 厚鋪席上, 恣臥轉側 ○滑石末, 屋爛艸末, 俱如上法.

온몸에 종기가 생겨 옷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밤에 잠들지 못하면, 석창포를 가루 내어 돗자리에 두툼하게 펼쳐놓고 적당히 누워 좌우로 뒹군다. ○활석 가루, 옥난초(屋爛艸) 가루, 모두 위의 방법과 같이 사용한다.

諸瘡殺蟲, 香油一種, 入竹筒, 以大蜘蛛數箇沈之, 夏則二十日可用, 先以溫水洗之, 以紙撚漬油, 插瘡孔, 或塗之 ○鵲鳥, 取油塗之 ○輕粉, 入藥貼之 ○班貓, 藜蘆付之 ○苦練根燒灰, 豬膽汁和付, 乾則又塗.

모든 종기의 벌레를 죽이는 법: 향유를 죽통에 넣고 큰 거미 몇 마리를 여기에 빠뜨린다. 여름에는 20일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은 다음 종이 심지로 기름을 찍어 상처 구멍에 밀어 넣는다. 또는 기름을 바른다 ○ 황새의 기름을 짜서 발라준다 ○ 경분을 약에 넣어 붙인다 ○ 반묘(班貓)와 려노(藜蘆)를 붙인다 ○ 고련근을 불에 태운 재를 돼지 쓸개 [豬膽] 즙에 섞어 붙인다. 마르면 또 바른다.

生肌, 同上癰疽治法 ○ 用寒水生肌散 ○ 香油, 黃蠟, 松脂, 油髮灰各等分, 融化待凝貼之.

새살을 돋게 하는 데는 위의 옹저 치료법을 그대로 쓴다 ○ 향유, 황납, 송지, 유발회를 등분하여 불에 살짝 녹였다가 다시 굳으려 할 때 붙인다.

† 加筆 가필

- 凡瘡癰之始如散粟, 終而浸淫流膿者, 以蓼藍汁, 調滑石末塗之, 神效. 蓼藍卽 쪽집.
- 대개 종기와 부스럼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저기 좁쌀만 한 것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짓무르면서 고름이 난다. 요람(蓼藍)의 즙에 활석 가루를 잘 섞어 붙인다. 효과가 귀신같다. 요람은 곧 쪽의 즙이다.

¹: 蠅 蠅 *문맥상 ²: 口含漿水 : 《普濟方》의 "用口含漿水洗淨, 以乾薑末塗貼." 문구를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역자주



疥瘡

개창

疥瘡有五, 曰乾疥, 曰濕疥, 曰砂疥 [細如砂子], 曰蟲疥 [痒不知痛, 易於傳染], 曰膿疥 [合漿稠膿, 色厚焮痛], 而治法則同.

개창에는 5종류가 있다: 건개(乾疥), 습개(濕疥), 사개(砂疥) [크기가 모래만 하다], 충개(蟲疥) [가려운데 통증은 없고, 전염이 쉽게 된다], 농개(膿疥) [끈적거리는 진한 고름이 나고, 색이 짙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 다만 치료법은 대동소이하다.

服淸肌湯 ◦淸心瀉火丸 ◦當歸飲子 ◦何首烏散 ◦浮萍散.

청기탕 ◦청화사화환 ◦당귀음자 ◦하수오산 ◦부평산을 복용한다.

洗法, 茄根莖葉, 煎湯溫洗 ◦樗根皮, 煎湯洗 ◦何首烏, 陳艾, 濃煎浸洗. ◦冬瓜藤, 煎湯浸洗 ◦溫泉洗浴最妙.

씻는 법: 연의 뿌리, 줄기, 잎을 물에 다려 따스하게 씻는다 ◦저근피를 물에 다려 씻는다 ◦하수오, 오래된 쑥을 진하게 다려 몸을 전체를 담가 씻는다 ◦동과 등(冬瓜藤)을 다려 몸을 담가 씻는다 ◦온천에 목욕하는 게 가장 좋다.

搽藥, 用二石散 ◦防風散 ◦合掌散 ◦一擦忘痒膏 ◦信石膏.

바르는 약: 이석산(二石散) ◦합장산(合掌散) ◦일찰망양고(一擦忘痒膏) ◦신석고(信石膏)를 사용한다.

用小麥一升, 鍋內炒焦, 水銀一兩, 攪和如星, 取出爲末, 用菜油調搽 ○羊蹄根搗, 和醋付之 ○硫黃, 蛇床子, 白礬 [各二錢], 水銀滓 [三錢], 爲末薑汁調擦.

밀 1되를 노구슬에 넣고 검게 되도록 볶은 것에 수은 1냥을 넣어 저어 벌 같이 반짝거리면 꺼내어 가루 낸다. 채유(菜油)를 넣고 잘 저은 다음 붙인다.

薰法, 信石洗細 [四五錢], 和熟艾, 蒸火 [以熨斗熾炭蒸之]. 先使病人脫衣, 以麪和水作稠糊, 緊封囊莖, 外以厚紙重裹, 坐小凳上, 以衾周圍自項以下, 不使泄氣 [或以竹作簍, 糊紙代衾用之]. 以艾火置衾中薰之, 出大汗, 飲菉豆粥, 久坐凳上, 令止汗, 然後改衣, 必效 [一薰不效, 則至再薰三薰]. 五疥治法, 多方皆不及此, 惟賤人及壯實者, 可用此法, 貴人及老弱, 決不可用此法, 當慎施 [或以水銀代信石薰之, 口含冷水].

훈증법: 신석(信石) 수비한 것 [4, 5돈] 을 오래된 쑥과 잘 섞는다. 이어 숯불을 담은 인두를 가까이하여 쑥에 불을 붙인다. 앞서 환자에게 옷을 벗게 한 다음 밀가루 물 반죽을 끈적거릴 정도로 만들어 음경 전체에 발라 밀봉한다. 다시 그 위에 두꺼운 종이로 다시 한번 싼다. 이어 작은 걸상에 앉게 한 후 목 아래를 이불로 둘러 감싸, 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또는 대나무로 배통을 만들어 써도 되고, 풀 먹인 종이 대신에 이불을 사용해도 된다]. 다음으로 불 붙인 쑥을 이불 아래에 두어 훈증하여 땀을 많이 내고 녹두죽을 마신다. 그리고 한참 동안 걸상 위에 앉아 땀이 멎은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반드시 효과가 있다. [한번 훈증하여 효과가 나지 않으면 두세 번 반복한다.] 개창에 쓰는 처방이 다수 있긴 하나 어느 것도 이 방법에 미치지 못한다. 오직 천한 일

을 하는 사람이나 건장한 사람에게만 이 치료법을 쓸 수 있다.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나 노약자는 절대 이 방법을 써선 안 된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

[혹은 수은으로 신석을 대신하여 훈증할 수 있다며, 입에 찬물을 머금는다]

† 加筆 가필

- 水銀二錢重熏之, 勝於砒霜.
- 수은 2돈 정도로 훈증한다. 비상보다 효과가 좋다.

癬瘡

선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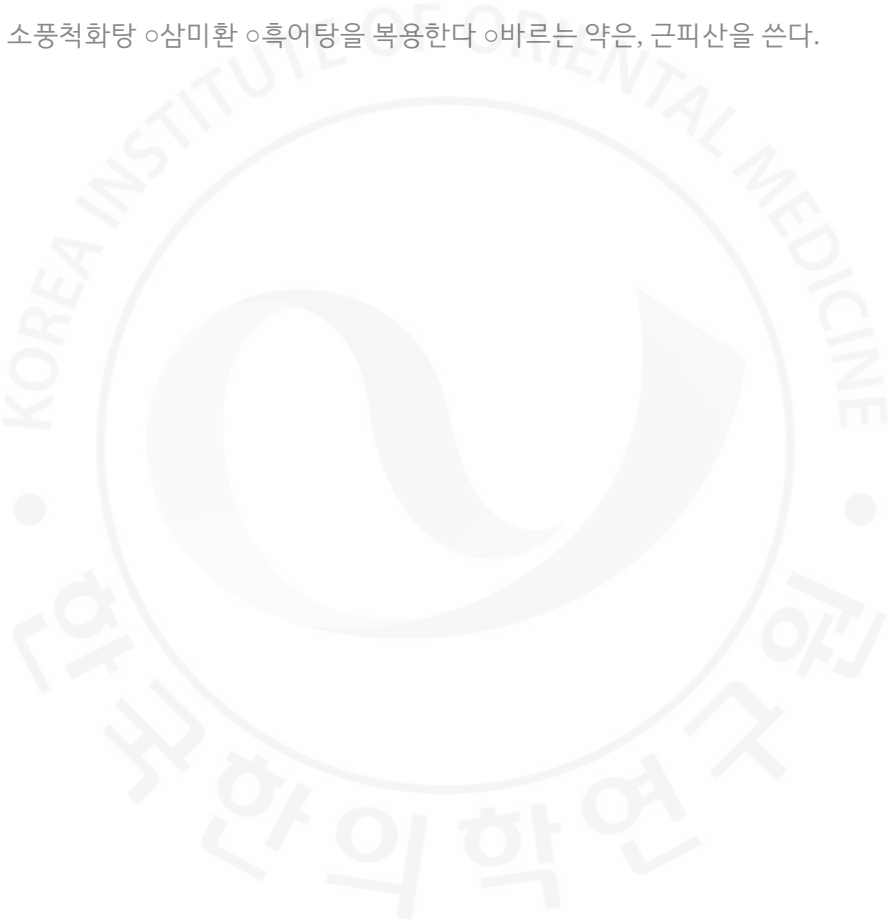
夫癬之生也, 由于脾經濕熱, 及肺氣風毒所致, 或坐臥當風, 酷暑漬水, 以致皮膚不仁, 遂成頑癬, 或如雲, 或如銅錢, 或如荷葉, 或長或歪, 其形不一. 發于上者, 屬陽易治, 發于下部者, 屬陰難愈. 年久者, 癬內濕熱所化, 有疥蟲極痒. 其名有六, 曰乾癬 [搔則出白屑], 曰濕癬 [搔則脂水浸淫, 如蟲在內極痒], 曰風癬 [搔則痺頑不仁, 不知痛痒], 曰牛癬 [其壯如牛皮堅而厚], 曰狗癬 [時作微痒, 白點相連], 曰刀癬 [輪郭皆無, 如雲岩之氣行無定]. 治法, 當清心火散肺風之藥服之 [与疥瘡互治].

일반적으로 선창, 즉 버짐은 비경의 습열이나 폐에 풍독이 들어 생긴다. 간혹 앉아 있거나 누워있을 때 바람이 들거나, 매우 더운 여름에 물에 들어가 피부의 감각이 없어지면 결국엔 완고한 버짐이 생긴다. 때론 구름 같이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 동전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연잎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혹은 길게 늘어져 있기도 하고 혹은 뽀뽀뽀뽀하기도 하여,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몸의 윗부분에 생기는 것은 양(陽)에 속하여 쉽게 치료가 되지만, 아래에 생긴 것은 음(陰)에 속하여 치료가 어렵다. 일 년이 다 될 정도로 오래되면 버짐 속의 습열이 변하여 개충이 생겨 매우 가렵게 된다. 6종이 있어 각각 명칭이 다르다. 건선(乾癬) [긁으면 하얀 각질이 떨어진다], 습선(濕癬) [긁으면 기름이 섞인 물이 질편하게 나오며, 벌레가 안쪽에 생기면 매우 가렵다], 풍선(風癬) [긁으면 피부의 감각이 무뎌져 통증과 가려움을 모른다], 우선(牛癬)

[모양이 소의 피부처럼 단단하고 두껍다], 구선(狗癰) [때때로 약간 가렵고
흰 반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도선(刀癰) [테두리가 전혀 없어 마치 구름
덩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모양이다].

服疏風滌火湯 ◦三味丸 ◦黑魚湯 ◦搽藥, 用槿皮散.

소풍척화탕 ◦삼미환 ◦흑어탕을 복용한다 ◦바르는 약은, 근피산을 쓴다.



牙疳瘡 [咽喉諸條互詳]

아감창 [인후의 각 조문과 상호 참조한다]

牙疳瘡, 胃中有熱, 熱流牙齦, 或浮高動搖, 膿聚成疳, 或拔齒後, 熱聚作膿, 或仍上焦客熱者. [灸三里七七壯, 針勞宮五分. ○服藥, 則用清胃之劑] ○地胃皮, 白芷 [各三錢], 煎水含漱. 蒲黃, 龍骨, 枯礬 [各一錢], 寒水石 [煨三錢], 血竭 [五分], 爲末糝之, 以紙封貼 ○鮑魚一頭, 去腸入砒 [一分], 生芡 [一兩], 燒存性爲末付之 ○五倍子, 燒研付之 ○白礬, 射香末, 糝之.¹

아감창은 위(胃)에 열이 있어 그 열이 이와 잇몸으로 흘러들거나 위쪽으로 떠오르며 요동치면 고름이 잡히면서 감병(疳病)이 된다. 혹은 이빨을 뽑은 후 열이 한곳으로 모여 고름이 잡히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상초에 쓸데없는 열이 나면 이 병이 생긴다. [삼리에 땀을 49장 뜨고, 노궁에 5푼 깊이로 침을 놓는다 ○내복약으로 위의 열을 내리는 약을 쓴다] ○지위피(地胃皮), 백지 [각 3돈] 를 물에 다려 입에 머금는다. 포항, 용골, 고반 [각 1돈], 한수석 [불에 달군 것, 3돈], 혈갈 [5푼] 을 가루 내어 뿌리고, 종이로 위를 밀봉하여 덮어 준다 ○부어 1마리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비상 [1푼], 생지황 [1냥] 을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우고 가루 내어 붙인다 ○오배자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가루 내어 붙인다 ○백반, 사향을 가루 내어 뿌린다.

¹. : 명나라 陳司成이 편찬한 《徽瘡秘錄》, 〈徽瘡方法〉과 거의 일치한다. 창양

경험전서》에 권13으로 실려 있는 미창비록총론(黴瘡秘錄總論)을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대 판본의《창양경험전서》는 12권이었으나 1717년본에서 미창비록총론(黴瘡秘錄總論)이 증보되어 13권이 되었다. ※역자주 ↩



黴瘡 [一名楊梅瘡, 一名廣東瘡, 一名薄皮瘡, 一名天庖瘡.

或曰天庖与黴瘡不同]

미창 [양매창, 광동창, 박피창, 천포창이라고도 한다. 혹자는 천포와 미창은 같이 앓다고도 한다]

夫黴瘡爲患, 正氣不虛, 則邪毒不入. 如肝氣虛, 邪毒乘之, 則發橫痃, 或成魚口, 甚則筋疼, 瘡如砂仁. 腎氣虛, 邪毒乘之, 則生下疳, 或爲蛀梗, 甚則骨痛, 瘡如爛柿. 肺氣虛, 邪毒乘之, 則毒聚於上, 不爲筋疼, 必生瘡如花. 脾氣虛, 邪毒乘之, 則毒流四肢, 不作骨疼, 必生瘡如痘. 心氣虛, 邪毒乘之, 則發大瘡, 形如楊梅, 左右上對而作楚. 有一經獨虛而邪氣獨盛者, 有兩經三經同虛而齊病者, 有現於外而滿身生瘡者, 有伏於內而遍體骨痛者. 所以出入無常, 隱見不一也. 當詳究脈理, 按其毒氣有無輕重. 應發表則當發表, 應攻裏則當攻裏, 應疎利則當疎利, 應溫補則當溫補, 應涼解則當涼解. 勿令虛實顛倒, 斲削元神. 蓋病重而藥輕者, 但無近效, 病輕藥重者, 必生他變. 所以, 治此症者, 須標本兼治, 不可偏施, 以攻邪補元爲主.¹⁾

미창의 발생 기전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정기가 약하지 않으면 사기의 독 [邪毒] 이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간기가 허하면 [肝氣虛] 독한 사기가 이를 틈 타 발생하여 가래뚝이 붓거나, 임파선이 물고기 주둥이와 같이 붓는 어구창(魚口瘡)이 생긴다. 심하면 근육에 묵직한 통증이 생기고 종기가 사인(砂仁) 모양을 띤다. 신기가 허하면 [腎氣虛] 사기의 독이 이를 틈 타 들어와 하감이 생기거나 나무굼벵이의 몸뚱아리 모양이 된다. 심하면 뼈까지 통증이 느

껴지고 종기의 모양은 썩은 감 모양을 띤다. 폐기가 허하면 [肺氣虛] 사기의 독이 이를 틸 톱 톱 들어와 위로 몰려 근육에 묵직한 통증은 생기지 않으면서 반드시 꽃 모양의 종기가 생긴다. 비기가 허하면 [脾氣虛] 사기의 독이 이를 틸 톱 들어와 사지로 흘러들어 뺨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은 생기지 않으면서 반드시 두창 모양의 종기가 생긴다. 심기가 허하면 [心氣虛] 사기의 독이 이를 틸 톱 톱 들어오면 엄청나게 큰 종기가 생기고 모양이 양매(楊梅)를 띠며, 좌우가 서로 대칭을 이뤄 모양이 예쁘다. 경맥 하나만이 허하여 독이 한 경맥에만 집중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두 경맥이나 세 경맥이 동시에 허하여 모두 병든 경우가 있다. 혹은 외부로 드러나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안으로 숨어들어 온 전신의 뺨속까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는 모양도 일정하지 않다. 당연히 맥의 원리를 상세히 따져보아 독기의 유무와 경증을 살펴야 한다. 응당 발표(發表)해야 하면 당연히 발표해야 하고, 응당 안쪽을 공격해야 하면 당연히 공리(攻裏)해야 한다. 응당 소통해야 하면 당연히 소리(疎利)한다. 응당 따듯하게 해주어야 하면 당연히 온보(溫補)해야 하고, 응당 시원하게 풀어 주어야 하면 당연히 시원하게 풀어 준다 [涼解]. 절대 허실을 반대로 착각하여 원기를 손상해선 안 된다. 대개 병이 위중한데 약이 경(輕)하면 다만 효과가 없는 것에 그치고 말지만, 병이 경한데 약을 독하게 쓰면 필히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따라서 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반드시 표본을 모두 한꺼번에 치료하여야 [標本兼治] 치료에 치우침이 없게 된다. 사기를 치고 원기를 보하는 것 [攻邪補元] 이 치료의 핵심이다.

肝經形症, 服養榮湯, 甲字化毒丸 ○腎經症, 補眞湯, 壬字化毒丸 ○脾經症, 補脾飲, 戊字化毒丸 ○肺經症, 益衛散, 庚字化毒丸 ○心經症, 安神散, 丙字化毒丸 ○結毒於肝膽經 [詳見], 乙字化毒丸, 膽艸湯 ○結毒於膀胱腎經, 癸字化毒丸, 茱萸散 ○結毒於脾胃經, 己字化毒丸, 山藥散 ○結毒於大腸肺經, 辛字化毒丸, 沙參湯 ○結毒於心小腸經, 丁字化毒丸, 遠志散 ○蔘芪化毒湯 ○牛黃化毒丸 ○牛黃蟾酥丸 ○萬病解毒丹 ○地黃煎 ○斷筋丸 ○化毒丸 ○殺蠱散 ○神效紫金丹 ○搜風解毒湯.

간경의 증상에는, 양영탕, 갑자화독환을 복용한다. ○신경의 증상에는, 보진탕, 임자화독환 ○비경의 증상에는, 보비음, 무자화독환 ○폐경의 증상에는, 익위산, 경자화독환 ○심경의 증상에는, 안신산, 병자화독환 ○독이 간과 담경에 맺히면 [자세히 나온다], 을자화독환, 담초탕 ○독이 방광과 신경에 맺히면, 계자화독환, 수유산 ○독이 비와 위경에 맺히면, 기자화독환, 산약산 ○독이 대장과 폐경에 맺히면, 신자화독환, 사삼탕 ○독이 심과 소장경에 맺히면, 정자화독환, 원지산 ○삼기화독탕 ○우황화독환 ○우황섬소환 ○만병해독단 ○지황전 ○단근환 ○화독환 ○살늑산 ○신효자금단 ○수풍해독탕를 복용한다.

薰洗方, 神攻防風湯浴洗 ○沐微方洗之 ○薰水銀法, 以黃銅鑄小鍾 [如烟鍾而稍大], 水銀五錢, 以吸煙津調均殺之. 盛以小鍾, 置炭上火, 則水銀焦而出煙. 以紙簍罩之, 以厚紙撚作筒, 插紙簍上, 以紙筒觜付當處薰之, 若薰鼻孔, 則男左女右, 薰時口含冷水.

훈증하여 씻는 법: 신공방풍탕으로 목욕하면 씻는다 ○목미방으로 씻는다 ○훈수은법(薰水銀法): 황동으로 주조한 작은 종지 [연종(烟鍾)과 비슷하나 이보다 약간 크다] 에, 수는 5돈을 놓고, 연기와 진액을 들이마시면 전체적으로 골

고루 벌레를 죽인다, 작은 종지에 담아 숯불 위에 올린다. 그러면 수은이 타들어 가면서 연기를 낸다. 이때 종이 배롱 [紙簾] 으로 덮어 씌운다. 두꺼운 종이를 꼬아 대통 [紙筒] 을 만들어 종이 배롱 [紙簾] 에 꽂는다. 이어 종이 대통 [紙筒] 주둥이를 환처에 갖다 대고 훈증한다. 콧구멍을 훈증할 때는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을 하며, 훈증할 때 입에 찬물을 머금는다.

搽藥, 用珍珠散 ◯蚊蛤散 ◯黃信散 ◯廣瘡膏.

바르는 약: 진주산 ◯문합산 ◯황신산 ◯광창고를 쓴다.

諸症治法: 橫痃諸症, 通氣飲 ◯便毒諸症, 消毒飲, 五虎湯, 內托散, 透膿散 ◯下疳諸症, 解毒湯, 解毒丸, 加味化毒飲. 洗以參椒湯, 糝以海巴散 ◯下疳, 便毒同起, 解表飲, 加味風流飲. 凡患疳瘡便毒未愈, 有生瘡之兆, 預用麻油 [八兩], 入自己頭髮 [三五錢] 煎化, 作二次服 [再服數劑亦可], 可免面部生瘡 ◯凡患筋骨疼痛, 先服化毒丸七日, 外用熨烙方 ◯凡患喉癰, 久不愈, 先服化毒丸七日, 外用珍瑤散吹入 ◯凡患鵝掌風癰, 先服化毒丸九日, 外用桐油薰洗方, 擦五色粉霜, 千里膏.

제증치법: 횡헌 제증에는, 통기음 ◯변독 제증에는, 소독음, 오호탕, 내탁산, 투농산 ◯하감 제증에는, 해독탕, 해독환, 가미화독음. 삼초탕으로 씻고, 해파산을 뿌린다 ◯하감, 변독이 같이 생기면 해표음, 가미풍류음. 대개 하감과 변독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새로운 종기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 예방으로 삼씨 기름 [8냥] 에, 자기 머리카락 [3, 5돈] 을 넣고 고아 녹인다. 이를 두 차례 나눠 복용한다 [여러 번 몇 제를 복용해도 된다]. 그러면 얼굴에 종기가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대개 근과 뼈에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면 먼저 화독환 7일 복용하고, 외용으로 울락방을 사용한다 ◯대개 후선(喉癰)이 생겨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먼저 화독환을 7일 복용하고, 외용으로 진요산을 흡입한다 ○대개 아장 풍선(鵝掌風癬)으로 고생하면 먼저 화독환을 9일 복용하고, 외용으로 오동나무 기름으로 훈증하여 씻는다. 오색분상(五色粉霜)이나 천리고(千里膏)로 문지른다.

諸症詳, 殺蠱散加減用之 ○難治者孕婦也, 用加味芩朮湯 [連服數劑], 一則安胎, 二則治蠱, 分娩後待其蘇完, 用殺蠱散, 無不奏效. 若不用藥, 百無保胎之理, 或有順產者, 兒無完肌. 過三七日後, 用黑豆丸. 若母病未除, 雖服無靈.

제반 증상에는 살닉산을 가감하여 사용한다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임신한 부인이다. 가미금출탕을 사용한다 [몇 제를 연달아 복용한다]. 가장 먼저 태아를 안정시키고 [安胎], 그다음 벌레 먹는 병을 치료한다.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한 다음 살닉산을 쓰면 효과가 나지 않은 적이 없다. 만약 약을 쓰지 않으면 뭘 해도 태아를 보전할 도리가 없다. 혹간 순산하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아이의 살이 온전하지 않다. 21일 지나면 흑두환을 쓴다. 만약 어미의 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비록 복용하여도 소용이 없다.

解毒輕粉毒, 用杜仲解毒湯, 奇良酒, 外用輕粉膏, 香茶散 ○解諸金石毒, 陳醬水, 豬脂, 蘆根, 黃土, 大棗, 豬蹄甲, 冬瓜汁, 大麻子, 馬齒莧, 黑豆汁, 葛粉, 青梁米, 綠豆汁, 忍冬, 土豬肉, 兔肉, 陰煉秋石, 生梨汁, 葵菜, 獼猴桃, 車前子, 鮡魚, 芋, 土茯苓, 川椒, 藍汁, 雁肪, 豬血, 人參, 麥門冬, 或煎或汁服.

경분독을 풀기 위해선 두충해독탕, 기량주(奇良酒)를 쓰고 외용으로 경분고, 향다산을 쓴다 ○제반 금석독(金石毒)을 해독할 때는, 진장수, 저지, 노근, 향토, 대조, 저제갑, 동과즙, 대마자, 마치현, 흑두즙, 갈분, 청량미, 녹두즙, 인동,

토저육, 토육, 음련추석(陰煉秋石), 생리즙, 규채, 미후도, 차전자, 부어, 우, 토
복령, 천초, 남즙, 안방, 저혈, 인삼, 맥문동을 다리거나 즙을 내어 복용한다.

病愈後調治: 精血未復, 加味地黃丸 ◯精髓空虛, 補髓丸 ◯精神恍惚, 升痰動火, 煩
渴, 安神丸 ◯脾胃虛弱, 飲食少進, 肌膚不澤, 助胃膏 ◯婦人氣血衰少, 發熱作嗽, 加
味養榮湯.

병이 나은 후 조리법: 기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면 가미지황환 ◯정수가 빠
져나갔으면 보수환 ◯정신이 혼미하고 가래가 끓고 화기가 있어 목이 마르면
안신환 ◯비위가 허약하여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섹택이 좋지 않으면, 조
위고 ◯부인이 기혈이 부족하여 열이 나고 가래가 끼면 가미양영탕.

† 加筆 가필

- 黴瘡 ㉠㉡
- 미창 ㉠㉡
 - ㉠瘡 ㉠㉡ ㉠㉢
 - ㉠창 ㉠㉡ ㉠㉢
- 治唐瘡神方
- 당창을 치료하는 신기한 처방
 - 採茅根下結如大豆者, 俗謂之茅腎, 二三升濃煎, 入石硫黃五錢 [作末],
盛缸跨而熏之二三次, 各別煎右藥, 則蟲盡死, 而形不毀, 聲不嘶. 蓋神藥
云, 而金秋史所傳方.
 - 뿌리 아래에 달린 꽤근 중에 대두를 닮은 것을 채집한다. 세속에서 모신이

라 부른다. 2, 3되 진하게 끓인다. 여기에 석유황 5돈 [가루를 낸다] 넣고 향아리에 담아 걸터앉아 2, 3차례 훈증한다. 위의 약을 각각 별도로 끓여 사용해도 벌레가 모두 죽지만, 몸에는 전혀 해가 없고 목소리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이라고들 한다. 추사 김정희가 전한 처방이다.

- 蝎虎 [도마비암] : 麻油半鍾子, 炭火沸之, 以綿繫蝎虎尾入沸油中, 待蝎虎盡消後, 揭綿去其皮後飲油, 飲蝎虎油三箇者, 爲三次, 則唐瘡無不差云.
- 도마뱀: 삼씨기름 반 종지를 숯불 위에 놓고 끓인다. 도마뱀 꼬리를 솜으로 묶고 끓는 기름에 넣는다. 도마뱀이 모두 녹으면 솜을 건어내고 피부를 제거한 후, 기름을 마신다. 도마뱀 기름을 3번 반복해서 마시고, 이를 3번 하면 당창이 반드시 낫는다고들 한다.

¹. : 명나라 陳司成이 편찬한 《微瘡秘錄》, 〈微瘡方法〉과 거의 일치한다. ※역

大麻風窓

대마풍창

服胡麻散 ○白花蛇丸 ○蕪荑酒 ○秦艽散 ○若參, 或丸服, 或酒浸飲, 或同豬肚煮食, 殺蟲 ○蛇肉, 入苦參, 丸服 ○蛇退, 燒和酒服 ○何首烏, 同胡麻九蒸, 酒服.

호마산 ○백화사환 ○무이주 ○진교산을 복용한다 ○고삼을 환으로 복용하거나 술에 담가 복용한다. 또는 돼지 위장에 넣고 익혀 복용한다. 그러면 벌레가 죽는다 ○뱀고기에 고삼을 넣고 함께 환을 지어 복용한다 ○뱀 껍질을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술에 타 복용한다 ○하수오를 호마, 즉 깨와 같이 구증한 다음 술로 넘긴다.

† 加筆 가필

- 麻風瘡, 以松脂作丸, 多多吞之, 以瘥爲度.
- 마풍창에는 소나무 진으로 환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복용한다. 나을 때까지 복용한다.
- 鱉大如盤者, 陰乾作末, 溫水吞下, 神效.
- 소반만 한 자라를 그늘에 말려 가루 내어 따스한 물에 삼킨다. 신비한 효과가 있다.



金瘡 [刀鎗傷]

금창 [도창상]

金瘡, 悶絶不識, 入琥珀研, 童便調一錢服, 牡丹皮末, 酒服, 尿出血 ○石灰, 和溫水付, 定痛止血 ○磁石細末, 水調貼之 ○水醬塗之 ○熟艾付之 [或薰烟] ○無名異, 血竭, 琥珀, 葛根, 蔥, 石榴花, 蛇含艸, 青蒿, 小薊, 糝付皆可. ○刀鎗斫傷, 用匾柏搗爛, 加白蜜和勻, 傅患處, 縛緊乾, 自愈矣. 又用何首烏搗爛, 加糟少許, 縛定骨傷處 ○刀傷, 用未出毛老鼠, 同陳石灰, 棟樹, 根白皮, 車前子, 同搗爛作餅, 陰乾爲末糝之 ○金瘡中風, 生葛根一升, 水一斗, 煎半去滓, 又煎至半, 分三服, 乾則爲末, 三指撮取, 入溫酒服. 口噤, 多服竹瀝, 生葛汁.

금속에 상처가 나 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으면, 호박(琥珀) 가루를 동변에 1돈을 풀어 복용한다. 목단피 가루를 술에 복용하면 혈뇨가 나온다 ○석회를 따스한 물에 타서 붙인다. 그러면 통증이 멎고 지혈이 된다 ○자석을 곱게 가루 내어 물에 타서 붙인다 ○담담한 간장 [水醬] 을 바른다 ○오래된 쑥을 붙인다 [또는 연기를 쐬다] ○무명석 [無名異], 혈갈, 호박, 갈근, 파 [蔥], 석류화, 사함초, 청호, 소계를 뿌리거나 붙이면 모두 효과가 있다. ○칼이나 쟁기에 베여 상처가 나면 편백 [用匾柏] 을 찢어 이긴 다음 흰 꿀을 잘 섞어 환처에 붙이고 끈으로 동여맨다. 마르면 저절로 낫는다. 또는 하수오를 짓이겨 여기에 술지게미를 약간 넣고 뼈가 상한 곳에 단단히 동여맨다 ○칼에 베이면 털이 나지 않은 늙은 쥐를, 오래된 석회 [陳石灰], 용마루 나무 [棟樹], 근백피, 차전자와 함께 문드러지게 찢어 떡을 만든다. 그늘에 말려 가루 내어 뿌린다 ○

금속에 다치어 중풍이 생기면 생갈근 1근, 물 1말을 끓여 반이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다려 4분의 1일 되면 3번 나누어 먹는다. 마른 것은 가루 내어 세 손가락에 집히는 정도를 따스한 술에 넣어 복용한다. 입을 악물면 [口噤] 죽력, 생갈근즙을 복용한다

† 加筆 가필

- 中創, 血如箭出, 炒原蠶蛾末傳之立愈 [趙葵, 行營雜錄].
- 창에 찔리어 피가 샘솟듯 나오면 볶은 원잠아 가루를 뿌려주면 바로 낫는다 [조규의 《행영잡록》].
- 延日礪石末, 松麝皮末, 右二種, 火瘡亦用之.
- 경상북도 연일에서 나는 여석 가루, 소나무 껍질에서 바깥 부위의 거친 부분, 이상 2종은 화창에 사용하여도 좋다.

杖瘡

장창

杖畢, 卽用童便, 好酒各一鍾合而溫服, 免血攻心。○杖瘡, 只是血熱作痛, 用涼藥, 去瘀血。○用針刺當處數三穴, 出惡血, 溫水沃之, 盡去瘀黑, 蔥白搗爛炒, 熱付。○大黃, 黃柏末, 生地黃汁調付。○鳳仙花根葉搗付, 乾則易, 血散。○屋爛艸 [西近賽], 爲末付。○若皮不破而內損, 蘿菔搗付。痛甚, 當歸 [酒洗五錢], 乳香, 沒藥 [各二錢], 水煎和酒服。○¹嘔逆不食, 白茯苓, 當歸 [各三錢], 生薑 [五片], 水煎和童便服。² [杖瘡之人, 雖熱悶, 勿食生梨, 必死。產母同]。

곤장을 다 맞고 나면 곧바로 동변, 좋은 술 각 1종지 정도를 합하여 따스하게 마신다. 그러면 어혈이 심장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곤장을 맞아 상처가 생기면 피가 뜨거워져 [血熱] 통증이 생기니, 찬 약을 사용하여 어혈을 제거한다。침으로 상처 부위를 서너 혈 찔러 나쁜 피를 빼내고 따스한 물로 씻는다. 검은 어혈이 모두 제거되면 총백을 짓이겨 찜고 볶아, 따스할 때 붙인다。○대황, 황백 가루, 생지황 즙을 잘 섞어 붙인다。○봉선화의 뿌리, 잎, 줄기를 찢어 붙인다. 마르면 바꾼다. 그러면 어혈이 흡수된다。○옥난초(屋爛艸) [서근새 (西近賽)] 를 가루 내어 붙인다。○만약 피부는 멀쩡한데 피부 안쪽이 손상되었으면 무를 찢어 붙인다. 통증이 심하면 당귀 [술에 씻은 5돈], 유향, 몰약 [각 2돈] 을 물에 다려 술과 섞어 복용한다。○구역질을 하며 식사를 하지 못

하면, 백복령, 당귀 [각 3돈], 생강 [5편] 을 물에 다려 동변과 같이 섞어 복용한다 [곤장으로 상처가 생긴 사람은 비록 더워 어찌할 줄 몰라도 절대 생(生) 배를 먹으면 안 된다. 틀림없이 죽는다. 산모도 이와 같다] .

1. : 鳳仙花搗付, 乾則易之 ○若皮不破而內損, 蘿福, 搗付, 痛甚, 當歸酒洗五
錢, 乳香, 沒藥各二錢, 煎水, 和酒服. 老吏傳. ※《廣濟秘笈》↩

2. : 《廣濟秘笈》장창 인용 ※역자주 ↩

凍瘡

동상

凍瘡爛痛, 生附子末, 麪水調付. 又大黃末水調塗. 〇雉腦, 兔腦, 雀腦等髓付之 [雞腦亦可, 或入黃蠟, 清油, 熬膏貼之] 〇耳凍瘡爛, 貝母末糝之. 又黃柏, 白欝末, 塩湯洗後, 油調付之. 〇足凍瘡爛, 黃丹, 豬脂調付. 〇足跟凍瘡, 以川椒煎湯, 洗刮去腐肉, 針刺出血, 馬勃末, 調牛骨髓付之. 〇五倍子煎水浸洗. 〇馬糞水浸之 [勿以溫水洗之] .

동상으로 문드러지며 통증이 있으면 생부자 가루를, 면을 끓인 물에 타서 붙인다. 또는 대황 가루를 물에 타서 바른다. 〇뽕 두뇌 [雉腦], 토기 두뇌 [兔腦], 참새 두뇌 [雀腦] 등의 골수를 붙인다 [닭의 뇌도 역시 좋다. 혹은 황납(黃蠟), 청유(淸油)를 넣고 졸여 고(膏)로 만들어 붙인다] 〇귀 부위의 동상으로 짓무르면 패모 가루를 뿌린다. 또는 황백, 백렴 가루를, 소금 끓인 물로 먼저 상처 부위를 씻은 후, 기름과 같이 잘 섞어 붙인다. 〇발 부위의 동상으로 짓무르면 황단(黃丹)을 돼지기름과 섞어 붙인다. 〇발 뒷꿈치에 동상이 생기면 천초를 끓인 물로 씻고 썩은 부분을 긁어낸다. 이어 침으로 찔러 피를 내고 말불버설 [馬勃] 가루를 소의 골수와 잘 섞어 붙인다. 〇오배자 끓인 물에 담가 씻는다. 〇말의 똥물에 담근다 [절대 따스한 물로 씻으면 안 된다] .

火瘡 [灸瘡]

화상 [구창]

火傷不省人事, 蜜水灌口卽甦 ○火毒入腹熱悶, 柳葉煎服. 又苧根煎服 ○燒傷難忍, 急向火灸, 強忍一時卽不痛, 勿搗冷物 ○大麥炒黑研末, 香油和付 ○蕎麥米炒黃研末, 冷水作餅付之 [引出火毒] ○大黃蜜水調付 ○水上青苔貼之 ○貓毛燒存性, 香油調付 ○玉蜀黍鬚, 燒存性, 油調付 ○用乳香定痛散.

화상으로 인사불성이 되면 꿀물을 입으로 조금씩 흘려 넣어주면 바로 깬다 ○ 화독이 복부로 들어가 열이 나면서 답답하여 참지 못하면 버드나무 잎을 다려 복용한다. 또는 모시풀을 다려 복용한다 ○불에 데여 통증을 참을 수 없을 정도면 급히 불에 가까이 다가가 통증을 참고 땀을 뜨면 통증이 없어진다. 절대 찬 물건으로 냉찜질을 해선 안 된다 ○대맥을 검게 될 정도로 볶아 가루 내어 향유와 섞어 붙인다 ○맵쌀 [蕎麥米] 볶아 누렇게 되면 가루 내어 찬물에 떡을 만들어 붙인다 [화독을 뽑아낸다] ○대황을 꿀물에 타서 붙인다 ○물 위의 푸른 이끼 [靑苔] 를 붙인다 ○고양이 털을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향유와 섞어 붙인다 ○옥수수(玉蜀黍) 수염을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기름과 섞어 붙인다 ○유향정통산(乳香定痛散)을 쓴다.

灸瘡 구창

灸瘡, 屋爛艸爲末, 先以槐枝蔥白湯洗, 糝之. ○人屎燒灰, 先以鹽湯洗, 糝之. ○兔腹毛付之. ○茅花付之. ○灸瘡血出不止, 黃芩二錢煎服, 柳葉 [或柳寄生] 煎服, 人尿熱服一升.

뜸 상처에는 옥난초를 가루 내어, 먼저 괴지충백탕(槐枝蔥白湯)으로 상처를 씻은 다음, 뿌린다. ○사람 똥을 태워 재로 만들어, 먼저 소금 끓인 물로 씻은 후, 뿌린다. ○토끼 배의 털을 붙인다. ○띠의 꽃을 붙인다. ○뜸 상처로 피가 멎지 않으면 황금 2돈을 다려 복용한다. 버드나무 잎 [또는 버드나무 기생(寄生)] 을 다려 복용한다. 인분 1되를 따스하게 복용한다.

† 加筆 가필

- 火傷, 飲蘿菹汁, 外傳眞山茶子油神效.
- 화상에는 무즙을 마시고, 외용으로 황해북도 진산에서 나는 차 씨 [茶子] 의 기름을 바른다. 신비한 효과가 있다.
- 宋, 俞文豹, 《吹劍錄外集》, 治湯火傷, 辰砂末, 鷄水清調敷, 立效.
- 송나라 유문표가 지은 《취검록외집》, 끓은 물에 화상을 입은 것을 치료한다. 진사 가루에 계란 흰자를 섞어 붙인다. 바로 효과가 난다.
- 神效當歸膏 [火瘡用], 當歸, 生地黃, 黃蠟各二兩, 麻油 [참기름] 六兩, 右先, 將當歸, 生地黃各一兩, 入油煎黑去渣. 又將二味各一兩, 煎至微焦, 復去滓, 乃入蠟熔化, 候冷攪勻即成膏, 用塗患處, 以紙蓋之, 如有死肉, 須用利刀剪去, 生肌尤速.
- 신호당귀고 [화상용] : 당귀, 생지황, 황납 각 2냥, 마유 [참기름] 6냥. 먼저

당귀, 생지황 각 1량에 마유 [참기름] 를 넣고 끓여 검은색으로 변하면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어 이 두 가지 약제 각 1냥을 더 넣고 약간 탈 정도로 더 다린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밀납을 넣어 녹인다. 식으면 잘 저어주면 고(膏)가 된다. 환처에 바르고 종이로 덮는다. 죽은 살이 있으면 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더욱 빨리 돋는다.



漆瘡

칠창

[白礬極末, 醋調塗之]

[백반 매우 고운 가루를 식초에 섞어 바른다]

生蟹取黃塗之。井中苔, 鷄子黃, 石蟹汁, 韭葉 [擣爛], 紫蘇葉 [擣爛] 并付之, 皆可。河柳 柳枝葉, 桂枝, 川椒, 芒硝, 鐵漿等, 煎湯洗之。貫衆, 蘆頭煎水尤妙。人飲沈漆木水, 腹浮不食, 用稭黍米, 作粥服, 外付即差。夢見漆毒發者, 桂心末, 和冷水服, 忌飲酒。

생게 뱃속의 노란 부위를 취해 바른다。우물 안의 이끼, 계란 노른자, 가재즙, 부추잎 [짓이긴다], 자소엽 [짓이긴다] 을 모두 붙인다. 모두 좋다。능수버들 [河柳] 의 가지와 잎, 계지, 천초, 망초, 철장 등을 다려 씻는다. 관중, 노두를 다린 물로 씻으면 더욱 좋다。사람이 칠나무를 담근 물을 먹어 배가 부르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기장쌀 [稭黍米] 로 죽을 만들어 복용하고, 외용으로 붙인다. 그러면 바로 차도가 있다。칠독이 생기는 꿈을 꿔다면 계심(桂心) 가루를 냉수에 타서 복용한다. 절대 음주는 피한다.

小兒諸瘡 [互看濕瘡]

소아 제창 [습창과 서로 참조한다]

服酒製防風湯 [頭瘡亦服] ○以濕瘡洗方洗之, 用搽藥 ○用雞內金, 五倍子, 川椒, 白礬, 輕粉, 銅青, 黃丹, 龍腦, 松脂, 檳榔等藥, 加減作搽藥, 或入蠟脂中作膏貼之 ○頭腫突出者, 候膿鍼破, 付生鼠皮 ○臍瘡, 枯礬, 龍骨煨, 梁上塵, 釜底墨, 亂髮灰, 赤石脂, 當歸, 黃柏等劑, 或糝或油調付之, 屋爛艸末糝之 [臍中出血同法] ○初生小兒, 眼閉, 啼聲漸小, 舌上聚肉如粟, 吮乳不得, 口吐白沫, 或白屑滿口, 以亂髮纏指頭, 蘸薄荷汁拭淨. 如不脫, 朱砂, 枯礬等分, 研付舌上. 又硼砂 [一錢], 甘艸 [六分], 龍腦 [一分] 爲末, 蜜水調付, 或末糝之 [齒齦上生小泡粟, 不得吮乳, 以指蘸溫水, 輕輕擦破] .

주제방풍탕을 복용한다 [두창에도 복용한다] ○습진 [濕瘡] 에 쓰는 씻는 법을 따라 씻는다. 바르는 약을 사용한다 ○계내금, 오배자, 천초, 백반, 경분, 동청, 황단, 용뇌, 송지, 빈랑 등의 약을 더하거나 빼 뿌리는 약을 만들어 사용한다. 또는 밀납이나 동물 기름을 넣어 고를 만들어 붙인다 ○머리가 붓고 튀어나와 있으면, 고름이 터질 것 같은 때를 잡아 침으로 터뜨리고 살아있는 쥐의 껍질을 붙인다 ○배꼽의 종기에는 고반, 용골 (煨)한 것, 양상진, 부저묵(釜底墨), 난발회, 적석지, 당귀, 황백 등의 약제를 뿌리거나 기름에 섞어 붙인다. 옥난초 가루를 뿌린다 [배꼽에서 피가 나는 때에도 같은 방법을 쓴다] ○갓난아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울음소리가 점점 기어들어 가고, 혀 위에 쌀 모양의 튀어나온 것이 모여 있고, 엄마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고, 입에서 흰 거품을 토하

고, 혹은 흰 비듬이 입안에 가득하다면, 끝을 난발로 묶은 손가락으로 식초나 박하즙을 찍어 입안을 닦아 깨끗이 한다. 만약 떨어지지 않으면 주사, 고반 등 약을 등분하여 곱게 갈아 혀 위에 붙인다. 또는 붕사 [1돈], 감초 [6푼], 용뇌 [1푼] 를 가루 내어 꿀물에 타서 붙인다. 혹은 가루를 뿌려준다 [잇몸에 좁쌀만 한 작은 물집이 생겨 젖을 빨지 못하면, 손가락으로 따스한 물을 찍어 살살 입안을 문질러 터뜨린다] .

口瘡, 牛黃, 片腦, 硼砂, 朱砂, 雄黃, 靑黛, 黃連, 黃柏, 貝母, 枯礬, 五倍子, 百艸霜, 薄荷等藥, 加減糝之. ○小兒月內, 糞門上忽有瘡孔 [名秤勾瘡], 急用白褐灰糝之 [又方, 紅絨灰二錢, 珍珠五分, 輕粉五分, 孩兒茶二錢, 血竭一錢, 乳香一錢, 爲末乾糝] .

구창이 있으면 우황, 편뇌, 붕사, 주사, 옹황, 청대, 황연, 황백, 패모, 고반, 오배자, 백초상, 박하 등의 약을 가감하여 뿌린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되는 아이의 항문에 갑자기 종기 [瘡] 로 인한 구멍이 뚫리면 [칭구창이라 부른다], 급히 흰색 베의 재 [白褐灰] 를 뿌린다(sm/다른 처방으로는, 붉은 베의 재 [紅絨灰] 2돈, 진주 5푼, 경분 5푼, 해아다 2돈, 혈갈 1돈, 유향 1돈을 가루 내어 뿌린다).

疳瘡 감창

疳症受在心肝脾胃, 因食炙甘甜燂熱毒所傷爲瘡. 成眉疳, 鼻脣牙齦等疳, 先服牛黃清心丸, 次服敗毒流氣飲治之. ○眉疳, 用香附散糝之. ○牙口疳, 用米泔漱淨, 以喉科冰片散 [加珠子, 銅靑, 枯礬] 糝之. ○乳香, 輕粉, 信石 [各五分], 射香 [少許]

細研, 以薄紙一韭葉許, 安過揉紙少許, 和丸黃米大, 臨臥, 將藥填患處, 至明即愈 ○
人中白火煨, 枯礬, 白梅肉燒存性各二分, 先用韭根, 陳艾煎汁, 蘸羽刷去腐肉, 洗去
膿血, 後付藥日二 [山根紅者難治] . ○枯礬, 五倍子, 青黛, 黃柏各一錢, 爲末, 先以
米泔漱口, 糝之.

감증은 주로 심장, 간장, 비장, 위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굽거나, 달거나, 물로
끓인 열독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어서 창이 생긴 것이다. 눈썹, 코, 입술,
이, 잇몸 등에 감병이 생기면 먼저 우황청심환을 복용하고, 이어 패독류기음을
복용하여 치료한다 ○눈썹의 감병 [眉瘡] 은 향부산을 뿌린다 ○아구감(牙口
瘡)에는 쌀뜨물로 깨끗이 헹구고 후과빙편산〔sm/진주 [珠子], 동청, 고반을
더한다〕을 뿌린다 ○유향, 경분, 신석 [각 5푼], 사향 [약간] 곱게 간 것, 부
추잎만 한 크기의 얇은 종이를 비벼 푼 것 약간, 이것들을 기장쌀만 하게 환을
지어 잠자리에 들 때 상처를 메운다. 그러면 아침에 바로 낫는다 ○인중백을 불
로 사른 것 [火煨], 고반, 백매육(白梅肉)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운 것 각 2
푼, 먼저 부추 뿌리, 오래된 쑥을 끓인 즙을 깃털로 찍어 이것으로 썩은 살을 긁
어내고, 피고름을 씻는다. 이어 1, 2일 동안 약을 뿌린다 [산근, 즉 콧마루와 두
눈썹 사이가 선홍색을 띠면 치료가 어렵다] . ○고반, 오배자, 청대, 황백 각 1
돈을 가루 낸다. 먼저 쌀뜨물로 입을 헹구고 이어 약을 뿌린다.

赤遊丹 적유단

小兒患此赤丹, 皆從母胎受蘊熱, 故發皮膚, 遊走不定, 但腹起于四肢收者輕, 四肢收於腹者重, 急治得生. 小兒赤遊丹, 固蘊熱所致, 卽胎毒也. 或母懷胎之時, 好食辛辣毒物, 沐浴熱湯, 冬天炭化, 以致熱氣入胎. 嗜慾無度, 或生下火烘衣裳, 或火烘牀褥, 以致熱毒內外交攻, 半歲上下無有不發者. 初起身體發熱, 視之其色紅赤, 啼不止. 其光遊走不定, 發于四肢生, 發於腰腹者死, 急用碗鋒 [或細三稜], 砭去紫血. 自下而上, 則毒血流出, 不可逆砭, 急用乳香末, 鷄子清, 調搗砭處, 時用芭蕉根汁塗之, 內服硃砂化毒丹, 生蜜調下, 再服紫金錠, 水磨汁下. ○拔毒濟生丹. ○乳母, 服乳母流氣飲. ○露天客廁內糞清, 和水花珠搽之. ○熱鱔血塗之 [丹入於腹中, 飽悶臍凸, 體若燔炭, 不治]. ○遊丹發於頭, 必須將兒眠在牀, 以脚根一頭, 加磚一二塊, 以墜毒氣於頭, 以磁鋒砭之, 使毒氣毒血, 從頂出. 若乳母抱立在身砭下, 則毒氣順下, 遂壅咽喉難生矣 [附十丹毒於後]. ○一飛竈丹 [從頭頂起, 漸發紅腫, 頸項俱浮, 眼睛紅色], 蔥一束搗爛, 取汁塗之. 又以朴硝 [五錢], 雄黃 [二錢], 芭蕉汁調和, 用敗筆, 蘸汁潤之, 令病兒臥之, 將此汁自下潤至顛頂, 其毒從百會穴出. 若隨下潤之, 毒入於咽喉難治. 大人患此, 同治法. ○二吉竈丹¹ [從頭額腫痛], 赤小豆末, 鷄子清付之 [亦用前方]. ○三鬼火丹 [從面起赤腫], 伏龍肝末, 鷄子清調付, 再用芭蕉根汁潤之, 益母艸灰醋調付. ○四天火丹 [從背上起赤點], 桑皮末, 羊脂調付. ○四天竈丹 [從背上起赤腫, 黃色], 柳枝燒灰爲末, 蜜調付. ○六水丹 [兩脇虛腫], 生鐵屑末, 或針砂, 或銹丁末, 豬糞調塗. ○七胡次丹 [從臍上起黃腫], 檳榔末, 醋調付. ○八野火丹 [從兩脚上起赤腫], 乳香末, 羊脂調塗. ○九煙火丹 [亦從兩脚上起赤白點], 豬槽下土, 麻油調搽. ○十胡漏丹 [從陰上起黃腫], 屋漏處土, 羊脂調搽. ○瓦花 [卽慎火艸], 搗汁 [和水取汁], 同伏龍肝末, 塗潤之. ○爛皮火丹, 蓮蓬 [煨灰], 面粉, 伏龍肝, 柏末, 和勻乾糝.

어린아이가 적단(赤丹)을 앓은 것은 대개 부모의 뱃속 태아 시절에 열이 극심
 히 쌓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부에 발현되면서 한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한다. 다만 배에 처음 생겨 사지로 이동하는 경우는 경증이지만, 사지에
 처음 나타나 복부로 이동하면 중증이다. 급히 치료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
 다. 소아의 적유풍(赤遊丹)은 틀림없이 극심히 축적된 열로 초래된다. 즉 태독
 이 원인이다. 또는 어미가 아이를 가졌을 때 매운 음식을 즐겨 먹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겨울에 숯불로 난방을 너무 하여 열기가 태아에게 들어가게
 하거나, 즐기는 것에 절제가 없어 아이를 낳고 의복을 너무 뜨끈뜨끈하게 하게
 입거나 침대와 이불도 뜨끈뜨끈하게 하고 생활하면, 이것은 열독이 안과 밖에
 서 서로 교대로 공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태어나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병이 필히 생긴다. 처음 생길 때엔 몸 전체에 발열이 있고 홍적색을 띠며 울
 음이 그치지 않는다.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여기저기 돌아다녀 정해진 위치가
 없긴 하지만, 사지에 발생하면 살고 요복부에 발생하면 죽는다. 급히 완봉(碗
 鋒) [혹은 가는 삼릉침] 으로 검붉은 피를 찌서 제거한다. 다만 아래부터 시작
 하여 위로 이동하면서 한다. 악혈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찌면 안
 된다. 급히 유향 가루에 계자청을 섞어 찌는 부위에 바른다. 때때로 파초근즙을
 바른다. 주사화독단을 생밀에 잘 섞어 넘긴다. 다시 자금정을 물에 갈아 즙같
 이 만들어 마신다 ○발독제생단 ○유모는 유모류기음을 복용한다 ○야외의 손님
 용 변소의 분청을 물을 휘젓을 때 생기는 진주 같은 물방울 [水花珠] 과 잘 섞
 어 바른다 ○뜨거운 드렁허리 물고기의 피를 바른다 [적단이 배 가운데로 들
 어와 답답하여 참지 못하고 배꼽이 툭 튀어나오고 몸이 솟이 타듯 뜨거우면 치
 료가 안 된다] . ○유단이 머리에서 처음 발생하면 반드시 아이를 평상에서 잠

자게 하고, 각각의 뒤꿈치에 벽돌 한두 개씩 붙들어 매어, 독기를 머리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한다. 이어 자봉(磁鋒)으로 찌 독기와 독혈이 정수리에서 빠져 나오게 한다. 만약 유모가 아이를 들고 있는 상태로 폼석으로 아래를 찌면, 독기가 아래로 흘러내게 되어 결국 인후가 막혀 살아가기 힘들다 [뒤에 나오는 십단독(十丹毒)에 부기해 두었다]. ◦일비조단(一飛竈丹) [정수리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선홍색을 띠며 붓는다. 목덜미도 같이 붓고 눈동자도 홍색으로 변한다] 에는 파 [蔥] 한 단을 찢어 즙을 내어 바른다. 또는 박초 [5돈], 웅황 [2돈] 을 파초즙에 섞은 다음 몽당붓(敗筆)으로 즙을 찍어 축축하게 한다. 아픈 아이를 눕히고 나서 이 즙으로 아래에서부터 몸을 축축하게 하기 시작하여 정수리까지 올라온다. 독이 백회혈을 통해 나간다. 만약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 나아가면서 축축이 하면 독이 인후로 침입하여 치료가 어려워진다. 어른이 이 병을 앓아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길조단(二吉竈丹) [머리와 이마부터 종기가 생기고 아프다] 에는 적소두 가루, 계자청을 붙인다 [앞의 처방을 써도 된다] ◦삼귀화단(三鬼火丹) [얼굴에서 시작하여 붉게 변하고 붓는다], 복용간 가루, 계자청을 잘 섞어 붙인다. 다시 파초근 즙을 사용하여 축축하게 하고, 익모초 재를 초에 섞어 붙인다 ◦사천화단(四天火丹) [등에서 시작하여 붉은 반점이 생긴다], 뽕나무 껍질 가루를 양의 기름 [羊脂] 에 섞어 붙인다 ◦사천조단(四天竈丹) [등에서 시작하여 붉은 종기가 생기고 호아색을 띤다], 버드나무 가지를 성질이 보존될 정도로 태워 가루 내어 꿀과 섞어 붙인다 ◦육수단(六水丹) [양 옆구리부터 종기가 생긴다], 생철설(生鐵屑) 가루, 또는 침사(針砂), 또는 수정(鍔丁) 가루, 돼지 똥과 함께 섞어 바른다 ◦칠호차단(七胡次丹) [배꼽부터 생기는 황색 종기], 빈랑 가루를 초에 섞어 붙인다 ◦팔야화

단(八野火丹) [양쪽 다리에서 시작하는 붉은 색 종기], 유향 가루를 양기름 [羊脂] 과 섞어 바른다 ○구연화단(九煙火丹) [역시 양쪽 다리에서 시작하는 적백색의 점], 돼지 구유 아래에 쌓인 흙 [豬槽下土] 을 삼씨기름 [麻油] 과 섞어 바른다 ○십호루단(十胡漏丹) [음부에서 시작하는 황색 종기], 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부위에 쌓인 흙 [屋漏處土] 을 양의 기름에 섞어 바른다 ○와화 [즉 신화초] 를 찢어 즙을 내어 [물과 섞어 즙을 낸다], 복룡간 가루와 함께 발라 촉촉하게 해준다 ○난피화단(爛皮火丹), 연봉(蓮蓬) [불사른 재], 면분(面粉), 복룡간(伏龍肝), 측백나무 가루, 모두 잘 섞어 건조한 가루 상태로 뿌린다.

藍葉打厚付 [熱則改貼] ○溝渠中小蝦搗付 ○水中細苔付之 ○地龍屎 [二分], 焰哨 [一分], 冷水和付 ○大黃, 硃硝末, 井水和付 ○鯉魚血塗之 ○馬齒莧搗付 ○白鷄肉割付 ○青黛澱 [或青花水調], 塗潤之 [凡藥塗四圍, 自外向內塗之].

쪽잎을 짓찧어 두껍게 붙인다 [뜨끈뜨끈하면 바뀔 붙인다] ○도랑 안에 있는 작은 두꺼비를 찢어 붙인다 ○물속의 작은 이끼를 붙인다 ○지렁이의 똥 [2푼], 염초 [1푼] 를 냉수에 풀어 붙인다 ○대황, 망초 가루를 우물물에 풀어 붙인다 ○잉어의 피를 바른다 ○마치현을 짓찧어 붙인다 ○흰 닭의 살을 발라내어 붙인다 ○청대(靑黛) 앙금 [또는 청화(靑花) 물에 탄다] 을 발라 촉촉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방 모두를 약으로 바르고, 외곽에서부터 바르기 시작하여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른다].

† 加筆 가필

- 毒腫熏法神方
- 독한 종기에 훈증 신방
 - 水銀五錢 [以①泥均], 乳香, 沒藥各一錢, 輕粉一錢, 百草霜四兩, 和均紙上鋪均, 捲如鳩卵, 以水浸出堅摩焙乾, 盛烟竹筒燻之 [燻之法, 吹而出之, 不可吹而吸之].
 - 수은 5돈 [①로 이겨 고루 편다], 유향, 몰약 각 1돈, 경분 1돈, 백초상 4량, 이상을 잘 섞어 종이에 고루 편 다음 비둘기 알 모양으로 만든다. 물에 담가 딱딱한 것을 제거하거나 갈아 약한 불에 말린다. 연기 훈증에 쓰는 죽통에 넣고 연기를 쐬다 [훈을 할 때 불어내 빼야지, 불어 낸 다음 다시 빨아 들여서는 안 된다].
- 蚯蚓糞, 能治蜂螫, 余少時, 摘黃柑, 爲遊蜂所毒, 急以井泉調蚯蚓糞塗之, 其痛立止, 聞之昔人納涼簷際, 見石蜂爲蜘蛛所罾, 蛛出取蜂, 受螫而墮, 少甦爬沙牆角, 以後足抵蚯蚓糞掩其傷, 須臾健行, 卒啖其蜂於網, 信乎物亦有知也. 沈存中², 《筆談》, 亦記一事, 與此相類, 但謂以芋梗耳! 姑証之 [明, 陸深, 《金臺紀聞》]
- 구인의 똥은 벌에 쏘인 것을 잘 치료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노란 감를 따다가 주위의 벌에 쏘였다. 황급히 지렁이의 똥을 우물물에 풀어 발랐다더니 바로 통증이 멎었다. 소문에 따르면, 옛날 어떤 사람이 처마 밑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가 벌이 거미줄에 걸렸다. 거미가 나타나 벌을 취하려 하다가 벌에 쏘여 땅에 떨어졌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담장의 모퉁이로 기어가서 다리로 땅을 파고 지렁이의 똥으로 상처를 감쌌다. 잠시 후 건강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거미줄에 걸린 벌을 맛나게 먹었다. 역시 동물 역시 지혜가 있구나! 심존중(沈存中)의

《筆談(필담)》에 역시 기사 하나가 실려 있는데 역시 이와 비슷하다. 다만 토란 줄기로 되어 있다. 이에 잠깐 언급하여 근거로 제시한다 [명나라, 육심(陸深), 《금대기문(金臺紀聞)》] .

- 鄱陽, 汪友良, 因食辣蹄, 誤食骨如指大, 鯁於喉間, 累日不下, 家人憂之, 汪昏睡間, 如見朱衣人來告曰, 聞汝骨鯁苦痛, 吾有一藥可治, 乃南鵬砂最妙, 既覺索砂一小塊淨洗, 嚙化食頃, 脫然消融, 恐有偶誤食骨者, 亦在所當知 [明, 張誼, 《宦遊紀聞》³] .
- 파양(鄱陽)의 왕우량(汪友良)이 매우 맵게 양념한 족발을 먹다가 손가락만 한 뼈를 잘못 삼켜 목구멍에 걸렸다. 며칠이 지나도 내려가지 않아 집안사람들이 걱정하였다. 왕씨가 혼수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을 때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이 뼈가 목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다른 아님 남봉사(南鵬砂)가 최고로 좋다고 말하였다. 목에 걸린 너덜너덜한 것이 깔꿈이 씻기는 듯하더니, 음식을 입에 물고 씹는 정도의 시간 만에 모든 게 목에서 녹아 넘어갔다. 우연이 뼈를 삼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치료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명나라, 장의(張誼), 《환유기문(宦遊紀聞)》] .
- 凡有 搏刀斧傷者, 但以帶鬚蔥, 炒熟搗爛, 乘熱盒患處, 速愈, 頻換熱者尤妙。有風狗毒, 蛇咬傷者, 只以人糞塗傷處極妙, 新糞尤佳, 諸藥皆不及此。破傷風能死人, 用桑條如筋長者十數莖⁴起, 中用火燒, 接兩頭滴下樹汁, 以熱酒和而飲之可愈 [右三則並元, 楊瑀, 《山居新話》]
- 일반적으로 넘어졌거나 싹박질을 하였거나 칼이나 도끼에 베여 난 상처는 뿌리

가 달린 파를 약간 볶아 익혀 찢은 다음 약간 따듯할 때 상처를 덮어 주면 빨리 낫는다. 자주 바꾸어 따듯하게 해주면 더욱 좋다 ○대개 미친개에게 물려 풍독이 생기면, 사람 똥만을 상처에 바르면 매우 좋다. 새로운 똥이 더욱 좋다. 이보다 나은 약은 없다 ○파상풍은 능히 사람을 죽인다. 젓가락만 한 뽕나무 가지 10개를 우산살처럼 머리를 서로 맞대게 하여 전각처럼 위로 솟도록 세우고 그 가운데 불을 놓아 나오는 즙을 모아 [상즙] 따듯한 술에 타서 마시면 낫는다 [위의 세 인용은 모두 원나라의 양우(楊瑀), 《산거신화(山居新話)》에 나옴]

- 茅 [췌] 根下結如大豆 [콩] 者二三升濃煎, 入石硫黃末五錢重, 盛缸坐其上, 燻之二三次, 則即差.
- 띠의 뿌리 아래에 맏히는 대두만 한 괴근을 진하게 다려 2, 3되 정도 만든 다음 석유황 5돈을 넣고 항아리에 담아 그 위에 앉아 2, 3차례 훈증하면 바로 낫는다.
- 獠犬咬, 蟻螫剖背生付, 過一夜出狗毛, 又換付蟻螫, 以盡出毛爲度 [물동의장 노아두는 쯔리 흙을 부쳐, 털안나도록 부치라].
- 미친개에 물린 상처에는 굴벙이의 등을 칼로 갈라 붙인다. 하룻밤 지나면 개털이 나온다. 다시 한번 굴벙이를 바꿔 붙인다. 개털이 모두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물동의 장 노아두는 자리에 있는 흙을 붙여 털이 안 나도록 붙쳐라].
- 蛇咬, 刮取烟⁵津付之, 即差. 如刺痛, 更用隔蒜灸法.
- 뱀에 물린 상처에는, 담배 태울 때 생기는 진액을 긁어내어 붙이면 바로 낫는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마늘을 깔고 하는 뜸법인 격산구법(隔蒜灸法)을 재차 사용한다.
- 蜈蚣咬, 薇蕨菜燒燻.

- 지네에 물린 상처는 고사리 나물을 태워 훈증한다.
- 信石塗法 [信石, 卽砒礪]
- 신석 바르는 법 [신석은 즉 비상이다]
 - 濁酒 [全國] 半碗, 溺澱 [오줌적] 半碗, 入信石 [一錢重], 而信石以乳鉢細研極柔作粉, 三物同煮, 自卯時至酉時, 以慢火慢煮, 日暮時如膏後, 乃取用 [二更時]. 以爪爬瘡, 令頭破汁流後, 卽以信膏均塗, 勿令濃淡不均 [瘡處太濃堆積, 則有膚傷之憂], 塗遍後, 待處其自乾, 就寢. 其翌日勿洗, 待其乾屑自落, 翌夜又如是, 合五次則快差神效. 此法可勝於薰法, 切勿薰之, 毋敗之道耳.
 - 탁주 [물 타지 않은 원액] 반 사발, 오줌 양금 [오줌적] 반 사발에 신석 [1돈 정도] 을 넣는다. 신석은 유봉(乳鉢)으로 아주 곱게 갈아 가루 낸다. 세 가지 약제를 함께 다린다. 묘시(卯時), 즉 오전 6시 정도부터 유시(卯時), 즉 오후 6시까지 서서히 타는 불에 천천히 고아 저녁 해질녘 즈음 고(膏)같이 되면 사용한다 [이경(二更), 즉 밤 10시 정도]. 손톱으로 종기의 머리를 긁어 터뜨려 진물이 나온 후에 바로 신석으로 골고루 발라준다. 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상처가 난 부위에 너무 농도가 진한 약물이 쌓이면 피부를 상할 우려가 있다]. 골고루 바른 다음 마르기를 기다려 바로 잠에 든다. 다음날 절대 씻지 말고 마른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려라.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한다. 모두 합쳐 5차례 하면 신비할 정도로 빨리 낫는다. 이 방법은 훈증법보다 좋다. 절대 훈증하지 마라. 이게 재앙을 맞지 않는 길이다.

- 神效紫金丹
- 신호자금단
 - 龜板酒炙一兩五錢, 當歸, 槐花各一兩, 松脂, 紫金丁各五錢, 常輕粉, 石雄黃水飛, 乳香, 沒藥, 鵬砂, 孩兒茶, 石決明煨童便浸, 朱砂水飛各三錢, 牛黃二分, 右爲末, 大棗蒸肉, 入爛米飯, 和丸菉豆大. 朱砂爲衣, 唐萆薢二錢煎湯, 吞下二三十丸.
 - 구판 술에 구운 것 1냥 5돈, 당귀, 괴화 각 1냥, 송지(松脂), 자금정 각 5돈, 상경분(常輕粉), 석유향 수비한 것, 유향, 몰약, 봉사, 해아다, 석결명 뜨겁게 달군 다음 동변(童便)에 담근 것, 주사 수비한 것 각 3돈, 우황 2푼, 이상 약제를 가루 내어 찢 대추와 으깬 쌀밥과 같이 넣어 녹두만 하게 환을 짓고 주사로 걸을 입힌다. 당비해 2돈을 다린 물에 2, 30환 넘긴다.
- 痰核成膿, 蟾蜍一介, 生搗付之, 消膿.
- 담핵에 고름이 잡힌 경우 두꺼비 산 것을 찢어 붙이면 고름이 사그라든다
- 焦火, 塗山茶花子油.
- 불에 데면 산에 나는 차꽃씨 [茶花子] 의 기름을 바른다.
- 驢咬傷處, 芫蔚草莖葉搗付.
- 나귀에 물린 상처에는 충울자(芫蔚草)의 줄기, 잎사귀를 찢어 붙인다.
- 腫大成膿時, 蜚螻推丸者搗付即散, 行陽⁶ 尤神.
- 종기가 크고 고름이 잡힌 때에는 쇠똥구리가 만든 구슬 모양의 똥덩어리 [蜚螻推丸] 를 찢어 붙이면 사라진다. 행양병 [行陽] 에 더욱 좋다.

1. 二吉竈丹 : 二古竈丹 ※기타 여러 문헌 [↩](#)
2. 沈存中 : 심존중(1031 - 1095). 중국 송나라 때의 관료이자 학자. 본명은 심괄(沈括). 심괄의 자(字)는 존중(存中)이다. 대표 저술은 《夢溪筆談》이다 ※중국 포탈 바이두 참조. [↩](#)
3. 張誼, 《宦遊紀聞》 : 장의(張誼). 중국 명나라 때의 인물이나 자세한 생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宦遊紀聞》은 명대의 다양한 소문이나 풍문을 소개하였다. 대부분 기인한 내용들이다 ※중국 포탈 바이두 참조. [↩](#)
4. 閣起 : 어떤 문헌에는 유사한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閣起'대신 '架起'라는 표현을 사용함. ※역자주 [↩](#)
5. 烟 : 煙 [↩](#)
6. 行陽 : 허벅다리의 림프샘이 부어 켕기고 아픈 병 ※역자주 [↩](#)

해제

개요

『양의미(瘍醫微)』는 신기영(申耆永)이 1836년(헌종 2년)에 편술한 3권 1책의 종기 전문 의서이다. 송나라 두묵(竇默)이 역대 외과의서 전반을 정리하여 편찬한 『창양경험전서(瘡瘍經驗全書)』에서 필요한 의론과 치법을 주로 발췌하고, 여기에 당시 치종의로 명성이 높았던 이익춘(李宜春)의 처방을 더하였다. 다만 서문에서 이익춘의 수십 개를 얻었고 그중 공양단이 종기 치료의 대표 처방이라고 적었고, 본문 중 여러 곳에서 공양단(公養丹)을 치료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양단의 처방 구성은 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권1의 시작부인 ‘응저(癰疽)’의 ‘총론(總論)’은 『창양경험전서』의 권9의 ‘창양총론(瘡瘍總論)’을 옮긴 것이다. ‘창양총론’의 끝부분에 『外科全書』에서 가져왔다고 적고 있는데, ‘外科全書’는 『창양경험전서』의 다른 이름인 『두씨외과전서(竇氏外科全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17년에 간행된 명나라 오계당본(五桂堂本)의 표지 서명이 『외과전서(外科全書)』이다.

구성 및 특징

권1은 癰疽[總論, 消膿, 促膿, 自潰, 開刀, 挿絛, 內托, 排膿, 去惡, 洗法, 生肌, 合瘡, 蟲骨, 雜證, 禁忌], 內癰, 瘰癧, 乳癰[妳癰, 妳癖, 乳巖], 背疽, 腦疽, 疔疽 순으로; 권2는 咽喉[總論, 口內諸證, 喉痺, 口舌瘡], 繭脣, 眼瘡, 耳風毒[耳中諸證], 鼻痔[鼻中諸

證], 面腫[腮瘡, 發鬢], 頭瘡, 甲疽[代指], 臍癰[婦人臍癰], 鶴膝風, 臙瘡[婦人臙瘡], 便毒, 跟疽[足上諸證], 遊丹[上下眼丹], 結核, 癭瘤 순으로; 권3은 痔漏[總論, 脫肛], 臙毒, 懸癰, 陰囊毒, 陰蝕瘡[婦人陰蝕諸證], 濕瘡, 疥瘡, 癬瘡, 牙疳瘡, 黴瘡, 大麻風, 金瘡[刀鎗傷], 杖瘡, 凍瘡, 火瘡[灸瘡], 漆瘡, 小兒諸瘡[疳瘡, 赤遊丹]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영인 필사본에는 책이 유통되면서 책의 소유자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필체의 두주가 다수 적혀 있다. 그간 이의춘이 저술한 것을 신기영이 정리하여 편집하였다고 잘못 알려져 왔다. 편술자인 신기영에 대하여는 별로 밝혀진 바가 없다. 현재 국외 유출 자료로서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영인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 작성자 : 권오민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서적 여백에 기록된 처방은 저자가 쓴 본문은 아니나 본문 이해에 참고가 되므로 [† 가필 加筆]이라는 제목을 임의로 달고 번역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소주(小註)
 - 임의 제목 : 임의로 달아 둔 제목

- 주석 : 주석에 해당되는 문구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양의미 瘍醫微

원저자 : 신기영 申耆永

국역·해제 : 권오민

발행인 : 이진용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1년 12월 10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여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오준호이고, 판
본을 조사·수집한 이는 오준호·이정현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
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2021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 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